

금속노동자를 위한

경영분석과 경제지표 해설



발간사

금속노조 현장교재가 지금까지 총 4권이 출간되었다. 이 중 철학, 역사, 경제는 교육위원과 간부용이었고 조합원용 교재로 만화교재가 1권 출간되었다.

이번에 나오는 경영분석과 경제지표 해설 교재도 간부용이다. 철학, 경제 등의 기초교재 외에 노동조합 간부와 교육위원들에게 필요한 교재가 무엇인가를 논의하다가 경영분석과 경제지표 관련 교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경영분석과 경제지표 해설교재가 조사 통계 업무와 관련된 간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일을 하는 모든 간부와 교육일선에 있는 교육위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여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경영(회계)분석 자료를 읽어내고 경제지표를 해석하는 일은 최근 노동조합활동에서 주요한 업무의 하나가 되어버렸다. 이는 최근 요동치는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어렵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경영분석 교재를 만들고자 했다. 그래서

용어설명은 물론 되도록 많은 사례를 제공하고자 했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노동조합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재가 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정말 어려운 작업을 기꺼이 맡아주신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님과 노동자운동연구소(준) 박준도, 한지원 연구위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2009년 9월 전국금속노동조합

머리말

2008년 세계 경제 위기가 시작되며 여러 언론에서는 경쟁적으로 경제 관련 뉴스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들은 “경제성장률이 추락을 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 등등 각종 수치들을 내보이며 경제 상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자본은 이러한 수치들을 동원하여 노동자들도 고용과 임금을 희생하여 위기를 극복하자며 해고와 임금 삭감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동자들이 지금 이 어려운 순간 희생을 한다면 경제가 나아지고, 이후 희생을 보상을 받게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뼈아픈 경험을 통해 노동자의 희생이 자본가들의 호주머니만을 채울 뿐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본 『금속 노동자를 위한 경영분석과 경제 지표 해설』은 정부와 자본이 주로 이야기하는 여러 경영, 경제, 노동 지표들이 가지는 한계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준비된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낸 여러 통계들은 한 편에서 자본가들의 치부를 숨기기 위한 이념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또 한 편에서는 자본주의가 끝내 숨길 수 없는 모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 지표들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자본

의 기만을 폭로하고,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자의 1부는 기업의 경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영분석 방법을 설명합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을 보는 방법과 성장성, 안전성, 수익성 등 주요 재무제표 지표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러 예시들을 통해 독자가 직접 경영분석을 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 시중의 회계 안내서와 달리 본 책자에서는 실제 금속노동조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업장들의 경영 현황을 분석해보면서 노동자들이 경영분석을 어떻게 투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예시들을 제시합니다.

2부에서는 주요 경제 기관들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용하는 경제 지표들을 설명합니다. 1,2,3장에서는 최근 이야기되고 있는 경제 회복론의 한계를 노동자의 입장에서 실제 분석해보며 여러 경제지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 주가, 국제수지 등의 주요 경제 지표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자산 거품, 은행위기, 파생금융상품 등 최근 언론에서 자주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노동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금속노동자가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연관된 고용과 임금 지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실업률,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등이 어떻게 작성되는지부터 그 한계에 이르기까지 실제 최근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보고, 노동생산성과 임금 관련 통계를 통해 노동자가 어떻게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금속 노동자들의 투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 9월

박하순 |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박준도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연구위원
한지원 |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준) 연구위원

1 부_경영분석 방법과 실습

I. 경영분석의 기초

1. 경영분석의 의의와 한계__14
2. 재무제표의 입수와 가공__18
3. 재무제표의 이해__20
4. 거시경제 및 산업분석의 필요성__32

II. 경영분석 실습

1. 회사 개황__36
2. 손익계산서 분석__41
3. 제조원가명세서 분석__50
4. 대차대조표 분석__55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분석__62
6. 현금흐름표 분석__64
7. 비율분석__66

III. 경영분석의 특이 사례

1. 경제위기와 부도__70
2. 실적을 속인 사례들__72
3. 투자부진__73
4. 대비되는 초국적자본과 개도국자본__76
5. 계열사와의 거래 왜곡__86
6. 양호한 경영 상태에서의 정리해고__88
7. 현안 사업장들__94

<부록 1>

계정과목 분류와 설명

1. 대차대조표 계정 과목__100
2.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__112
3. 제조원가명세서 계정 과목__121

<부록 2>

비율 설명

1. 성장성에 관한 지표__126
2. 손익의 관계 비율__122
3. 자산·부채·자본의 관계 비율__134
4. 자산·부채·자본의 회전률__137
5. 생산성에 관한 지표__139
6. 부가가치의 구성__142

2부_알기쉬운 경제·노동지표

“경제지표로 세계경제위기 이해하기”

I. 세계경제 회복 논쟁 경제성장률의 뒤편에 있는 진실

1. 경제성장률_148
2. 최근 경제회복의 키워드: 정부 지출과 자산 거품_154
3. 정부와 자본의 손실_159

II. 계속되는 은행 위기! 두 번째 금융 위기 시나리오

4. 통화_173
5. 금리와 증가_177
6. 신용확장과 부동산 거품_181
7. 자본주의의 막장, 파생금융상품_185
8. 은폐된 자산 부실, 끝나지 않는 은행위기_192

III. 세계화의 끝, 세계 화폐 달러의 위기

9. 환율_201
10. 국제 수지_207

〈경제위기 돌보기〉

제조업과 금융: 지엠(GM)을 통해 본 금융화의 시작과 끝

1. 금융화와 GM의 흥망성쇠_217
2. 다시 시작된 투기_222

IV. 고용위기의 확산, 삶의 불안전성

11.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_235
12. 경제위기 시대 고용지표_241
13. 비정규직과 고용의 불안정화_244
14. 실업의 다양한 형태와 불완전 취업_247

V. 바닥을 향한 경쟁, 임금격차와 저임금

15. 노동시간_253
16. 임금_257
17. 임금구성과 임금신축성_261
18. 바닥을 향한 경쟁과 임금격차_266
19.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_272

경영분석
방법과 실습

경영분석
방법과 실습

#1 2천원에서 300억 회사로

1946년 자본금 2천원으로 시작한 모 회사는 1998년 자본금 300억의 회사로 성장하였다. 자본주의 사회의 상식으로 보자면 이 기업가는 동물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하여 맨 땅에서 황금성을 지어낸 영웅이라 할 만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자본 증식은 42년간에 걸쳐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으로 축적한 결과일 뿐이다. 노동자 임금 인상에 인색했던 이 회사는 무상증자를 통해 46억 원에 이르는 자본금을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주기까지 하였다.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자본 부채 항목을 살펴보면 이 회사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볼 수 있다.

#2 이익은 자본가에게, 손해는 노동자에게

모 약기 회사는 수년간 흑자를 내고도 단 1년간의 적자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감행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0억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2006년 8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 회사는 부채도 얼마 없으며, 향후 매출 전망도 밝은 편이었다. 자본가의 생각은 간단하다. 이익은 자신의 것이며, 조금이라도 손실은 노동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사공생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언제나 이렇게 모든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 넘길 생각을 하고 있다. 한 해의 영업성적을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와 이익과 손해의 누적으로 발생하는 자본과 부채의 현황을 보면 자본가가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3 '덕튀' 들의 축제

상하이자동차는 쌍용차를 헐 값에 인수한 이후 기술만 빼먹고는 경제 위기가 닥치자 가차 없이 회사를 버렸다. 쌍용차의 자산은 투자 부진 속에 몇 년간에 걸친 기계설비의 감가상각으로 크게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다. 초국적 생활용품 업체 P&G는 한국의 업체를 인수한 이후 해외에서 생산하는 자사 브랜드 상품은 육성하고 국내에서 생산해 온 인수 업체의 브랜드에는 투자를 소홀히 하고 있다. GM은 40여개 국가에 공장과 판매망을 두고 다양한 초민족적 영업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계열사인 GM대우자동차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규모의 선물환 손실로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초국적 기업에게 인수당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 상태는 모기업의 경영 현황과 비교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1부에서는 경영분석에 대해서 주로 실습과 사례분석을 통해서 알아본다. 실습과 사례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경영분석에 관한 기초를 알아보기로 하자. 경영분석에 대한 기초의 일부를 구성하는 계정과목 설명과 각종 경영분석 비율 설명은 참고자료로 제1부 맨 뒤쪽에 실어 놓는다.

I

경영분석의 기초

경영분석은 특정 기업의 경영에 관한 여러 측면을 분석하여 최근 몇 년 간의 경영실태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는 작업이다. 넓은 의미로는 재무 분석, 사업 분석, 조직 및 인사부문 분석, 산업분석, 경제전체 분석 등을 포괄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재무 분석에 국한한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경영분석, 즉 재무 분석을 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경영분석의 의의와 한계

기본적으로는 노동자 자신이 일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적) 상태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 가는 존재일 수는 없다. 그래서 자본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다. 노동자는 이 세계 모든 사안들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회사의 경영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둘째, 이를 통해 왕왕 있는 자본 측의 거짓과 왜곡을 분간해 낼 수 있게 된다. 때로 자본가-경영자는 재무자료 자체를 조작하기도 하고, 외부에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마치 비밀인 것처럼 취급하고 노동조합에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그리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상당한 후자를 냈으면서도 적자라고 거짓말을 한 인천 C 약기의 사례처럼 간혹 존재한다. 공개된 자료 자체를 읽어낼 수만 있으면 이런 거짓말에 속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자료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정확히 분간해 내는 것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자본가-경영자도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일반인이 보기에 그럴 듯하게 조작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잘 살펴 분석을 하다보면 커다란 왜곡이나 조작은 밝혀내기도 한다.

셋째, 경영분석을 통해 국민경제 내 대자본과 중소자본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고, 국내에 진출한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행태(고이윤-고배당, 인수합병 및 철수)와 국내 대자본의 해외생산 확대 등의 실상을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이윤율 하락으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심화와 그것의 붕괴가 반복되고 있는 바, 초민족적 자본의 적나라한 기생성(寄生性)과 부후성(腐朽性)을 살필 수 있다.

넷째, 경영분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노동조합이 처해 있는 환경으로

서 국민경제 전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영업을 포함한 기업의 활동을 전부 합하면 대체로 국민경제가 되고,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원리와 국민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국민계정이나 국부통계의 작성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경영분석은 국민경제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면 경영분석의 한계는 무엇인가? 우선 자료의 한계를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이 입수할 수 있는 자료가 제한되어 있기도 하고, 노동조합이 입수한 자료는 기업주가 작성한 자료여서 앞에서 이야기한 왜곡과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

둘째, 역사적 원가주의와 보수주의 회계원칙이 문제다. 역사적 원가주의란 원가를 회계처리, 회계보고의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원가란 보통 취득원가 또는 역사적 원가를 가리키는데 이 원칙에 의하면 모든 자산의 취득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계상하고 일단 계상된 금액은 그 후 해당자산이 판매, 처분될 때까지 회계장부에 원가로 계상된다. 원가주의는 원가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점, 원가의 결정이 확실하고 용이하다는 점, 검증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나 현재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보수주의 회계원칙이란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회계처리 방법이 있을 때 이익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하는 방법을 택하여 회계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보수주의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자산과 이익의 과소계상이 아니라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자산과 이익을 과대 계상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수주의에 따른 기업회계기준의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 시가가 하락했을 때 저가법으로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인식하지만, 재고자산의 시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보유이익을 인식하지는 않는다. 또 무형자산의 조기상각을 인정하고, 공사손실이 예상될 때 예상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쉽게 설명하면 미 실현 손실은 미리

인식하고 미 실현 이익은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보수주의 원칙은 과거의 채권자 중심의 회계에서 비롯된 회계처리 관습이다. 이런 원칙들은 널리 인정되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의 상태를 실제보다 좋지 않게 보여준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요구투쟁을 제약하는 요소가 된다.

셋째, 경영분석 자체의 한계가 있다. 기업주는 새로운경영 전략, 새로운 인사제도, 합리화, 외주화 등의 구조조정 시도로 끊임없이 노동에 대한 선제적 도발을 감행한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공격은 진행된다. 예를 들면 정리해고요건의 완화, 근로자파견법의 개악 등이 그것이다. 어찌 보면 이렇게 매일 매일 생산현장 내외에서 벌어지는 노동과 자본(및 국가)의 대립의 결과가 재무제표에 기록이 된다. 그런데 경영분석에서는 이러한 작업장 내외의 노동과정에서의 자본과 국가의 노동착취 증대 시도와, 계급간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나 투쟁을 잊어버리기 쉽다. 경영분석은 계급 대립의 과정은 생략된 채 결과만을 분석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경영분석을 가지고 하는 투쟁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이다. 그리고 분배를 중심에 두는 투쟁이어서 착취 자체의 폐지라는 문제의식을 잊어버리기 쉽다.

넷째, 노동조합이 경영분석의 결과에 지나치게 위축되는 경향도 문제다. 경영분석의 결과, 회사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노동조합이 투쟁도 하기 전에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회사의 나쁜 경영실적이 노동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에도.

다섯째, 현장내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투쟁에 의한 해결보다는 지나치게 경영분석에만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도 있다. 이는 어용노조가 지배하는 회사에서 특히 그렇다. 경영분석은 단지 회사 경영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경영분석의 결과 회사의 경영상태가 양호하다고 해서 그것이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자들의 다양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주지는 못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에게 닥치는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의 단결된 힘과 투쟁에 의해서다. 현장의 문제를 주체적인 투쟁에 의해서 풀려고 하기보다 경영분석에 과도하게 기대하려는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여섯째, 경영분석이 노동자의 의식을 개별 기업 의식 안에 가두어 버리는 경향도 있다. 경영분석이 노동자에게 해악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 해당 기업의 경영실적에 매몰되면서 노동자가 자신의 생각을 자본가와 동일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영실적이 좋지 않거나, 타 회사와 비교하게 될 때 노동자의 의식은 사라지고 해당 기업의 자본가 입장에서 사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경영분석은 오히려 노동자의 연대와 계급 의식을 고취하기는커녕 노동자 의식을 개별기업 의식 안으로 가두어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경영분석에는 그 의의가 명백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나 우려지점이 있는 바 그 활용에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다.

2. 재무제표의 입수와 가공

경영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재무제표를 입수해야 하고 초벌 가공을 해야 한다. 일단 자료 입수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자면 재무제표를 비롯하여 제반 경영자료를 일단 회사에 요구하여 입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이 경우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보다 상세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재무제표는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구하고 초벌 가공하는 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kr/main.html>) 사이트를 들어간다.

둘째, 맨 오른쪽 세로줄 부속사이트 메뉴 중 DART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들어간다.

셋째, 회사명 란에 회사 이름을 쳐 넣고, 기간 란의 연도를 고쳐, 보고자 하는 재무제표들을 얻는다. 재무제표는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회사채나 주식 상장되어 거래되는 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 등에서도 구할 수 있다. 사업보고서의 경우 분기별 자료도 구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에는 사업보고서에는 없는 주식사항이 있고, 사업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이외에도 회사와 관련한 여러 정보들이 있다. 사업보고서와 유사한 것으로는 유가증권을 발행 할 때 작성되는 투자설명서가 있다.

넷째, 4년 정도의 재무제표를 엑셀 파일에 복사해 옮긴다. 대차대조표는 대차대조표대로, 손익계산서는 손익계산서대로 따로 옮긴다. 물론 장기간의 분석을 위해서 커다란 계정들만 따로 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상장기업이라면 사업보고서 상의 요약재무제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다섯째, 원단위를 백만 단위, 혹은 천 단위로 바꿔준다.

여섯째, 손익계산서는 매출액을 100으로 하여 각 항목들의 비중을 구한다. 대차대조표는 자산총계를 100으로 하여 각 항목들의 비중을 구한다. 이 때 엑셀의 워크시트를 따로 열어서 커다란 계정만 남기고 다른 계정은 전부 지울 수도 있고, 숨기기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또한 전년대비 증가율을 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 프로그램으로 옮길 때는 '입력-OLE개체-Microsoft Exel 워크시트' 메뉴를 이용한다.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에 옮겨서 적절한 조정을 하여 보기 좋은 표를 만들어 낸다. 그림도 엑셀에서 그려서 아래아한글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보기 좋게 편집을 할 수 있다.

3. 재무제표의 이해

우선 재무제표는 무엇이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자. 재무제표란 경영분석의 기초자료로서 이해관계자(주주, 은행, 국세청 등)에게 기업의 재무상태와 일정기간의 경영성과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자료다. 재무제표는 <그림 1-1>처럼 여러 표와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1-1> 재무제표의 구성

- ✦ **대차대조표** 결산일 현재까지의 조달된 자금과 자금사용 내역을 정리한 표
- ✦ **손익계산서** 한 회계년도(1년) 동안 영업활동을 한 결과로서 비용과 수익을 정리한 표
 - * 제조원가명세서 부속명세서의 일종으로서 재무제표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생산활동에 들 어간 비용을 보여주는 표로서 노동조합 경영분석에는 필수적임
- ✦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상법으로 정해진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 작성하는 표
- ✦ **현금흐름표** 한 회계연도 사이의 현금의 조달과 사용과정을 보여주는 표
- ✦ **주식사항**
- ✦ **자본변동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표

(1)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의 구조는 <그림 1-2>와 같다. 실제 대차대조표에서는 부채와 자본이 자산 뒤에 정렬되어 있다. 대차대조표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로서 대차대조표의 차변(왼쪽)에 기록되는 자산항목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의 종류를 나타내며 대변(오른쪽)에 기록되는 부채 및 자본항목은 자본의 조달구조를 나타낸다. 또한 대차대조표는 기업의 유동성과 재무적 신축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산은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부터, 부채도 빨리 깊어야할 순서대로 작성되어 있다.

대차대조표를 간단히 읽어보자(계정과목에 대한 설명은 <부록1>을 참조하라).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자산 = 부채 + 자본’이라는 점이다. 회사가 보유하고 운용하는 자산은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주주의 자금(자본)이 원천이 된다는 것이다(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주주의 것으로 인정이 되지만 자본이 전부 주주의 출처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는 뒤에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그림 1-2〉 대차대조표

○○주식회사, 2008.12.31말 현재

I. 자산	II. 부채
1. 유동자산 (1) 당좌자산: 현금·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기타당좌자산 등 (2)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2.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장기성예금, 투자유가증권, 관계회사주식, 사채 등 (2)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구와 기구, 건설기계정 등 (감가상각충당금) (3) 무형자산: 영업권, 특허권, 상표권, 창업비 등 (4) 기타비유동자산:	1. 유동부채: 당좌차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등 2. 비유동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지급어음, 퇴직급여충당금 등 III. 자본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1) 자본준비금: 주식발행초과금, 합병차익 등 (2) 재평가적립금 (3) 기타자본잉여금 3. 자본조정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5. 이익잉여금 (1) 법정적립금 (2) 임의적립금 (3) 미처분이익잉여금
자산총계	부채와 자산총계

둘째,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동자산은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그렇지 않은 자산이다.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재고자산에는 상품, 제

품, 재공품, 원재료 등이 있는데, 이 중 제품 가액은 손익계산서의 기말제품재고액과, 재공품 가액은 제조원가명세서의 기말재공품재고액과 같다.(이런 수치비교를 통해 재무제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등 기초적인 점검을 할 수 있다.)

비유동자산은 몇 년 전만 해도 고정자산으로 불렀는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이 있다. 이 중 유형자산은 노동자의 노동력과 결합하는 생산수단이라 하겠다. 유형자산 중 토지와 건설가계정을 제외하곤 감가상각충당금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매년의 감가상각비가 누적된 것이다.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상의 감가상각비를 더한 것이다. 참고로 매년의 감가상각비는 현금흐름표 상에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자산’ 항목 속에 나타난다.

셋째,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이루어져 있다. 유동부채는 빨리(통상 1년 이내) 갚아야 하는 부채이고 비유동부채는 그렇지 않은 부채이다. 유동부채 중 “유동성”이 붙은 계정과목은 애초에는 유동부채가 아니었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유동부채로 바뀐 부채를 말한다.

넷째, 자본에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다. 다른 계정들은 뒤에 ‘부록 1: 각 재무제표 계정과목 분류 및 설명’을 참고하되 자본금은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이라는 것을 확인해 두자. 즉 공개된 기업에서 액면가 5,000원인 어떤 기업에서 1주당 20,000원으로 10,000주를 유상증자하면 5천만원만 자본금으로 계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주식발행초과금(자본잉여금)으로 계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를 읽을 때는 총자산을 100으로 놓고 그 구성을 보되 굵직한 것부터, 변화가 심한 것부터 읽는다.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고, 계정과목 중 주식사향이 있는 것은 주식사향을 살펴봐야 한다.

(2) 손익계산서

〈그림 1-3〉 손익계산서

2008년 1월 1일부터 ~ 2008년 12월 31까지 단위 : 백만원

과목	제 ○ ○ (당) 기	
	금 액	
1. 매출액		
1) 수출제품 매출액	xxxx (1,500)	
2) 내수제품 매출액	xxxx (1,000)	xxxx (2,500)
2. 매출원가		
1) 기초제품재고액	xx (700)	
2) 당기제품제조원가	xxx (2,000)	
3) 기말제품재고액	xx (800)	xxxx (1,900)
3. 매출총이익		xxx (600)
4.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1) 급여		
(1) 임원 급여	xx (20)	
(2) 급여와 임금	xx (20)	
(3) 제수당	xx (20)	
2) 퇴직급여	xx (20)	
3) 복리후생비	xx (20)	
4) 접대비	xx (20)	
5) 감가상각비	xx (20)	
6) 무형자산상각비	xx (20)	
7) 대손상각비	xx (20)	
8) ...	xx (20)	xxx (400)
5. 영업이익		xxx (200)
6. 영업외 수익		
1) 이자수익	xx (30)	
2) 유가증권처분이익	xx (30)	
3) 유가증권평가이익	xx (30)	
4) 외환차익	xx (30)	
5) 외화환산이익	xx (30)	
6) 투자자산처분이익	xx (30)	
7) 유형자산처분이익	xx (30)	
8) ...	xx (30)	xxx (240)
7. 영업외 비용		
1) 이자비용	xx (40)	
2) 유가증권처분손실	xx (40)	
3) 유가증권평가손실	xx (40)	
4) 외환차손	xx (40)	
5) 외화환산손실	xx (40)	
6) 투자자산처분손실	xx (40)	
7) 유형자산처분손실	xx (40)	
8) ...	xx (40)	xxx (320)
8. 법인세차감전순이익		xxx (120)
9. 법인세 비용	xx (50)	
10. 당기순이익		xx (70)

손익계산서는 <그림 1-3>과 같다.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되는 비용을 나타내는 동태적 재무보고서이다. 손익계산서는 회계정보이용자로 하여금 기업의 수익성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한편 대차대조표가 일정 시점에서의 자산, 부채, 자본의 크기가 기록이 되는 반면,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실적이 기록이 된다.(따라서 대차대조표는 스톡-stock 계정이고, 손익계산서는 유량-flow계정이다.)

손익계산서를 읽어보자. 우선 노동자가 만들어낸 제품은 팔릴 경우 매출액으로 잡힌다.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총이익이 되고, 매출총이익에서 판매비와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된다. 영업이익에서 영업외수익을 더하고 영업외비용을 빼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이 되고 여기에서 법인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산출된다.

둘째, 매출원가는 제품매출원가와 상품매출원가가 더해져서 산출된다. 제품매출원가는 기초제품재고액에 당기제품제조원가를 더하고 기말제품재고액을 빼면 제품매출원가가 산출이 된다. 상품매출원가도 동일하게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매출원가의 일부인 당기제품제조원가는 제조원가명세서에 동일가액이 나타나고 기말제품재고액 또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에 동일 가액이 나타난다. 물론 기초제품재고액은 전기말 제품재고액과 동일 액수이다.

셋째, 당기제품제조원가가 생산현장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한 것이라면 판매비와관리비상의 비용은 사무관리 파트와 영업파트에서 발생한 비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복리후생비 등의 항목은 제조원가명세서에도 있지만 판매비와관리비에도 있다. 판매비와관리비상의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새롭게 비용으로 차감된 퇴직급여 액수다. 이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퇴직급여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직원들이 일시에 퇴

직할 경우 필요로 되는 퇴직급여총액을 구해 여기에서 전년도까지 총당한 퇴직급여총당금을 빼면 새롭게 비용처리할 수 있는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다.

넷째, 부가가치의 구성항목인 금융비용을 계산하려면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에서 영업외수익의 이자수익을 빼면 된다.

다섯째, 중단사업이 있을 경우 2007년부터 중단사업손익과 계속사업손익이 구분되며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은 손익계산서에서 빼서 주석으로 처리된다. 예전의 경상손익은 계속사업이익으로 바뀌었고, 특별손익 계정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기록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손익계산서를 읽을 때는 매출액을 100으로 놓고 그 구성을 보되,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순으로 보아야 한다.

(3) 제조원가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는 재무제표의 부속명세서의 하나로서 제품 제조에 소비된 원가의 계산명세를 나타내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당기총제조비용에서 기초재공품원가를 더하고 기말재공품원가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상하게 된다(〈그림 1-4〉 참조).

제조원가명세서는 2003년까지는 공표되다가 현재는 공표의무가 없는 명세서이다. 따라서 제조원가명세서는 회사에 요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에서 2003년까지의 제조원가명세서는 구할 수 있지만, 그 이후 제조원가명세서는 역시 회사에 요구해야 한다.

제조원가명세서를 간단히 읽어보자. 우선 제조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재료비는 기초재료재고액에 당기재료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재료재고액을 빼 산출한다. 기말재료 재고액은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에 원재료

가액과 같다. 그리고 기초재료 재고액은 전기말 재료 재고액과 동일하다.

〈그림 1-4〉 제조원가명세서

2008년 1월 1일부터 ~ 2008년 12월 31까지 (단위: 백만원)

과목	제○○(당)기	
	금 액	
1. 재료비		
기초재료 재고액	×× (400)	
당기재료 매입액	×× (1,000)	
기말재료 재고액	×× (200)	××× (1,200)
2. 노무비		
급료와 임금	×× (150)	
제수당	×× (30)	
상여금	×× (70)	
퇴직급여	×× (50)	××× (300)
3. 경비		
전력비	×× (100)	
감가상각비	×× (200)	
복리후생비	×× (100)	
외주가공비	×× (200)	
...	...	××× (800)
4. 당기 총 제조비용		××× (2,300)
5. 기초재공품 재고액		××× (200)
6. 합 계		××× (2,500)
7. 기말재공품 재고액		××× (500)
8. 당기 총 제조원가		××× (2,000)

셋째, 앞서 이야기한 대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더해 구한 당기총제조비용에 기초재공품재고액을 더하고 여기에서 기말재공품재고액을 빼면 당기총제조원가가 산출된다. 마찬가지로 기말재공품재고액은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에 재공품 가액과 같다. 그리고 기초재공품재고액은 전기말재공품재고액과 동일하다.

넷째, 노무비(와 외주가공비)가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읽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해석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임금상승이 별로 되지 않아 노무비 비중이 줄었을 수도 있지만 원재료비가 폭등해서 노무비 비중이 줄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무비 비중은 업종마다, 기업규모마다 천차만별이다. 예를 들어 석유화학업종의 노무비 비중은 3-4%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중소 서비스업에서는 50%를 넘을 수도 있다.

넷째, 제조회가 명세서 상의 감가상각비는 생산현장의 감가상각비이고 그 액수가 매우 크다. 손익계산서 상의 감가상각비와 더해 저서 해당기업의 총 감가상각비가 되고 이는 현금흐름표에 기록되어 있음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다.

다섯째, 외주가공비는 외주 실패를 보여주는 계정이다. 외주가공비의 증대는 고용불안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제조회가명세서를 구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임금, 감가상각비, 임대료 등의 가액은 주식의 부가가치에서 파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조회가명세서를 읽을 때는 당기제품제조원가를 100으로 해서 다른 계정들의 구성비를 볼 수도 있고 손익계산서에 편입시켜 매출액을 100으로 해서 각 계정들의 구성비를 볼 수도 있다.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기업은 영업활동을 하면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축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이익이므로 이것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거나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원으로 파악, 기업은 상법으로 정해진 이익준비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정관이나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이러한 처분사항을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기본 재무제표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이다(결손시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처분과정과 차기이월된 이익잉여금의 구분 표시계산서이며 또한 결

손금처리계산서는 당기말미처리결손금의 내역과 차기로 이월될 결손금의 계산서가 된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2008년 1월 1일부터 ~ 2008년 12월 31까지	
처리에정일 2009년 ○월○일	
1. 당기말 미처분이익잉여금	
(1)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	
(2) 전기 손익수정이익	
(3) 전기 손익수정손실	
• 법인세추납액 등	
(4) 수정후 전기 이월이익잉여금	
(5)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 임의적립금이입액	
○ ○적립금 등에서 이입	
3. 이익잉여금처분액	
(1) 이익준비금	
(2)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차기이월 결손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서는 배당금의 처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배당금은 현금흐름표에 한 해 늦게 나타난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배당금은 배당처분 결정을 표시한 것이고 현금흐름표의 그것은 실제 처분이 이루어져 배당금 지불이 집행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간혹 중간배당금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중간배당금 결정연도와 현금흐름표 상의 배당금 집행연도가 동일하다.

〈그림 1-6〉 현금 흐름표

XX 주식회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단위: 백만원)

과목	제○○(당)기
	금 액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
1. 당기손이익	200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400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무형자산감가상각비	
통화선도평가손실	
대손상각비	
확정계약평가손실	
자본법적용주식감액손실	
기타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300
유형자산처분이익	
통화선도평가이익	
자본법평가이익	
기타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00
매출채권의 감소	
매입채무의 증가	
퇴직금의 지급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00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300
토지의 처분	
건물의 처분	
기계장치의 처분	
기타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00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00
국고보조금의 수령	
단기차입금의 차입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500
단기차입금의 상환	
장기차입금의 상환	
배당금의 지급	
IV. 현금의 증가(감소)(I + II + III)	(-)300
V. 기초의 현금	700
VI. 기말의 현금	400

둘째,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는 영업활동에서 새롭게 창출된 현금액수를 알 수 있고,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지분법투자증권의 취득이나 공장(토지와 건물)의 처분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단기차입금과 장기차입금의 차입과 상환 액수를 알 수 있고, 회사채 발행 규모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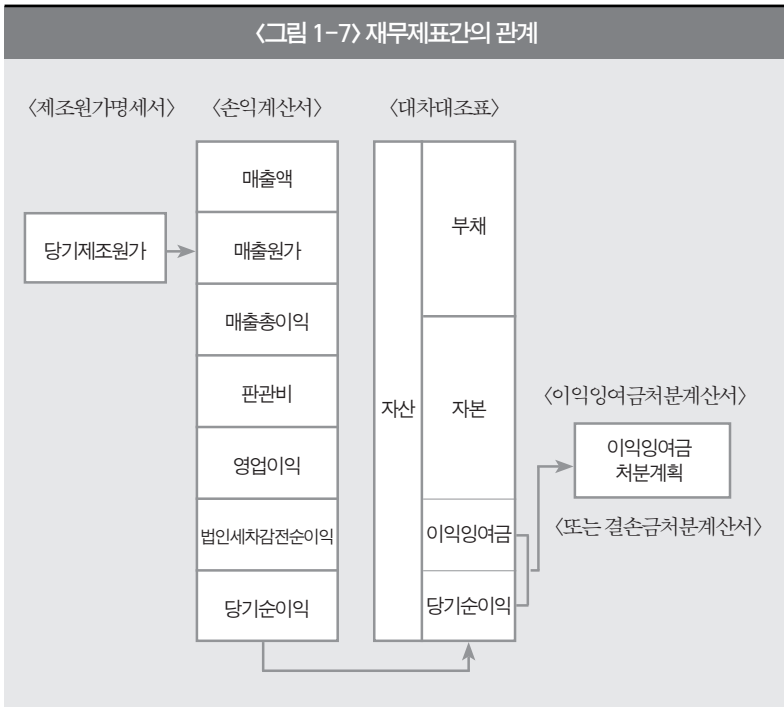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할 것은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에 나오는 퇴직급여는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아니라 비용처리된 퇴직급여이다. 즉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 상의 퇴직급여가 합산된 것이다. 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에 나오는 퇴직금의 지급이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실제 지급된 퇴직금의 총계이다. 또한 현금흐름표 상의 '배당금의 지급'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에 나오는 (기말)배당액이 한 해 뒤에 기록된 것이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상의 중간배당액은 같은 해에 현금흐름표에 '배당금의 지급'으로 기록된다.

(6) 재무제표간의 상호관계

이제 재무제표 사이의 개괄적인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자. 자본가-경영자는 부채와 자본을 원천으로 하여 획득한 자산(특히 유형자산)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기업경영을 하고(대차대조표), 이를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여 제반 비용을 차감한 뒤 주주의 것으로 인정되는 당기순이익을 얻는다(손익계산서). 이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 중의 일부는 배당으로 처분이 되고 남는 것은 자기자본의 증대로 이어진다. 이렇게 축적된 자본은 당연히 부채와 자산구성에 변화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림 1-7>과 같은 연관이 형성된다.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고용이 되어 자신의 생활을 간신히 재생산할 정도의 임금을 받고 그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노동을 하여 생산수단

을 보유하고 있을 뿐 노동하지 않은 자본가에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준다.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에 자본가에게 엄청난 부가
 쌓여 간다.



4. 거시경제 및 산업분석의 필요성

사실 우리는 어떤 기업의 경영성과를 해당 기업의 경영자에 돌리는 경우가 왕왕 있다. 그러나 개별기업의 성과는 자본가-경영자의 경영능력 이외에 다음과 같은 거시경제적 산업적 요인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첫째, 자본주의는 경제위기를 단속적으로 겪는다. 그 위기는 순환적 위기일 때도 있고 구조적 위기일 때도 있다. 이는 노동자를 더 많이 착취하기 위한 자본간의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모순 때문인데 이 모순은 때대로 장기추세상의 이윤율 하락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기순환상 공황 또는 불황국면이나, 아니면 회복 또는 호황국면이나에 따라 경영성과는 달라진다. 자본가-경영자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참고로 자본주의에서 이윤율 저하 메카니즘은 다음과 같다.

“자본의 축적은 단순한 자본 규모의 확대(외연적 축적)가 아니라 자본의 ‘기술적 구성’ [=투하자본(≒고정자본) ÷ 노동자수]의 상승(내포적 축적)을 수반한다.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력의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기술진보로 표현된다. 따라서 거대한 고정자본을 위한 투하자본의 규모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은 노동생산성 [=국민소득 ÷ 노동자수]의 상승을 초과하는 자본의 기술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 생산력 발전은 노동을 절약하고 고정자본을 소비하는 ‘편향적’ 기술진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기술진보를 추동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초과 잉여가치를 최대화하려는 경쟁이라는 외재적 강제력이다.”

“이윤율의 하락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상승, 즉 자본생산성의 하락으로 인한 것이다.”

“자본은 이윤율 하락을 이윤량 증대로 상쇄하려고 시도한다. 이윤율이 하락한 직후부터 고정자본의 규모가 급증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윤율이 계속 하락하면 결국 이윤량도 감소한다.”

윤소영, 『마르크스의 '경제학 비판』(공감, 2005)에서

둘째, 어떤 기업의 성과는 해당 기업이 첨단산업, 성장산업, 사양산업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각국 정부는 산업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산업에 속하는가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달라지기도 하고 따라서 성과도 달라진다.

셋째, 어떤 기업이 속해있는 국가의 자본주의의 성격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 중심부 국가의 기업들은 개도국에 와서 엄청난 특혜를 누리며 기업경영을 하는 반면, 개도국 기업은 중심부에 가서 여러 가지 제약 속에서 기업경영을 한다. 전자의 성과는 매우 좋고 후자는 거의 적자 속에서 헤맨다.

이런 이유로 거시경제 및 산업분석의 필요성이 있다. 거시경제 및 산업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자료, 각 기업의 사업보고서, 업계자료(정책자료집 및 협회보 등), 정부정책자료, 산업연구원 등 정부 산하 연구소, 삼성경제연구원이나 엘지경제연구소 등 대기업 관련 연구소 등에서 구할 수 있다.

II.

경영분석 실습

사업장 하나를 선택하여 경영분석을 해 보기로 하자. 애깃거리가 별로 없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업장 내용을 가지고 보완하기로 한다. 각 사의 사정이 다 달라 분석의 초점은 회사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초점은 자료를 보면서 발견해 내야 할 것이다.

1. 회사 개황

이제 회사의 개황을 보기로 하자. 먼저 회사의 연혁, 주주구성 및 그것의 변화, 자본금 변동, 이익축적, 장기추세분석 등 여러 측면을 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본금 변동, 이익축적, 장기추세분석 만을 보기로 한다.

(1) 자본금 변동

자본금 변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1>는 자동차 부품사 D사의 자본금 변동 내역이다. 1946년 설립자본금 2천원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998년 현재 자본금 300억의 회사로 변모하였다. 그런데 이 300억 자본금 중 약 46억원 정도는 주주에게 무상으로 돌아갔다.

한편 1946년 2천원 자본금이 1961년엔 24만 6천원이 되었는데 자본금 증가액 24만 4천원이 전부 무상증자였다. 이런 무상증자는 전부 이윤(노동자가 생산했으나 노동자에게 지불되지 않은 잉여가치가 그 원천이다)에서 나온 것이다. 초기 투자액 2천원은 주주이자 경영자였을 자본가에게 배당이나 경영자임금(감독임금으로서 엄밀히 말하면 생산적 노동의 댓가로 받은 임금이라기보다는 이윤의 일부로서 이 또한 잉여가치가 그 원천이다)의 형태로 십중팔구 다 돌아갔을 것이다. 이 회사의 초기 자본금은 전부 노동자의 잉여가치가 그 원천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 이후 주주가 직접 자신의 돈을 투여한 유상증자가 있는데 대주주의 경우 유상증자의 자금 또한 그 동안 받은 배당이나 경영자임금, 혹은 사기로 몰래 빼낸 자금으로 충당이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무상증자 46억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본금이 주주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어떤 기업이라 할지라도 설립한 지 10여년이 지나면 자본가가 투자한 초기자본은 이러저러한 형태로 자본가에게 거의 돌아가고, 남은 자본은 노동자의 잉여가치가 이윤의 형태로 누적된 것이라고 하겠다.

〈표 1-1〉자본금 변동

자본단위 : 원

일자	종류	액면가(원)	증자액	증자후자본	비고
1946.09.20	보통주	100	2	2	설립자본금
1961.10.15	보통주	100	244	246	무상증자
1961.10.15	보통주	100	1,189	1,435	유상증자
1962.05.30	보통주	100	1,188	2,623	유상증자
1962.10.01	보통주	100	1,189	3,812	유상증자
1963.08.21	보통주	100	1,188	5,000	유상증자
1963.08.22	보통주	500	0	5,000	액면병합
1965.01.06	보통주	500	5,000	10,000	유상증자
1966.04.30	보통주	500	5,000	15,000	유상증자
1967.11.30	보통주	500	71,000	86,000	무상증자
1969.11.03	보통주	1000	0	86,000	액면병합
1970.07.01	보통주	1000	14,000	100,000	유상증자
1972.10.20	보통주	1000	14,679	114,679	조정사채
1972.12.19	보통주	1000	101,451	216,130	무상증자
1972.12.20	보통주	1000	870	217,000	유상증자
1975.12.10	보통주	1000	47,380	264,380	유상증자
1976.07.22	보통주	1000	191,240	455,620	유상증자
1977.01.07	보통주	500	0	455,620	액면분할
1977.05.24	보통주	500	504,380	960,000	무상증자
1977.06.08	보통주	500	240,000	1,200,000	공모증자
1979.02.27	보통주	500	240,000	1,440,000	무상증자
1979.02.28	보통주	500	360,000	1,800,000	유상증자
1983.04.26	보통주	500	700,000	2,500,000	유상증자
1984.06.15	보통주	500	1,000,000	3,500,000	무상증자
1984.06.15	보통주	500	1,000,000	4,500,000	유상증자
1986.06.12	보통주	500	1,500,000	6,000,000	유상증자
1987.04.27	보통주	5,000	0	6,000,000	액면병합
1987.12.27	보통주	5,000	1,500,000	7,500,000	유상증자
1989.12.16	보통주	5,000	750,000	8,250,000	유상증자
1990.01.01	보통주	5,000	825,000	9,075,000	무상증자
1990.03.16	보통주	5,000	225,985	9,300,985	주식배당
1991.03.15	보통주	5,000	299,015	9,600,000	주식배당
1991.11.16	보통주	5,000	1,400,000	11,000,000	유상증자
1992.03.12	보통주	5,000	293,290	11,293,290	주식배당
1993.03.12	보통주	5,000	506,710	11,800,000	주식배당
1993.09.10	보통주	5,000	1,430,000	13,230,000	무상증자
1993.10.14	보통주	5,000	1,770,000	15,000,000	유상증자
1994.03.18	보통주	5,000	500,000	15,500,000	주식배당
1995.03.17	보통주	5,000	500,000	16,000,000	주식배당
1995.11.16	보통주	5,000	4,000,000	20,000,000	유상증자
1996.03.15	보통주	5,000	700,000	20,700,000	주식배당
1997.03.14	보통주	5,000	1,300,000	22,000,000	주식배당
1998.04.03	보통주	5,000	8,000,000	30,000,000	유상증자

(2) 이익축적

〈표 1-2〉는 M사의 이익축적을 나타내고 있다. M사 노동자들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 자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영업이익은 무려 약 8,291억에 달하고 M사 주주들에게 주로 돌아가는 당기순이익 누적액은 약 5,605억에 달한다.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00년	107,804	50,772
2001년	107,230	57,474
2002년	133,547	86,806
2003년	150,076	104,553
2004년	170,886	130,101
2005년	159,518	130,822
계	829,061	560,528

영업이익은 지급이자(대부자본가), 임대료(지주와 건물주), 법인세(국가), 당기순이익(기능자본가) 등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자본분파에게 분배가 된다. 마르크스 경제학에서의 이윤과 거의 유사한 것이고, 이는 노동자가 생산했으나 자본에게 귀속되는 잉여가치가 그 원천이라 하겠다. 간혹 당기순이익 누적액이 적자인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착취는 발생한다. 영업이익 누적액이 흑자라면 노동자는 해당 기업의 주주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대부자본가 등 다른 자본가에게 이자나 임대료 등의 형태로 이익을 가져다 준 것이다.

(3) 장기추세분석

어떤 기업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기추세 분석을 간단히 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3〉와 〈그림 1-8〉, 〈그림 1-9〉는 K 자동차사의 장기 영업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매출액이 1997년과 1998년에 하락했다가, 2007년에도 하락했다.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약간 증가했으나, 그 증가가 미미하다. 영업이익은 97년과 98년에 감소했다가 그 뒤 회복하여 2003년까지 증가하였다. 2003년 이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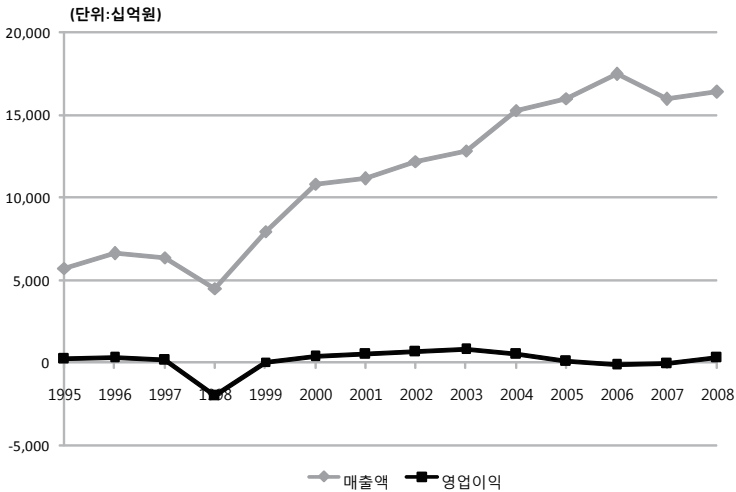
터 하락했는데 2006년에는 적자를 보였다. 2007년에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2008년에 다시 흑자를 보이고 있다.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도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다.

〈표 1-3〉 매출액 및 이익지표(1995-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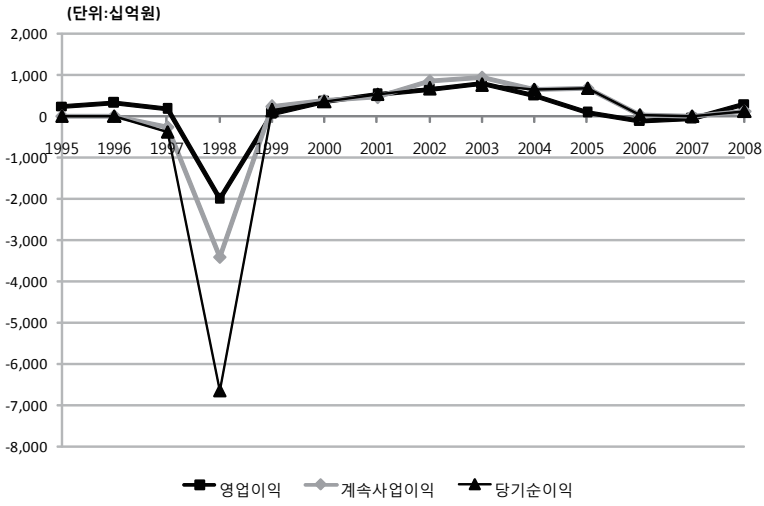
(단위:백만원)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매출액	5,688,541	6,607,138	6,381,526	4,510,678	7,930,638	10,806,045	11,129,204
영업이익	244,545	325,638	166,989	-1,998,030	48,847	353,127	518,984
경상이익	9,779	13,862	-261,888	-3,411,644	227,863	396,366	459,421
당기순이익	11,480	7,037	-382,932	-6,649,556	135,745	349,146	529,15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12,158,112	12,839,881	15,257,742	15,999,356	17,439,910	15,948,542	16,382,231
영업이익	652,315	805,537	513,063	74,002	-125,291	-55,404	308,533
경상이익	851,393	937,526	840,078	689,405	73,213	13,563	113,784
당기순이익	670,820	752,857	662,026	680,904	39,337	13,563	113,784

〈그림 1-8〉 매출액과 영업이익(1995-2008)



〈그림 1-9〉 이익지표들(1995-2008)



2. 손익계산서 분석

K자동차사의 손익계산서 분석을 해 보기로 하자.

(1) 요약손익계산서 분석

요약손익계산서 분석은 가장 커다란 계정들만 일단 분석을 한다. 내용을 보도록 하자.

일단 매출액이 2007년 전년대비 8.55% 줄어들었다가 2008년에는 미약하나마 2.72% 증가하였다. 그러나 매출액은 아직 2006년의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한편 회사자료에 의하면 완성차 판매대수는 5.2%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율이 79.5%로 현저히 낮아졌다. 환율인상(원화가치 절하)으로 원화기준으로 판매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매출총이익률이 과거 14%대에서 2008년 20.5%로 높아졌다.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이 전년에 비해 3.6%포인트나 높아졌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은 1.9%이다.

〈표 1-4〉 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매출액	15,999,356	100	17,439,910	100	15,948,542	100	16,382,231	100
II. 매출원가	13,732,641	85.8	14,927,949	85.6	13,589,960	85.2	13,018,054	79.5
III. 매출총이익(손실)	2,266,715	14.2	2,511,961	14.4	2,358,582	14.8	3,364,177	20.5
IV. 판매비외관리비	2,192,713	13.7	2,637,252	15.1	2,413,986	15.1	3,055,644	18.7
V. 영업이익(손실)	74,002	0.5	-125,291	-0.7	-55,404	-0.3	308,533	1.9
VI. 영업외수익	1,125,220	7	732,650	4.2	772,214	4.8	1,489,345	9.1
VII. 영업외비용	509,817	3.2	534,146	3.1	691,842	4.3	1,730,106	10.6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689,405	4.3	73,213	0.4	24,968	0.2	67,772	0.4
IX. 법인세비용	8,501	0.1	33,876	0.2	11,405	0.1	-46,012	-0.3
X. 당기순이익	680,904	4.3	39,337	0.2	13,563	0.1	113,784	0.7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특히 영업외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양호한 매출액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세전순이익률은 매우 낮아져 2005년보다 낮아졌다.

당기순이익은 약 1,138억이다. 과거 2년에 비해 높아졌지만 2005년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다.

① 매출액과 매출원가 분석

2007년과 2008년에 수출비중이 약간 줄고 내수비중이 약간 늘었다. 한편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K 자동차사는 국내 업체 중 내수판매대수(16.2% 증가)가 증가한 유일한 업체다. 물론 단가하락으로 인해 내수매출 증대는 3.4%에 그쳤다. 수출은 판매대수는 감소하였으나(-12.0%) 환율효과로 인해 수출액은 2.4%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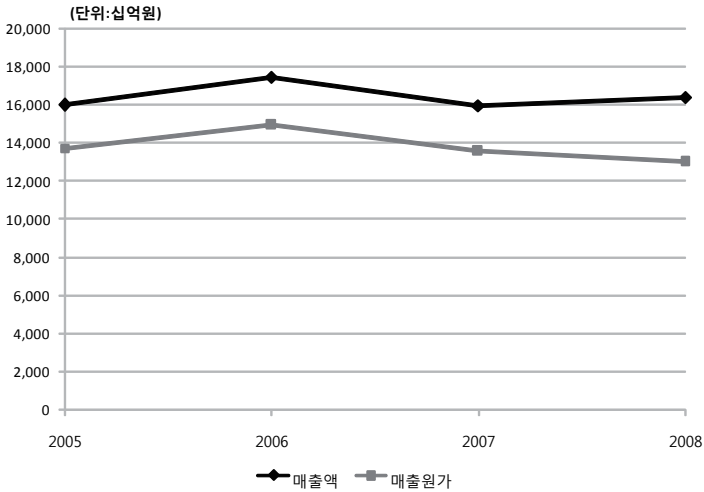
〈표 1-5〉 매출액과 매출원가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매출액	15,999,356	100	17,439,910	100	15,948,542	100	16,382,231	100
국내매출액	4,471,757	27.9	4,867,130	27.9	4,852,075	30.4	5,014,792	30.6
수출매출액	11,527,599	72.1	12,572,780	72.1	11,096,467	69.6	11,367,439	69.4
II. 매출원가	13,732,641	85.8	14,927,949	85.6	13,589,960	85.2	13,018,054	79.5
기초재고액	554,345	3.5	552,059	3.2	620,287	3.9	578,033	3.5
당기매입액	132,852	0.8	153,716	0.9	193,694	1.2	392,377	2.4
당기제조원가	13,737,359	85.9	14,995,163	86	13,493,889	84.6	12,853,134	78.5
계	14,424,556	90.2	15,700,938	90	14,307,870	89.7	13,823,544	84.4
타계정대체출	-48,376	-0.3	-51,770	-0.3	-55,382	-0.3	-64,655	-0.4
관세환급금	-91,480	-0.6	-100,932	-0.6	-84,495	-0.5	-74,380	-0.5
기말재고액	-552,059	-3.5	-620,287	-3.6	-578,033	-3.6	-666,455	-4.1
III. 매출총이익(순실)	2,266,715	14.2	2,511,961	14.4	2,358,582	14.8	3,364,177	20.5

매출원가 비중이 2008년에 현저히 낮아졌다. 매출원가의 대부분인 제조원가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환율상승 때문이다. 수출 매출이 원화기준으로 는 것이고, 이는 다른 말로 하면 달러기준으로 노무비 등의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림 1-10〉 매출액과 매출원가



한편 2007년과 2008년의 당기제조원가는 1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비해 4/4분기에 낮아졌다. 특히 2008년엔 더욱 그렇다.

〈표 1-6〉 4/4분기의 매출액과 당기제조원가

	2006. 1/4~3/4	2006. 4/4	2006	2007. 1/4~3/4	2007. 4/4	2007	2008. 1/4~3/4	2008. 4/4	2008
매출액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당기제조원가	86.5	84.7	86	85.5	82.5	84.6	79.4	76.3	78.5
매출총이익(손실)	13.9	15.6	14.4	13.6	17.6	14.8	20.2	21.3	20.5

기업들은 가끔 매출누락을 통해 사주가 사사로이 이익을 취하기도 한다. 매달 매출상황을 기업에 요구하여 체크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은 매출원가를 조작하여 기업의 이익상황을 조작할 수도 있다. 매출원가의 비중을 동일업종 평균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조작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가를 조작할 수 있다.

첫째, 기말재고를 줄이면 매출원가가 늘어나 매출총이익이 실제보다 줄일 수 있으며, 기말재고를 늘리면 매출원가가 줄어들어 매출총이익을 실제보다 늘릴 수 있다. 재고자산금액을 월평균매출액, 월평균 제조원가 등과 비교해서 재고자산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조작되어)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에서 자회사로부터 구매하는 재료비를 높게 책정할 경우 매출원가가 늘어난다. 자회사의 이익을 늘리는 것이 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이런 조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판매비와관리비 분석

2008년 판매비와관리비 비중이 전년에 비해 3.6%포인트, 2005년에 비해서는 5%포인트가 늘었다. 적지 않은 규모다.

해외시장개척비가 많이 늘었다. 전년에 비해 1.6%포인트가 늘었고, 판매보증비와 수출제비도 늘었다. 시험비도 꽤 늘었다.

2008년 4/4분기에 해외시장개척비와 수출제비가 많이 늘었다. 특히 해외시장개척비가 많이 늘었다. 경제위기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비용이 증대하였는지 아니면 과도한 비용이 지출이 되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표 1-7〉 판매비와관리비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V. 판매비와관리비	2,192,713	13.7	2,637,252	15.1	2,413,986	15.1	3,055,644	18.7
급여및수당	245,196	1.5	266,065	1.5	280,498	1.8	297,139	1.8
상여금	119,295	0.7	123,416	0.7	119,730	0.8	157,507	1
퇴직급여	69,135	0.4	72,393	0.4	83,751	0.5	73,167	0.4
광고선전비	82,505	0.5	97,367	0.6	66,096	0.4	81,393	0.5
운반비	31,763	0.2	34,705	0.2	35,284	0.2	42,682	0.3
판매촉진비	220,712	1.4	288,235	1.7	280,204	1.8	296,308	1.8
판매보증비	316,098	2	325,111	1.9	271,362	1.7	388,464	2.4
해외시장개척비	159,442	1	406,776	2.3	280,870	1.8	558,897	3.4
수출제비	541,352	3.4	551,283	3.2	495,961	3.1	598,620	3.7
복리후생비	50,125	0.3	50,838	0.3	61,608	0.4	65,456	0.4
세금과공과	6,375	0	6,933	0	7,117	0	10,208	0.1
임차료	19,294	0.1	18,693	0.1	16,671	0.1	14,965	0.1
감가상각비	51,982	0.3	48,387	0.3	42,110	0.3	36,964	0.2
지급수수료	98,163	0.6	105,346	0.6	122,046	0.8	121,173	0.7
시험비	135,389	0.8	190,568	1.1	204,294	1.3	266,635	1.6
V. 영업이익(손실)	74,002	0.5	-125,291	-0.7	-55,404	-0.3	308,533	1.9

〈표 1-8〉 4/4분기의 판매비와관리비 계정들

	2006. 1/4-3/4	2006. 4/4	2006	2007. 1/4-3/4	2007. 4/4	2007	2008. 1/4-3/4	2008. 4/4	2008
판매비와관리비	14.5	16.7	15.1	15	15.5	15.1	17.8	20.6	18.7
해외시장개척비	1.4	4.5	2.3	1.3	3.0	1.8	2.8	4.9	3.4
수출제비	3.1	3.2	3.2	3.1	3.1	3.1	3.3	4.5	3.7

③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이 많이 늘었다. 특히 영업외비용이 많이 늘었다. 우선 외환 관련 이익과 손실을 정리해 보자. 영업외수익에서 외환차익과 외화환산이익이 약 6,000억 발생해 전년 약 900억에 비해 5,100억원이 더 발생했고,

영업외비용에서는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실이 약 9,500억이 발생해 전년 약 2,500억에 비해 7,000억이 더 발생했다. 그래서 2008년 외환 관련 순 손실이 약 3,500억 발생했고, 이는 전년에 발생한 1,600억보다 약 1,900억이 많은 액수이다.

〈표 1-9〉 영업외수익과 영업외비용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VI. 영업외수익	1,125,220	7	732,650	4.2	772,214	4.8	1,489,345	9.1
이자수익	97,373	0.6	127,981	0.7	131,471	0.8	134,945	0.8
임대료	6,544	0	8,268	0	7,446	0	6,718	0
배당금수익	245	0	536	0	574	0	298	0
외환차익	96,422	0.6	106,735	0.6	79,651	0.5	560,129	3.4
외화환산이익	92,475	0.6	26,861	0.2	11,199	0.1	45,193	0.3
지분법이익	458,153	2.9	346,126	2	367,358	2.3	553,079	3.4
파생상품평가이익	3,050	0	111	0	3,559	0	36,288	0.2
유형자산처분이익	13,961	0.1	15,586	0.1	65,331	0.4	5,292	0
잡수익	127,513	0.8	95,346	0.5	85,992	0.5	140,765	0.9
장기투자증권평가이익	145,155	0.9		0		0		0
VII. 영업외비용	509,817	3.2	534,146	3.1	691,842	4.3	1,730,106	10.6
이자비용	112,349	0.7	152,641	0.9	220,633	1.4	327,226	2
외환차손	91,794	0.6	98,804	0.6	91,703	0.6	663,350	4
외화환산손실	4,168	0	33,289	0.2	166,089	1	286,441	1.7
매출채권매각손실	86,173	0.5	124,096	0.7	117,148	0.7	102,526	0.6
지분법손실	27,013	0.2	68,371	0.4	42,516	0.3	5,389	0
유형자산처분손실	103,928	0.6	36,864	0.2	13,571	0.1	14,885	0.1
유형자산재평가손실							2,949	
잡손	13,302	0.1	6,494	0	30,727	0.2	306,280	1.9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89,405	4.3	73,213	0.4	24,968	0.2	67,772	0.4
IX. 법인세비용	8,501	0.1	33,876	0.2	11,405	0.1	-46,012	-0.3
X. 당기순이익	680,904	4.3	39,337	0.2	13,563	0.1	113,784	0.7

〈표 1-10〉 외화자산과 외화부채

(원화단위: 백만원)

구 분		제 65 (당) 기		제 64 (전) 기	
		외 화	원 화	외 화	원 화
〈외화자산〉					
현금및	USD	89,100,005	112,043	84,385,177	79,170
현금성자산	EUR	56,188,088	99,802	21,723,961	30,006
매출채권	USD	311,553,574	391,779	483,444,446	453,568
	EUR	198,886,758	353,267	137,765,024	190,289
	AED	61,404,387	21,022	407,477,320	104,078
	기타		24,715		30,634
미수금	USD	39,479,654	49,646	11,503,552	10,793
	EUR	5,220,518	9,273	4,997,584	6,903
	AUD	11,893,607	10,347	9,222,582	7,589
	GBP	1,490	3	1,508	3
보증금	USD	111,700	140	133,194	125
장기대여금	USD	80,000,000	100,600	-	-
	EUR	60,000,000	106,573	-	-
외화자산합계			1,279,210		913,158
〈외화부채〉					
매입채무	USD	12,351,802	15,532	26,993,009	25,325
	기타		13,135		21,323
미지급금	USD	156,802,258	197,179	47,665,619	44,720
	JPY	352,597,795	4,915	518,727,260	4,323
	EUR	19,500,006	34,636	19,058,236	26,324
	기타		4,169		2,691
미지급비용	JPY	23,698,891	330	24,858,891	207
단기차입금	JPY	1,401,550,448	19,536	3,040,839,296	25,340
	USD	115,133,219	144,780	248,820,071	233,443
	EUR	41,000,000	72,825	21,000,000	29,006
사채	EUR	300,000,000	532,866	600,000,000	828,756
(유동성포함)					
외화장기차입금	USD	203,000,000	255,273	154,682,274	145,123
(유동성포함)	JPY	-	-	37,248,728	310
	EUR	405,000,000	719,369	425,000,000	587,036
외화부채합계			2,014,545		1,973,927

한편 2008년 말 현재 외화자산은 원화기준으로 약 1조 3천억원, 외화부채는 약 2조원이 존재하고 있다(〈표 1-10〉 참조). 그런데 이것이 정부가 정책개입을 통해 내린 작년말 환율(1달러 당 1250원 대) 기준으로 평가되었다면, 이후 환

율이 작년말 수준에 비해 계속해서 더 높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했고 이후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지분법이익이 약 5,531억, 지분법손실이 약 54억 발생하였다. 지분법평가 이익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하고 지분법손실은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지분법평가내역은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나와 있다.

간혹 재벌들의 경우 과도한 팽창욕구로 인해 무리하게 타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계열사 전체를 파탄에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가 그렇다. 노동조합이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한편 해외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슬로바키아 공장 양산체제를 계기로 해서 더욱 그렇다. 2007년에는 슬로바키아 공장 생산량이 중국 공장의 생산량을 넘어서고 있다. 2008년의 해외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의 30%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해서 해외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생산량은 약간 줄었고 슬로바키아에서의 생산량은 급감해 경제위기 전 생산이 활발하던 시기의 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이로 인한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집수익과 잡손이 각각 약 1,407억, 약 3,063억 발생했다. 특히 잡손은 전년 307에 비해 2,756이나 늘었다.

〈표 1-11〉 K자동차의 해외공장 생산 상황

구 분	계	중국	슬로바키아
2002	20,085	20,085	-
2003	51,920	51,920	-
2004	63,254	63,254	-
2005	110,071	110,071	-
2006	120,433	115,418	5,015
2007	250,616	105,538	145,078
2008	340,172	138,665	201,507
2008. 1	31,584	13,578	18,006
2	29,438	11,237	18,201
3	28,907	12,401	16,506
4	30,260	10,960	19,300
5	28,919	11,495	17,424
6	30,682	12,119	18,563
7	30,046	13,045	17,001
8	24,538	11,437	13,101
9	31,045	12,039	19,006
10	29,995	10,295	19,700
11	19,991	5,791	14,200
12	24,767	14,268	10,499
2009. 1	18,778	10,428	8,350
2	18,937	9,908	9,029

* 자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3. 제조원가명세서 분석

K자동차사 대신 의미가 있는 2개 사의 제조원가 분석을 해 보기로 하자.

(1) O사의 제조원가 분석

재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노무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2002년의 복리후생비는 경비에 있는데 이것을 노무비로 계상하면 노무비는 21.5%를 차지한다). 이는 구조조정 때문일텐데 남아있는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주가공비 비중도 8.6%에서 8.8%로 전년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외주가공비 비중이 노무비 비중의 반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주가공비 비중이 높아지면 조합원 중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2009년 O사는 결국 기존 생산공장을 전부 폐쇄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하였다.)

감가상각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고정자산이 남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즉 신규투자가 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명세서 상의 감가상각비와 대차대조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개별자산별로 매사업연도에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로 계상된 금액이 누적된 것이 (대차대조표의) 감가상각누계액이다. 감가상각누계액은 대차대조표에 고정자산의 평가계정(차감계정)으로 표시되어 취득원가로 표시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가 합해진 것이 현금흐름표의 감가상각비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다. 정률법에 의한 경우 고정자산도입 초기 감가상각비가 크고 정액법의 경우 정률법에 비해 초기 감가상각비가

작다. 또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의 변경은 일정한 한도 안에서 가능하다.

$$\text{정액법} = \frac{\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text{내용년수}}$$

$$\text{정률법} = (\text{취득원가} - \text{잔존가액}) \times \text{상각률}$$

$$\text{감가상각률} = \frac{\text{감가상각비}^*)}{\text{유형자산가액}^{**}) + \text{감가상각비}} \times 100$$

* 제조원가명세서와 손익계산서의 합계액

** 유형자산에서 토지와 건설가계정의 가액을 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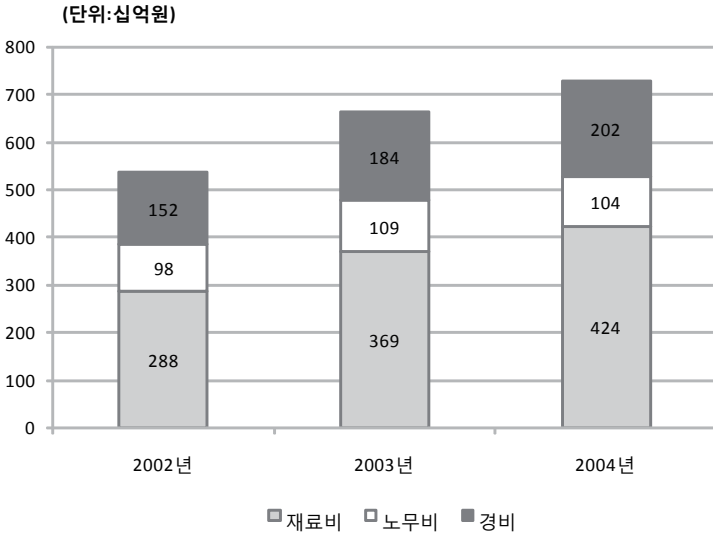
〈표 1-12〉 O사의 제조원가 요약

(단위: 백만원, %)

계정과목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재료비	287,546	63.2	369,206	68.6	423,874	70.8
노무비	77,127	17	109,132	20.3	103,582	17.3
급료(및임금)	68,283	15	19,208	3.6	18,033	3
임금		0	39,497	7.3	38,483	6.4
상여금		0	19,011	3.5	16,172	2.7
퇴직금전입	8,844	1.9	7,223	1.3	8,263	1.4
복리후생비		0	24,168	4.5	22,624	3.8
경비	172,571	38	184,472	34.3	201,744	33.7
감가상각비	11,834	2.6	10,889	2	9,426	1.6
운반비	12,828	2.8	15,270	2.8	18,180	3
외주가공비	39,423	8.7	46,435	8.6	52,904	8.8
도급설치비	45,449	10	59,432	11	62,491	10.4
소모품비	3,758	0.8	3,744	0.7	3,276	0.5
복리후생비	20,807	4.6		0		0
포장비	6,970	1.5	8,002	1.5	10,011	1.7
교육훈련비	610	0.1	572	0.1	514	0.1
기술계약실시료	175	0	109	0	96	0
회의비		0	2	0	1	0
지급수수료	8,972	2	9,400	1.7	10,402	1.7
경상연구개발비	1,675	0.4	2,396	0.4	6,061	1
당기총제조비용	537,245	118.1	662,811	123.1	729,200	121.8
타계정대체액		0	123,561	22.9	130,847	21.9
당기제품제조원가	454,728	100	538,585	100	598,517	100

경비 중에서는 경상연구개발 비중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1〉 O사의 제조원가



(2) M사의 제조원가 분석

제조원가에서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15.19%, 2003년 17.68%, 2004년 16.84%, 2005년 15.34%로 2003년 이래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무려 1.5%포인트나 하락하였다. 변동이 심한 퇴직급여를 제외한 임금및급료는 1.16%포인트 하락하였다. 제조경비 비중도 감소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전년에 비해 1.95%포인트 감소하였다. 원재료비 비중은 전년에 비해 1.38%포인트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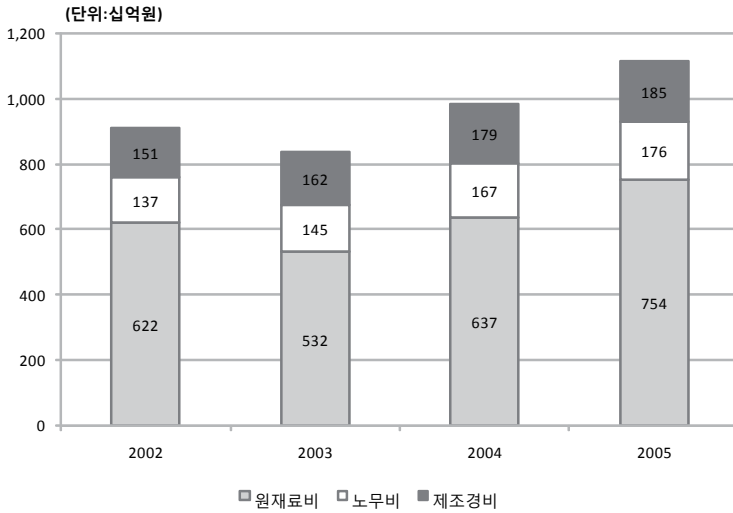
〈표 1-13〉 M사의 요약제조원가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Dec	구성비	3-Dec	구성비	4-Dec	구성비	5-Dec	구성비
원재료비	621,952	68.76	531,665	64.8	637,445	64.34	754,243	65.72
임금및급료	118,091	13.06	127,751	15.57	149,180	15.06	159,490	13.9
퇴직급여	19,315	2.14	17,280	2.11	17,689	1.79	16,580	1.44
노무비	137,406	15.19	145,031	17.68	166,869	16.84	176,071	15.34
전력비	12,537	1.39	12,353	1.51	14,378	1.45	14,616	1.27
감가상각비	49,692	5.49	55,693	6.79	63,867	6.45	67,722	5.9
수선비	11,246	1.24	12,049	1.47	11,834	1.19	9,919	0.86
소모품비	14,740	1.63	13,709	1.67	14,417	1.46	14,693	1.28
세금과공과	1,125	0.12	1,237	0.15	1,356	0.14	1,316	0.11
지급임차료	602	0.07	918	0.11	606	0.06	69	0.01
복리후생비	18,006	1.99	19,880	2.42	22,462	2.27	24,856	2.17
교육훈련비	1,145	0.13	906	0.11	837	0.08	820	0.07
지급수수료	11,772	1.3	12,120	1.48	10,789	1.09	9,200	0.8
경상연구개발비	19,637	2.17	21,544	2.63	25,409	2.56	27,118	2.36
차량유지비	1,246	0.14	1,750	0.21	2,394	0.24	2,732	0.24
기술료	2,453	0.27	2,204	0.27	1,550	0.16	1,615	0.14
무형자산상각비		0		0.28	2,303	0.37	3,655	0.32
제조경비	151,479	16.75	161,644	19.7	179,179	18.08	185,149	16.13
당기총제조비용	910,836	100.7	838,340	102.18	983,493	99.26	1,115,463	97.2
기초재공품재고액	10,598	1.17	11,733	1.43	23,334	2.36	32,818	2.86
타계정에서대체액	2,045	0.23	3,447	0.42	78,756	7.95	129,756	11.31
합계	923,478	102.09	853,520	104.03	1,085,584	109.57	1,278,037	111.36
기말재공품재고액	11,733	1.3	23,334	2.84	32,818	3.31	25,688	2.24
타계정으로대체액	7,215	0.8	9,704	1.18	61,988	6.26	104,709	9.12
당기제품제조원가	904,530	100	820,482	100	990,777	100	1,147,640	100

제조원가명세서를 손익계산서로 편입시켜 구성비를 볼 수도 있다. 매출액을 100으로 했을 때 당기제품제조원가는 69.8%에서 70.5%로 증가하여 0.7%포인트 증가하였다. 원재료비는 1.5%포인트 증가하였고, 노무비는 1%포인트 감소하였고, 제조경비는 1.2%포인트 감소하였다.

〈그림 1-12〉 M사의 제조원가 변화



〈표 1-14〉 M사의 매출액 대비 제조원가비중의 변화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Dec	구성비	3-Dec	구성비	4-Dec	구성비	5-Dec	구성비
상품매출액	69,986	5.9	96,399	8.4	175,084	12.3	227,573	14
제품매출액	1,108,341	94.1	1,048,425	91.2	1,239,706	87.3	1,393,745	85.7
기타매출액		0	4,479	0.4	5,371	0.4	5,532	0.3
매출액	1,178,327	100	1,149,303	100	1,420,161	100	1,626,850	100
상품매출원가	52,865	4.5	74,482	6.5	137,273	9.7	182,448	11.2
제품매출원가	900,465	76.4	817,092	71.1	992,197	69.9	1,142,693	70.2
당기제품제조원가	904,530	76.8	820,482	71.4	990,777	69.8	1,147,640	70.5
〈제조원가명세서〉								
원재료비	621,952	52.8	531,665	46.3	637,445	44.9	754,243	46.4
노무비	137,406	11.7	145,031	12.6	166,869	11.8	176,071	10.8
제조경비	151,479	12.9	161,644	14.1	179,179	12.6	185,149	11.4
당기제품제조원가	904,530	76.8	820,482	71.4	990,777	69.8	1,147,640	70.5

4. 대차대조표 분석

다시 K 자동차사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요약 대차대조표 분석

자산총계가 2008년에 대폭 증가해 15조원이 넘어섰다. 증가율이 20.22%에 달한다. 부채총계는 약 9조 7천억원이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8%에 달한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자본총계는 약 5조 7천억원이고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2%에 달하고 그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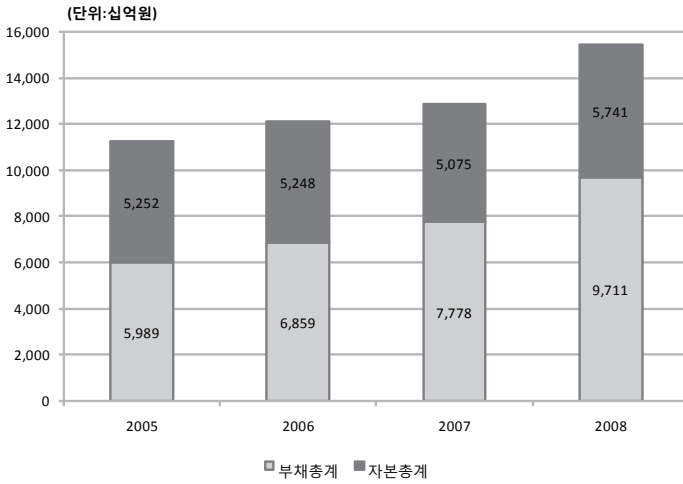
자산총계 중 유동자산 비중이 22.9%, 비유동자산이 77.1%를 차지한다. 유동자산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비유동자산 비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유동부채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 비유동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9.2%이다.

〈표 1-15〉 K 자동차사의 대차대조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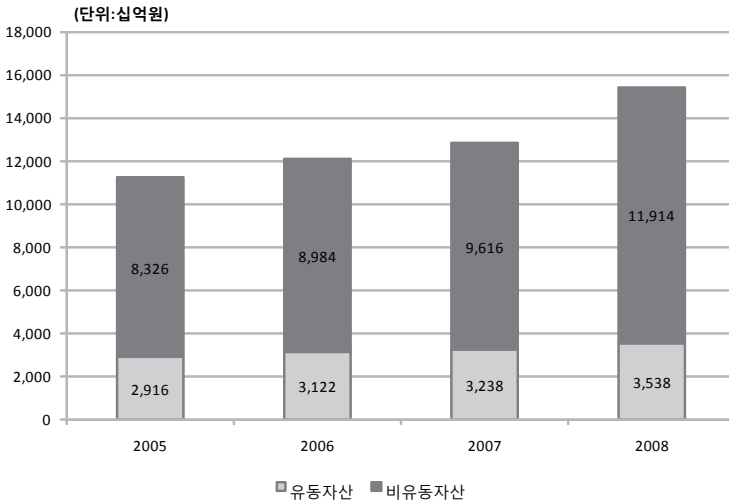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유동자산	2,915,901	25.9	3,122,252	25.8	3,237,924	25.2	3,538,455	22.9
II. 비유동자산	8,325,884	74.1	8,984,353	74.2	9,615,839	74.8	11,913,823	77.1
자산총계	11,241,785	100	12,106,605	100	12,853,763	100	15,452,278	100
I. 유동부채	3,479,435	31	4,103,104	33.9	4,196,287	32.6	5,194,364	33.6
II. 비유동부채	2,509,982	22.3	2,755,745	22.8	3,582,134	27.9	4,516,632	29.2
부채총계	5,989,417	53.3	6,858,849	56.7	7,778,421	60.5	9,710,996	62.8
I. 자본금	1,848,652	16.4	1,848,652	15.3	1,848,652	14.4	1,848,652	12
II. 자본잉여금	1,703,011	15.1	1,703,844	14.1	1,704,583	13.3	1,704,583	11
III. 자본조정	-2,704	0	-2,640	0	-2,427	0	-2,427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6,744	-1.6	-134,961	-1.1	-64,729	-0.5	1,086,091	7
V. 이익잉여금(결손금)	1,880,153	16.7	1,832,861	15.1	1,589,263	12.4	1,104,383	7.1
자본총계	5,252,368	46.7	5,247,756	43.3	5,075,342	39.5	5,741,282	37.2
부채와자본총계	11,241,785	100	12,106,605	100	12,853,763	100	15,452,278	100

〈그림 1-13〉 부채와 자본



〈그림 1-14〉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2) 자산

① 유동자산

당좌자산은 약 2억 5천억원,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이 약 1조 2백 억원이다. 매출채권은 약 1조 1천3백억원.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절대액과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모두 줄었다.

〈표 1-16〉 유동자산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유동자산	2,915,901	25.9	3,122,252	25.8	3,237,924	25.2	3,538,455	22.9
(1) 당좌자산	2,045,009	18.2	2,218,857	18.3	2,357,776	18.3	2,510,619	16.2
현금및현금성자산	906,724	8.1	521,608	4.3	686,911	5.3	911,872	5.9
단기금융상품	210,000	1.9	110,000	0.9	90,000	0.7	105,000	0.7
매출채권	699,341	6.2	1,304,104	10.8	1,172,163	9.1	1,128,022	7.3
현재가치할인차금	-2,338	0	-2,329	0	-1,315	0	-1,650	0
대손충당금	-163,519	-1.5	-127,849	-1.1	-127,444	-1	-125,196	-0.8
미수금	224,818	2	269,608	2.2	367,246	2.9	357,099	2.3
대손충당금	-69,594	-0.6	-83,754	-0.7	-85,101	-0.7	-97,867	-0.6
선급비용	3,285	0	6,565	0.1	31,055	0.2	47,275	0.3
자금보증금	652	0	367	0	428	0	3,431	0
이연법인세자산	196,615	1.7	177,716	1.5	181,251	1.4	111,941	0.7
(2) 재고자산	870,892	7.7	903,395	7.5	880,148	6.8	1,027,836	6.7
제품	380,150	3.4	472,698	3.9	442,958	3.4	475,549	3.1
상품	4,805	0	8,902	0.1	4,736	0	16,890	0.1
반제품	167,104	1.5	138,687	1.1	130,339	1	174,016	1.1
재공품	89,196	0.8	59,130	0.5	64,135	0.5	85,546	0.6
원재료	135,227	1.2	119,408	1	126,760	1	171,792	1.1

②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 약 2조 3천억원 늘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1%로 최근년 들어 가장 높다. 투자자산, 그 중에서 지분법적용투자 주식이 약 9천억 원 늘었다.

유형자산 중에서 크게 늘어난 것은 토지인데 약 1조 2천 9백억원이 늘었는데 2008년 말 10년만에 새롭게 가능하게 된 재평가로 인한 것이다. 즉 실물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는 재무구조를 양호하게 보이게 한다.

무형자산(개발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약 9천6백억원에 이른다. 이연법인세자산도 약 1,280억원에 이르는데 약 1,000억 가량이 새롭게 늘었다.

〈표 1-17〉 비유동자산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I 비유동자산	8,325,884	74.1	8,984,353	74.2	9,615,839	74.8	11,913,823	77.1
(1) 투자자산	1,918,583	17.1	2,526,231	20.9	3,029,635	23.6	3,927,326	25.4
장기투자증권	50,186	0.4	42,548	0.4	10,488	0.1	14,816	0.1
지분법적용투자주식	1,868,397	16.6	2,483,683	20.5	3,019,147	23.5	3,912,510	25.3
(2) 유형자산	5,232,563	46.5	5,229,598	43.2	5,275,181	41	6,452,487	41.8
토지	1,363,519	12.1	1,343,536	11.1	1,386,460	10.8	2,732,370	17.7
건물	1,170,755	10.4	1,290,385	10.7	1,330,744	10.4	1,407,107	9.1
감가상각누계액	-207,710	-1.8	-246,852	-2	-284,003	-2.2	-326,689	-2.1
기계장치	2,715,005	24.2	3,093,765	25.6	2,948,804	22.9	3,145,851	20.4
감가상각누계액	-1,083,288	-9.6	-1,252,638	-10.3	-1,340,692	-10.4	-1,499,001	-9.7
금융리스자산	0	0	0	0	250,000	1.9	250,000	1.6
감가상각누계액	0	0	0	0	-7,136	-0.1	-31,290	-0.2
차공구	1,428,123	12.7	1,500,235	12.4	1,534,921	11.9	1,615,786	10.5
감가상각누계액	-1,045,047	-9.3	-1,161,775	-9.6	-1,284,526	-10	-1,389,306	-9
건설중인자산	558,316	5	340,038	2.8	435,381	3.4	231,602	1.5
(3) 무형자산	763,045	6.8	772,550	6.4	863,207	6.7	971,895	6.3
개발비	749,639	6.7	760,673	6.3	853,170	6.6	963,547	6.2
(4) 기타비유동자산	411,693	3.7	455,974	3.8	447,816	3.5	562,115	3.6
장기대여금							207,173	1.3
보증금	150,258	1.3	176,414	1.5	176,776	1.4	178,353	1.2
이연법인세자산	190,040	1.7	244,248	2	245,088	1.9	128,156	0.8

(3) 부채

부채총계가 9조 7천억원으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유동부채가 5조 2천억원,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6%이다. 비유동

부채는 4조 5천억원, 전체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이다.

매입채무 비중은 2005년 17.5%에서 2008년 11.7%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단기차입금비중은 2005년 2.9%에서 2008년 8.3%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유동성사채와 유동성 장기차입금까지 고려하면 빨리 갚아야 할 부채 부담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한편 이자가 지불되는 부채(차입금)(단기차입금, 유동성사채, 유동성장기차입금, 유동성금융리스부채, 사채, 장기차입금, 외화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가 약 5조 6천억원에 이르렀다. 이는 2005년 2조 1천억, 2006년 2조 9천억, 2007년 4조 2천억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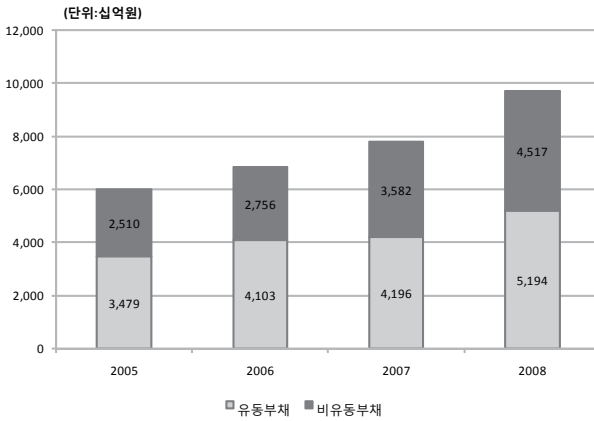
〈표 1-18〉 부채 요약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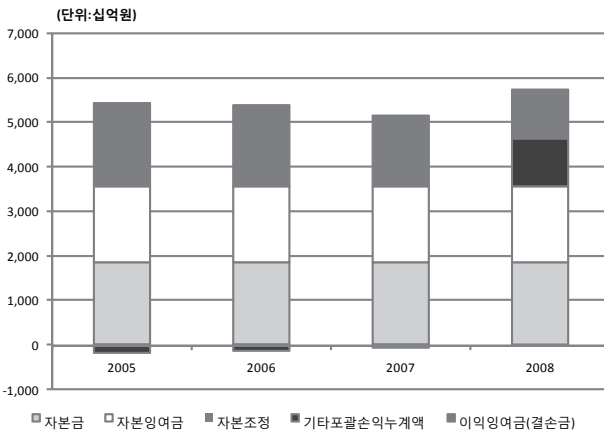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유동부채	3,479,435	31	4,103,104	33.9	4,196,287	32.6	5,194,364	33.6
매입채무	1,968,555	17.5	1,694,370	14	1,614,231	12.6	1,807,464	11.7
단기차입금	312,691	2.8	659,979	5.5	979,090	7.6	1,287,041	8.3
미지급금	604,189	5.4	702,394	5.8	662,792	5.2	788,242	5.1
미지급비용	47,333	0.4	181,512	1.5	49,541	0.4	58,904	0.4
판매보증충당부채	259,704	2.3	272,741	2.3	250,793	2	290,892	1.9
유동성사채	192,470	1.7	185,920	1.5	414,378	3.2	700,000	4.5
유동성장기차입금	66,797	0.6	316,429	2.6	36,311	0.3	106,304	0.7
유동성금융리스부채	0	0	0	0	78,416	0.6	83,751	0.5
II. 비유동부채	2,509,982	22.3	2,755,745	22.8	3,582,134	27.9	4,516,632	29.2
사채	922,690	8.2	1,433,344	11.8	1,614,378	12.6	1,652,866	10.7
사채할인발행차금	-3,409	0	-4,483	0	-4,318	0	-3,618	0
장기차입금	104,866	0.9	34,089	0.3	158,852	1.2	827,998	5.4
외화장기차입금	450,637	4	315,093	2.6	721,198	5.6	899,192	5.8
금융리스부채	0	0	0	0	163,966	1.3	80,215	0.5
장기선수금	0	0	0	0	92,297	0.7	92,297	0.6
장기판매보증충당부채	464,448	4.1	430,748	3.6	399,917	3.1	446,171	2.9
퇴직급여충당부채	1,522,784	13.5	1,407,626	11.6	1,177,013	9.2	1,141,712	7.4
국민연금전환금	-34,418	-0.3	-24,788	-0.2	-16,225	-0.1	-11,090	-0.1
퇴직보험예치금	-934,041	-8.3	-851,383	-7	-741,474	-5.8	-639,012	-4.1
부채총계	5,989,417	53.3	6,858,849	56.7	7,778,421	60.5	9,710,996	62.8

장기차입금비중이 늘어났고, 외화장기차입금 비중은 2007년도에 많이 늘어났다. 장기차입금과 사채의 상환액이 2010년에 약 1조 6천억원이 몰려 있다. 특히 외화차입금 약 8,000억원이 2010년에 몰려 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환율이 내년까지 고회환율을 유지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5〉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그림 1-16〉 자본총계 구성



(4) 자본

자본총계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재평가잉여금(토지재평가)이 약 1조원 생겼고, 지분법자본변동도 상당액 증가하였다.

〈표 1-19〉 자본계정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8	구성비
I. 자본금	1,848,652	16.4	1,848,652	15.3	1,848,652	14.4	1,848,652	12
보통주자본금	1,848,652	16.4	1,848,652	15.3	1,848,652	14.4	1,848,652	12
II. 자본잉여금	1,703,011	15.1	1,703,844	14.1	1,704,583	13.3	1,704,583	11
주식발행초과금	1,580,065	14.1	1,580,065	13.1	1,580,065	12.3	1,580,065	10.2
감자차익	119,859	1.1	119,859	1	119,859	0.9	119,859	0.8
기타자본잉여금	3,087	0	3,920	0	4,659	0	4,659	0
III. 자본조정	-2,704	0	-2,640	0	-2,427	0	-2,427	0
자기주식	-4,272	0	-3,603	0	-2,877	0	-2,877	0
주식매입선택권	1,568	0	963	0	450	0	450	0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76,744	-1.6	-134,961	-1.1	-64,729	-0.5	1,086,091	7
장기투자증권평가손익	10,718	0.1	5,620	0	25	0	34	0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0	0	0	0	-6,700	-0.1	-14,173	-0.1
현금흐름위험회피 비파생상품평가손익							-99,863	-0.6
지분법자본변동	23,947	0.2	19,044	0.2	69,535	0.5	325,055	2.1
부의지분법자본변동	-211,409	-1.9	-159,625	-1.3	-127,589	-1	-130,302	-0.8
재평가잉여금							1,005,340	6.5
V. 이익잉여금(결손금)	1,880,153	16.7	1,832,861	15.1	1,589,263	12.4	1,104,383	7.1
법정적립금	34,100	0.3	42,800	0.4	42,800	0.3	42,800	0.3
임의적립금	1,262,900	11.2	1,750,700	14.5	1,790,000	13.9	1,546,463	10
미처분이익잉여금	583,153	5.2	39,361	0.3	-243,537	-1.9	-484,880	-3.1
자본총계	5,252,368	46.7	5,247,756	43.3	5,075,342	39.5	5,741,282	37.2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분석

M사의 사례를 보도록 하자. 2002년 2003년 M사의 주주들은 유상감자를 통해 엄청난 이익과 자본을 회수해 갔다. 이로 인한 감자차손이 각각 약 1,099억과 833억이나 되었다(주주들이 얻은 순수한 이익은 여기에서 구입가액을 빼고 액면가액을 더한 금액이고 각 주주의 이익은 이 금액에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주들은 2004년과 2005년에는 엄청난 배당을 해 갔는데 그 액수가 각각 약 496억과 492억에 이른다. 배당률은 130%가 넘고 배당성향은 각각 38.1과 37.6에 이른다.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 S사의 지분율은 70%가 넘어서 이들 이익의 70% 이상은 S사에게 돌아간 것이다. S사는 2008년에 최종적으로 M사 지분을 완전히 매각하여 상당한 매각차익을 얻기도 하였다.

〈표 1-20〉 M사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551	-7,712	397	996	853
기타	32				
중간배당액				14,446	
담기순이익(손실)	65,723	86,806	104,554	130,101	130,822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	66,306	79,094	104,950	116,651	131,675
임의적립금		33,000			
기술개발준비금			2,333	11,000	11,000
임의적립금이입액		33,000	2,333	11,000	11,000
이익잉여금처분가능액	66,306	112,094	107,283	127,651	142,675
이익준비금	8,000	300		4,638	682
기업합리회적립금	3,770			52,000	57,000
재무구조개선적립금	28,000		23,000	30,000	30,000
기술개발준비금	26,000			5,000	5,000
현금배당		1,535		35,159	49,157
감자차손		109,862	83,288		
이익잉여금처분액	65,770	111,697	106,288	126,798	141,838
차기이월이익잉여금(결손금)	537	397	996	853	837

외자유치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례다. 그럼에도 역대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을 줄곧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변하였다. 한일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이어 한EU자유무역협정과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비준 시도 등을 계속하고 있다. 이 모두가 잘못된 신자유주의 신앙에 근거하여 노동자 민중을 희생시키고 초민족적 (금융)자본을 살찌우는 길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날대로 드러났다.

6. 현금흐름표

O사의 사례를 보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2003년 2004년 각각 1,178억, 1,009억이 발생하였다. 이 중 대부분이 700억이 넘는 당기순이익으로 인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에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을 더하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을 빼고, 마지막으로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을 가감하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계산된다.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중에 무형자산(영업권) 감가상각이 있다. 매년 341억 발생하고 있다. 그만큼 당기순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지만 이로 인해 현금이 나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 더해진다.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중에 지분법 평가이익이 있다. 2004년에 약 169억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나 현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항목을 빼야 한다.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이 약 204억이 발생하였는데 이 중 대부분이 C 동 매각대금으로 보인다.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보면 배당금 지급으로 무려 약 654억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자본금 400억의 1.5배가 넘는 경악할 만한 액수의 배당이다. 초민족적 자본들이 한국기업을 인수해 구조조정을 해 노동자를 초과 착취하고 이익을 많이 내 엄청난 배당을 가져가거나 유상감자를 해 자본을 회수해 가고 있는데 정확히 O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년도에는 순이익과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감가상각비를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장기차입금을 1,200억 상환한 반면 올해에는 엄청난 배당을 해 간 것이다. 문제는 O사의 이런 행태가 국내투자를 하지는 않고 현금으로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사안이다.

〈표 I -21〉 O사의 현금흐름 요약표

(단위 : 백만원)

	2003년	2004년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17,832	100,860
1. 당기순이익	72,000	72,742
2. 현금유출이 없는 비용 등의 가산	68,928	75,102
퇴직급여	9,366	11,599
감가상각비	11,748	9,278
무형자산감가상각비	34,134	34,134
통화선도평가손실	1,635	2,527
대손상각비		4,638
확정계약평가손실	173	5,245
자본법적용주식감액손실		2,582
기타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 등의 차감	(-)10,297	(-)28,937
유형자산처분이익	25	3,232
통화선도평가이익	1,886	7,375
자본법평가이익	4,495	16,857
기타		
4.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12,799	(-)18,04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732	8,802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6,072	20,430
토지의 처분	49	10,704
건물의 처분	381	5,142
기계장치의 처분	199	2,397
기타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1,803	(-)11,628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23,159	(-)64,862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20	30,592
국고보조금의 수령	720	592
단기차입금의 차입		3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123,878	(-)95,454
단기차입금의 상환	284	30,000
장기차입금의 상환	120,000	
배당금의 지급	3,594	65,454
IV. 현금의 증가(감소)(I+II+III)	(-)11,058	44,800
V. 기초의 현금	19,874	8,816
VI. 기말의 현금	8,816	53,616

7. 비율분석

비율분석(비율에 대한 설명은 <부록2>를 참조하라.)에는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비율분석 등이 있다. 비율 분석은 추세분석을 하는데,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평균과 비교를 할 수도 있고, 경쟁사의 비율과 비교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K자동차사의 비율분석을 보도록 하자.

(1) 성장성 비율분석

성장성비율을 H자동차사와 비교를 해 보도록 하자(<표 1-22> 참조). 매출액증가율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는 A자동차사가 현저히 더 높다가 2007년에 커다란 역전을 이뤘다. 총자산증가율은 K자동차사와 K자동차사 사이에 엇치락 뒤치락하고 있다. 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은 K자동차사가 더 높다. 즉 같은 자산액에서 더 많은 매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매출액증가율	K 자동차	5.61%	18.83%	4.86%	9.00%	-8.55%	2.72%
	H 자동차	1.60%	10.03%	-0.32%	0.52%	11.23%	5.13%
영업이익증가율	K 자동차	23.38%	-38.15%	-85.58%	적자전환	적자지속	흑자전환
	H 자동차	39.20%	-11.40%	-30.14%	3.06%	36.38%	-3.51%
총자산증가율	K 자동차	16.95%	3.72%	5.20%	7.69%	6.17%	20.22%
	H 자동차	16.20%	3.40%	9.18%	-0.87%	11.94%	8.72%
자산회전율	K 자동차	1.32회	1.43회	1.46회	1.49회	1.28회	1.16회
	H 자동차	1.11회	1.11회	1.07회	1.03회	1.09회	1.04회

(2) 안정성 비율분석

유동비율이 전년에 비해 대폭 낮아졌다. B자동차사에 비해 현저히 낮다. B자동차사는 이 비율이 높아졌다.

부채비율이 2004년 이래 높아지고 있고 2007년과 2008년에 특히 그렇다.

B자동차사에 비해 매우 높다. 앞에서 보았지만 토지재평가 등으로 자기자본이 늘었는데 이것이 없었다면 부채비율은 더 높아졌을 것이다.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이래 높아지고 있다. B자동차사의 4배에 가깝다. B자동차사도 2008년에 차입금의존도가 높아졌다.

대체로 안정성비율이 악화하였다.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동비율	K 자동차	84.69%	80.72%	83.80%	76.09%	77.16%	68.12%
	H 자동차	112.50%	130.20%	118.21%	126.99%	126.43%	130.14%
부채비율	K 자동차	127.22%	113.20%	114.03%	130.70%	153.26%	169.14%
	H 자동차	94.00%	82.50%	77.12%	64.66%	62.54%	63.68%
차입금의존도	K 자동차	20.44%	15.56%	18.20%	24.29%	32.38%	36.48%
	H 자동차	10.70%	7.50%	8.18%	6.44%	6.24%	9.17%

(3) 수익성 비율분석

수익성비율을 보자. 매출액영업이익률은 플러스로 돌아섰고 자기자본순이익률도 개선되었다. 그러나 B자동차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가장 양호한 해였던 2003년과 2004년 수준에는 한참 미달한다(〈표 1-24〉 참조).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유동비율	K 자동차	84.69%	80.72%	83.80%	76.09%	77.16%	68.12%
	H 자동차	112.50%	130.20%	118.21%	126.99%	126.43%	130.14%
부채비율	K 자동차	127.22%	113.20%	114.03%	130.70%	153.26%	169.14%
	H 자동차	94.00%	82.50%	77.12%	64.66%	62.54%	63.68%
차입금의존도	K 자동차	20.44%	15.56%	18.20%	24.29%	32.38%	36.48%
	H 자동차	10.70%	7.50%	8.18%	6.44%	6.24%	9.17%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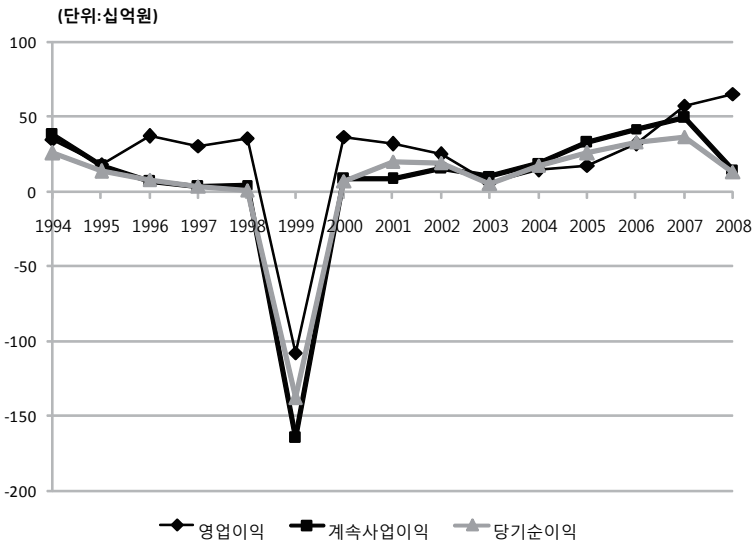
경영분석 특이사례

이 절에서는 경영분석을 하면서 나타나는 특이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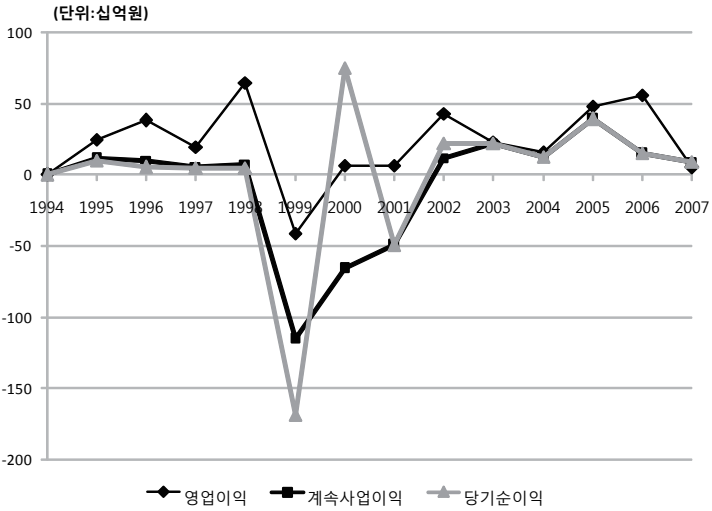
1. 경제위기와 부도

경제위기가 닥치면 거의 모든 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악화한다. 앞의 두 그림은 건설사의 것이고, 뒤의 것은 자동차사의 것이다. 97/98년 경제위기로 부도를 당한 건설사들과 자동차사의 이익지표들이다. 이 세 회사는 98년 혹은 99년에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개별기업의 경영성과가 국민경제 혹은 세계경제의 위기메카니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경영부실은 전적으로 사주의 책임만은 아니다, 체제의 책임이다. 체제를 바꾸지 않는 한 이런 경제위기와 경영부실은 지속된다고 해야겠다. 사주는 이익에 눈이 멀어, 아니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섰을 뿐인 것이다. 이는 단속적으로 이윤을 저하를 낳고 이로 인해 순환적 위기와 구조적 위기를 초래한다. 많은 기업들이 쓰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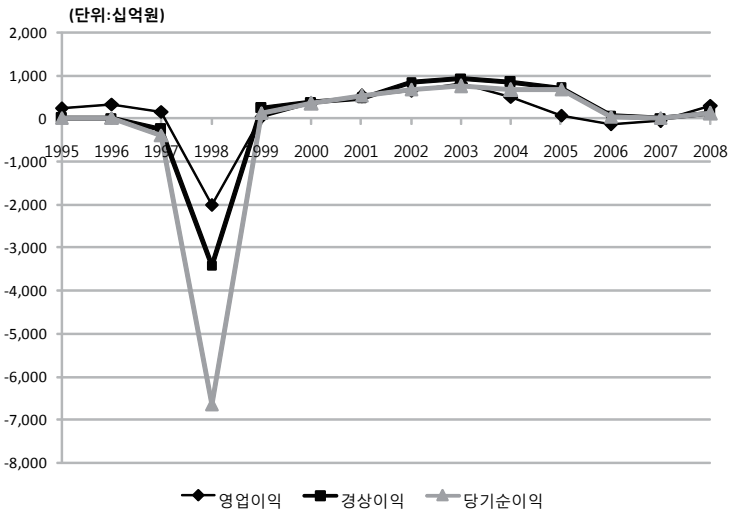
〈그림 1-17〉 K 건설사의 이익지표(1994-2008)



〈그림 1-18〉 S 건설사의 이익지표(1994-2007)



〈그림 1-19〉 K 자동차사의 이익지표(1995-2008)



2. 실적을 속인 사례

인천에 있는 C 약기사는 경영실적을 속였다가 노동조합에게 탄로가 났다. 회사는 노조에 8억원으로 이익을 축소하여 이야기하였는데 실제로 난 이익은 약 29억이었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구조 속에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주주들은 (주주라고 해도 W사와 국내 주주이자 사장 밖에는 없지만) 1998년 자산재평가이후 1999년 자본전입을 통해 18억7760만원 어치의 주식을 무상으로 획득했다. 이는 자본전입 전 자본금 2억6600만원의 약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1999년 회사의 주주들은 자신이 C약기에 투자했던 돈의 7배를 한꺼번에 챙긴 셈이다.

또 2001년 주주들은 약 26억원의 현금을 배당받는다. 이 배당액은 배당이 이루어지기 전 2001년 이익잉여금 약 205억원의 14.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주주들이 회사에 투자했던 금액인 2억6600만원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액수다. 그간 아무리 현금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지나치게 큰 배당액이었다.

또 계열사인 또 다른 C사의 경우에도 2001년 30억원의 현금배당을 하였다. 이 또다른 회사는 C 약기사가 국내주주이자 사장이 100% 지분을 갖고 있으며 그가 이 회사에 투자한 자본금은 6,000만원뿐이다. 즉 사장은 또다른 C사로부터 2001년 한 해 자신이 투자한 돈의 50배를 배당 받은 것이다. 앞에서 본 자본전입과 양사의 현금배당을 통해 사장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얻은 이익은 약 47억원에 이른다.

이러한 가운데 2001년 이익을 속여 노동자들을 공격한 것은 회사의 파렴치함의 극치라고 볼 수밖에는 없다.

3. 투자부진

신자유주의 아래에서 경영자는 주주의 단기이익을 최우선시 한다. 구조조정을 통해 주가를 높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보장받는다. 당연히 위험을 무릅쓴 장기투자가 소홀해진다. 이런 현상은 특히 초민족적 자본에서 두드러진다. 몇가지 사례를 보기로 하자.

광주에 있는 C사는 초민족적 자본 U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업체이다. 이 업체의 투자부진은 특히 심각하다.

토지 건물 구축물을 뺀 생산과 직접 관련된 유형자산의 감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을 뺀 순가액은 2001년 약 220억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급기야 2006년에는 약 43억으로 하락하였다. 기계장치 가액만은 약 6억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기계장치들이 낡을 대로 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25〉 C 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세부 항목

(단위: 백만원)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기계/시설장치	46,826	47,066	47,301	47,821	47,918	13,687	47,756	14,056
(감가상각누계액)	32,112	39,255	44,433	45,923	46,633	-13,038	-46,741	-13,032
순계	14,714	7,811	2,868	1,898	1,285	649	1,015	1,024
차량운반구/선박/항공기	1,084	997	875	786	762	709	709	609
(감가상각누계액)	899	894	838	781	762	-709	-709	-609
순계	185	103	37	5	-	0	0	0
공구/기구	25,700	25,287	26,165	27,353	28,737	12,898	21,296	15,905
(감가상각누계액)	21,863	21,002	22,871	24,450	25,906	-10,673	-16,978	-12,992
순계	3,837	4,285	3,294	2,903	2,831	2,226	4,318	2,913
집기/비품	8,904	7,808	3,628	3,614	3,614	2,863	2,863	2,680
(감가상각누계액)	6,427	6,481	3,358	3,540	3,586	-2,854	-2,862	-2,680
순계	2,477	1,327	270	74	28	8	1	0
건설중인자산	829	480	1,088	314	343	1,388	149	763
합계	22,042	14,006	7,557	5,194	4,487	4,271	5,483	4,701

그런데 이 회사는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즉 생산과 직접 관련된 유형자산이 급격히 감소하던 시기에 무려 364억에 이르는 배당을 해 줬다. 이 시기에 거액 배당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이후 이 회사의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이지 않을까 추측이 된다. 이 회사는 2005년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표 1-26〉 O사의 고정자산(현 비유동자산) 요약

(단위:백만원)

계정과목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토지	49,547	5.90%	29,144	3.90%	29,114	3.90%	18,910	2.50%
(감액손실누계액)		0.00%		0.00%	-2,264	-0.30%	0	0.00%
잔존가액	49,547	5.90%	29,144	3.90%	26,850	3.60%	18,910	2.50%
건물	74,602		60,865		62,134	8.40%	51,070	6.70%
(감가상각누계액)	-4,797	0.60%	-6,609	0.90%	-8,832	-1.20%	-8,012	-1.00%
(감액손실누계액)		0.00%		0.00%	-5,579	-0.80%		0.00%
(국고보조금)	0	0.00%	0	0.00%	-368	0.00%	-354	0.00%
잔존가액	69,805	8.30%	54,256	7.20%	47,355	6.40%	42,704	5.60%
구축물	10,664		9,389		9,333	1.30%	8,374	1.10%
(감가상각누계액)	-1,687	0.20%	-2,190	0.30%	-2,886	-0.40%	-3,054	-0.40%
잔존가액	8,977	1.10%	7,199	1.00%	6,447	0.90%	5,320	0.70%
기계장치	28,063		29,677		31,685	4.30%	25,697	3.40%
(감가상각누계액)	-9,680	1.10%	-14,450	1.90%	-18,807	-2.50%	-17,453	-2.30%
잔존가액	18,383	2.20%	15,227	2.00%	12,878	1.70%	8,244	1.10%
공구외기구	13,721		15,982		17,471	2.40%	17,633	2.30%
(감가상각누계액)	-5,179	0.60%	-7,716	1.00%	-10,002	-1.40%	-11,672	-1.50%
잔존가액	8,542	1.00%	8,266	1.10%	7,469	1.00%	5,961	0.80%
비품	14,341		15,046		9,798	1.30%	10,127	1.30%
(감가상각누계액)	-7,472	0.90%	-9,728	1.30%	-6,533	-0.90%	-7,054	-0.90%
잔존가액	6,869	0.80%	5,317	0.70%	3,265	0.40%	3,073	0.40%
유형자산(계)	163,102	19.40%	120,254	15.90%	105,273	14.30%	84,783	11.10%

엘리베이터를 생산, 판매, 수리보전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O사도 역시 초민족적 자본 U사 산하 기업이다. 유형자산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19.4% → 15.9% → 14.3% → 11.1%). 이는 회사가 국

내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창원공장의 일부 매각의 사례에서 보다 시피 가지고 있던 생산시설을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확보된 자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율배당을 하거나 주식(지분법 적용투자주식) 취득하거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O사는 2009년 잔존 창원공장 전체를 없앤다는 계획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4. 대비되는 초국적자본과 개도국자본

(1) 초국적업체 P와 국내 R사

R사는 1946년 설립되었다. 1998년 IMF로 인한 경영환경악화로 국내 건전지의 대명사로 상징되어온 “R”상표의 상표권 및 국내영업권을 P사에 임대 후 양도하였다. 현재는 P사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보면 에너지이저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브랜드 R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R사에서 P사로 생산 공급하는 브랜드(R, 듀라셀, 썬파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세 브랜드 중에서 듀라셀의 비중은 늘고 있다.

R사는 상표권 및 국내영업권을 매각한 이후 세계적인 초국적 기업 P사의 하청회사로 전락하였으며 R 브랜드 자체도 죽고 있다. P사는 앞으로도 세계적인 브랜드 듀라셀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본다면 P사가 R 상표권을 사들인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에너지이저보다 높았다) R을 죽이고 듀라셀을 키우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R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1-27〉 시장점유율(%)

브랜드명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에너지이저	32.4	34	34.9	36.4	36.6	40.4	43.4
R	33.6	35	33.2	28.3	27.4	22.3	16.7
백셀	13.1	11.6	13.7	16.9	17	17.9	16.9
듀라셀	4.1	4.9	5.8	7.7	7.4	8.3	12.7
기타	8.7	6.6	6.2	6.2	7	6.4	6
썬파워	8.1	7.9	6.2	4.5	4.7	4.8	4.3
R,듀라셀,썬파워 합계	47.8	47.8	45.2	40.5	39.5	35.4	33.7

* 상기 자료는 AC 닐슨 자료를 참조한 것으로서 브랜드별 점유율임. R사 영업보고서에서 재인용하였음.

R사의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영업상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표 1-28〉, 〈그림 1-20〉, 〈그림 1-21〉을 참조하라).

우선 1997년에 이자비용만 117억이 발생했다. 1998년에는 이자비용이 고금리때문에 201억이 발생하였다. 대손상각 22억, 유형자산감액손실 65억, 재고자산 평가손실 약 23억, 재고자산폐기손실 약 17억, 상표권임대수익 약 16억이 발생했다.

1999년에는 이자비용 약 59억, 상표권임대수익 약 48억이 발생했다. 회사는 1998년 6월 1일을 자산재평가 기준일로 하여 유형자산에 대하여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36,459백만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1999년 3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재평가적립금 약 360억원을 이월결손금보전에 충당하였다.

2000년에는 183억의 대손상각, 이자비용 108억, 상표권임대수익 약 48억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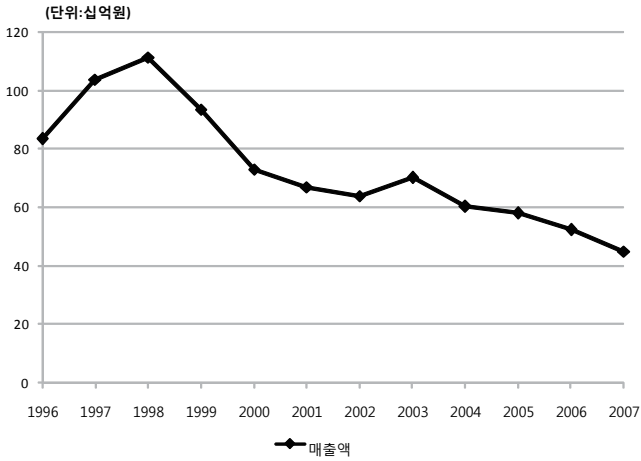
2001년 이자비용 약 83억, 기타의대손상각비 약 103억, 유형자산 처분손실 42억, 상표권매각이익 439억, 상표권임대수익 48억이 발생하였다.

〈표 1-28〉 매출액과 이익지표들의 장기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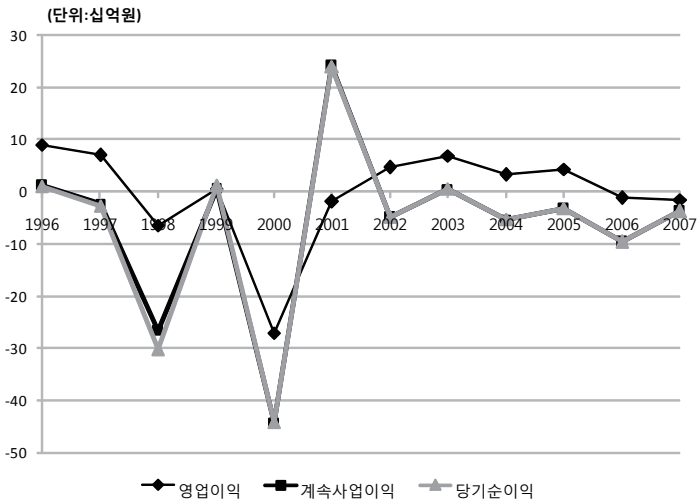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매출액	83,370	103,702	111,260	93,598	72,868	67,026	63,828
영업이익	9,076	7,038	-6,503	582	-27,141	-1,864	4,655
계속사업이익	1,193	-2,192	-26,735	459	-44,195	24,166	-4,826
당기순이익	1,011	-2,720	-30,270	1,355	-44,195	23,964	-4,826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1/2	
매출액	70,181	60,242	58,034	52,231	44,990	21,897	
영업이익	6,927	3,281	4,335	-1,201	-1,510	304	
계속사업이익	633	-5,249	-3,208	-9,620	-3,774	-2,249	
당기순이익	633	-5,249	-3,208	-9,620	-3,774	-2,249	

〈그림 1-20〉 매출액



〈그림 1-21〉 이익지표



반면 초국적업체 P사는 180여개국 이상에서 자신의 제품을 파는 생활용품 초국적 기업인데, 매출액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화장품품 매출증가율은 30%인데 듀라셀이 속해 있는 부문은 5%이다. 배터리 부문과 관련해서는 알카라인배터리 시장의 45%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29〉 P사의 매출액영업이익률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영업이익률	15.5	17.5	18.6	18.3	18.5	19.4	20.2

(2) 초국적업체 U사와 국내 C사

〈표 1-30〉 손익계산서 요약

계정과목	(단위:백만원,%)							
	2-Nov	구성비	3-Nov	구성비	4-Nov	구성비	5-Nov	구성비
상품매출액	30,327	7.90%	44,741	12.90%	69,714	20.70%	72,027	22.20%
제품매출액	297,971	77.80%	254,520	73.20%	256,604	76.30%	241,329	74.50%
기타매출액	54,815	14.30%	48,257	13.90%	10,148	3.00%	10,752	3.30%
매출액	383,112	100.00%	347,518	100.00%	336,465	100.00%	324,108	100.00%
상품매출원가	25,931	6.80%	40,143	11.60%	61,546	18.30%	59,867	18.50%
제품매출원가	238,758	62.30%	214,143	61.60%	242,751	72.10%	223,103	68.80%
기타매출원가	50,721	13.20%	45,097	13.00%	6,709	2.00%	8,001	2.50%
매출원가	315,410	82.30%	299,384	86.10%	311,006	92.40%	290,972	89.80%
매출총이익	67,703	17.70%	48,134	13.90%	25,459	7.60%	33,136	10.20%
급여	8,667	2.30%	9,769	2.80%	9,002	2.70%	8,820	2.70%
퇴직급여	1,345	0.40%	1,147	0.30%	1,283	0.40%	1,963	0.60%
복리후생비	894	0.20%	1,018	0.30%	1,294	0.40%	1,135	0.40%
지급입차료	1,042	0.30%	1,814	0.50%	1,943	0.60%	1,416	0.40%
감가상각비	803	0.20%	433	0.10%	321	0.10%	224	0.10%
광고선전비	1,834	0.50%	350	0.10%	317	0.10%	185	0.10%
운반보관비	5,212	1.40%	5,691	1.60%	6,164	1.80%	4,495	1.40%
판매촉진비	5,218	1.40%	4,265	1.20%	5,738	1.70%	5,089	1.60%
경상연구개발비	7,019	1.80%	7,755	2.20%	7,810	2.30%	7,389	2.30%
A/S료	3,628	0.90%	3,657	1.10%	7,729	2.30%	5,396	1.70%
기술료(특허사용료)		0.00%	419	0.10%	148	0.00%	248	0.10%
판매비와관리비	43,258	11.30%	44,705	12.90%	48,917	14.50%	43,127	13.30%
영업이익	24,445	6.40%	3,429	1.00%	-23,458	-7.00%	-9,991	-3.10%
외환차익	4,955	1.30%	3,232	0.90%	2,784	0.80%	261	0.10%
외화환산(평가)이익	662	0.20%	951	0.30%	675	0.20%	460	0.10%
선물거래(평가)이익	7,583	2.00%	4,933	1.40%	7,281	2.20%	4,642	1.40%
영업외수익	18,824	4.90%	13,550	3.90%	14,152	4.20%	8,458	2.60%
이자비용	464	0.10%	1,164	0.30%	1,459	0.40%	885	0.30%
외환차손	6,348	1.70%	6,676	1.90%	3,013	0.90%	3,886	1.20%
외화환산(평가)손실	613	0.20%	565	0.20%	2,144	0.60%	360	0.10%
선물거래(평가)손실	401	0.10%	1,660	0.50%	1,348	0.40%	966	0.30%
영업외비용	10,595	2.80%	11,758	3.40%	8,447	2.50%	6,440	2.00%
경상이익	32,675	8.50%	5,222	1.50%	-17,754	-5.30%	-7,973	-2.5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675	8.50%	5,222	1.50%	-17,754	-5.30%	-7,973	-2.50%
법인세비용	8,590	2.20%	3,022	0.90%	-5,408	-1.60%	11,573	3.60%
당기순이익	24,085	6.30%	2,200	0.60%	-12,346	-3.70%	-19,546	-6.00%

우선 C사의 손익상황을 보자. 매출액이 세 해 연속 감소하였다. 2003년은 전년에 비해 -9.29%, 2004년은 -3.18%, 2005년은 -3.67%로 매출액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상품매출은 대체로 늘고 있고, 제품매출은 대체로 줄고 있다. 공장은 매출액 감소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매출액의 이런 감소는 문제가 된다. '백년만의 더위'로 에어컨 시장이 2004년 130만대에서 2005년 2백만대로 확대되었고, 에어컨 대당 가격도 <표 6>에서 보듯이 많이 상승하였다(삼성전자 '2005년 사업보고서' 참조). 내수가격은 2004년 20.7%, 2005년 9.6% 증가하였고, 수출가격은 2004년 16.6%, 2005년 30.3% 상승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C사의 매출감소는 문제가 된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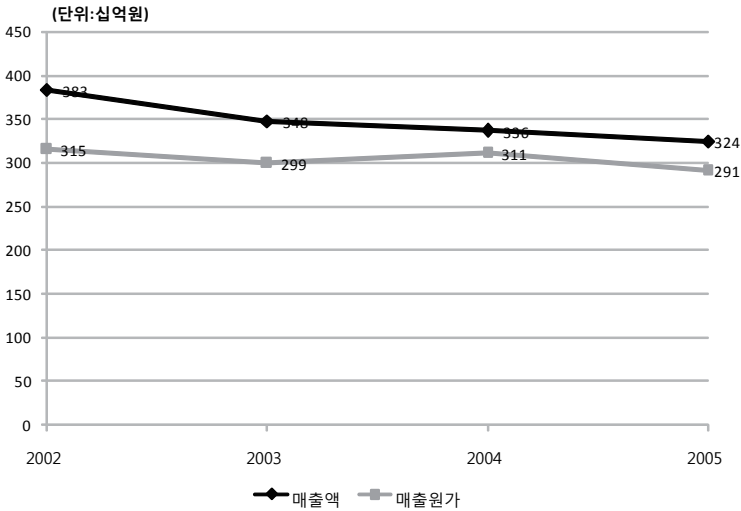
〈표 1-31〉 에어컨 가격 동향

	제 35 기 (03.1.1~03.12.31)	제36 기 (04.1.1~04.12.31)	제37 기 (05.1.1~05.12.31)
내 수 (천원)	647	781	856
증가율 (%)		20.70%	9.60%
수 출 (\$)	314	366	477
증가율 (%)		16.60%	30.30%

매출원가율은 전년보다는 대폭 개선되었다. 상품매출의 마진률도 늘었고 제품매출의 마진률도 늘었다. 그런데 제품매출의 마진률은 2002년 2003년에 비하면 여전히 현저히 낮다.

판매비와 관리비 비중도 전년에 비해 약간 줄어들었다. 매출액영업이익률이 전년에 비해 개선되었다(나쁜 정도가 덜해졌다). 2002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광고선전비는 여전히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급임차료, 운반보관비, A/S료 비중이 낮아졌다.

〈그림 1-22〉 매출액과 매출원가



영업외수익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4년 4.2%에서 2005년 2.6%로 줄어들었고, 영업외비용은 2.5%에서 2.0%로 줄어들어 경상이익률은 조금 더 개선되었다.

회환차익과 외회환산이익이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경상이익 마이너스 규모는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다. 그런데 법인세비용이 많이 발생해 당기순손실 규모가 전년에 비해 더 커졌다.

한편 C사는 특수관계자인 U사 자회사 및 그 계열사로부터 원재료, 부품 및 완제품 등을 매입하고 있으며,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매출만 보면 2004년 약 1,600억원에서 1,000억원대로 감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 볼 일이다. 뒤에 보다시피 U사는 매년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그림 1-24〉, 〈그림 1-25〉, 〈그림 1-26〉을 참조하라). 당장 매출감소는

이례적인데 세계적인 조달(global sourcing)로 인해 한국제품을 덜 팔고 다른 나라 제품을 더 많이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민족적 자본의 세계화는 이런 방식으로 노동에 대한 공격을 강화한다고 하겠다.

〈표 1-32〉 관계회사와의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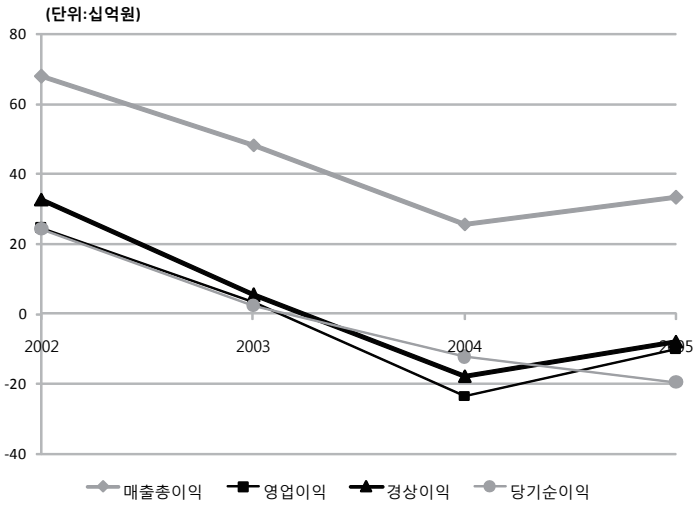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2005	2004
자산	매출채권	17,258,634	33,445,786
	미수금	182,079	37,654
	장기대여금	2,198,552	2,649,160
	합계	19,639,265	36,132,600
부채	매입채무	1,358,608	3,891,923
	미지급금	2,330,531	2,121,032
	합계	3,689,139	6,012,955
손익	매출	102,243,947	163,337,906
	수입입대료	102,853	164,670
	수입수수료	1,277,803	1,036,867
	이자수익	-	21,551
	합계	103,624,603	164,560,994
	매입	14,659,419	17,628,469
	지급입차료	38,897	83,375
	지급수수료	2,001,530	1,732,239
	응역비	282,747	311,471
	합계	16,982,593	19,755,5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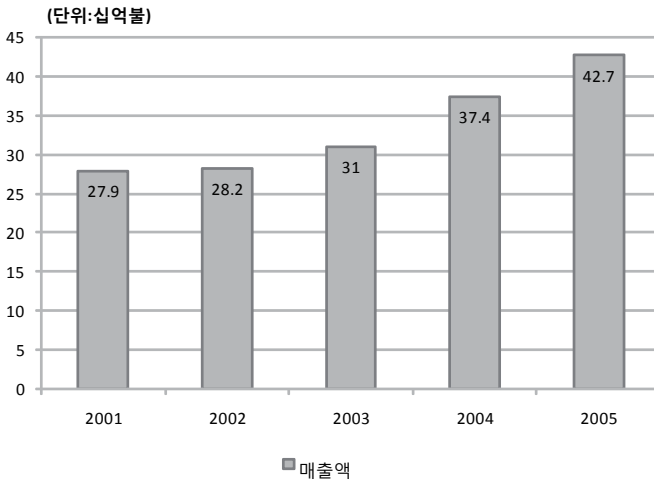
이제 C사의 모회사인 U사의 경영개요를 알아보기로 하자. U사는 업계를 선도하는 사업체들(캐리어, 해밀턴 스탠다드, 오티스, 프랫과휘트니, 시코르스키, U 소방안전, U전력)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빌딩시스템과 항공산업에 하이테크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다.

2005년 U사의 매출은 14%가 증가하여 427억불(약 42조)을 달성하였다. 〈그림 1-23〉, 〈그림 1-24〉, 〈그림 1-25〉에서 보다시피 다른 경영지표도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는 2008년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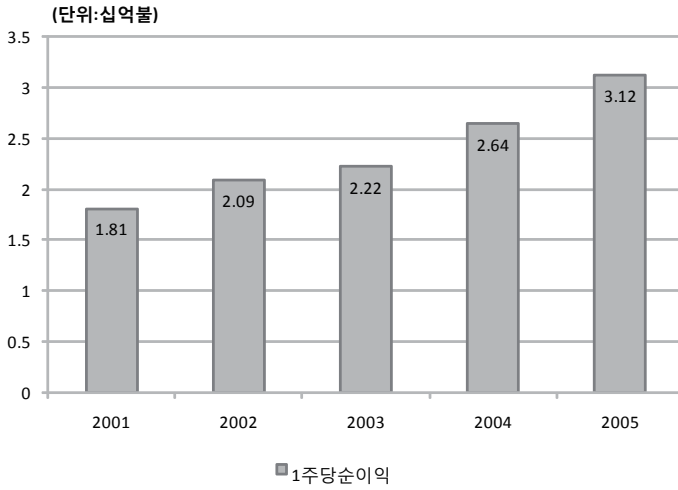
〈그림 1-23〉 이익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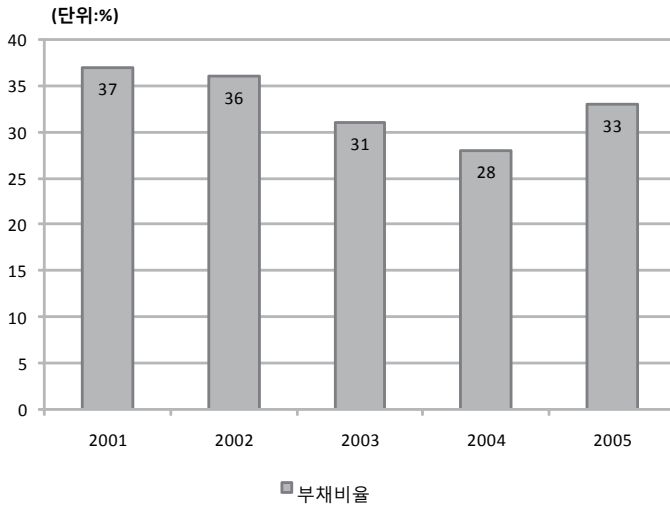
〈그림 1-24〉 U사의 경영지표들: 매출액



〈그림 1-25〉 U사의 경영지표들: 1주당 순이익



〈그림 1-26〉 U사의 경영지표: 부채비율



5. 계열사와의 거래 왜곡

울산 자동차 부품업체 H사 사례를 살펴보자.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총이익은 2006년 -2.1%였다가 2007년 4.2%로 되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다시 -1.8%로 되었다. 그런데 제품총이익이 3/4분기까지 -3.2%였다가 2007년 전체로 4.2%로 바뀐 것은 2007년 4/4분기에 제품원가비중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즉 3/4분기까지는 제품매출원가가 제품매출액의 107.2%였다가 4/4분기에 66.7%로 떨어졌다는 것이다(표 1-33 참조). 이는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변화라 할 수는 없다.

〈표 1-33〉 매출액과 매출원가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6	구성비	2007	구성비	2007.3/4	구성비	2008.3/4	구성비
매출액	517,164	100	551,178	100	412,284	100	378,913	100
제품매출액	254,477	49.2	294,032	53.3	185,252	44.9	189,157	49.9
상품매출액	262,687	50.8	257,146	46.7	227,032	55.1	189,755	50.1
기타매출액	0	0	0	0	0	0	0	0
매출원가	474,271	91.7	522,776	94.8	388,385	94.2	354,860	93.7
제품매출원가	265,517	51.3	271,152	49.2	198,650	48.2	196,044	51.7
기초제품재고액	1,603	0.3	1,019	0.2	1,019	0.2	1,121	0.3
당기제품제조원가	264,933	51.2	271,254	49.2	198,416	48.1	196,253	51.8
기말제품재고액	-1,019	-0.2	-1,121	-0.2	-785	-0.2	-1,330	-0.4
상품매출원가	208,754	40.4	251,624	45.7	189,734	46	158,816	41.9
기초상품재고액	2,652	0.5	1,365	0.2	1,365	0.3	1,563	0.4
당기상품매입액	208,349	40.3	252,193	45.8	191,072	46.3	160,725	42.4
타계정으로대체	-882	-0.2	-371	-0.1	-129	0	-2,247	-0.6
기말상품재고액	-1,365	-0.3	-1,563	-0.3	-2,573	-0.6	-1,225	-0.3
기타매출원가	0	0	0	0	0	0	0	0
매출총이익(손실)	42,893	8.3	28,402	5.2	23,899	5.8	24,053	6.3
제품매출총이익	-11,040	-2.1	22,880	4.2	-13,399	-3.2	-6,886	-1.8
상품매출총이익	53,933	10.4	5,523	1	37,298	9	30,939	8.2

실제 원가가 급격히 하락했거나 3/4분기까지는 지나치게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거나 4/4분기에 제품이 지나치게 높게 판매되었거나 아니면 이들

세 원인 중 2가지 아니면 3가지 원인이 모두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상품매출에서도 나타나는데 상품매출의 경우 원가율이 4/4 분기에 폭등한다(〈표 1-34〉 참조). 이 경우에는 상품매입을 지나치게 높게 했거나 상품판매를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이거나 이 두 요소가 결합되었을 수도 있다.

〈표 1-34〉 2007년 중 제품매출원가율과 상품매출원가율의 변화

(단위: 백만원)

	제품매출액	제품매출원가		상품매출액	상품매출원가
07.1/4-07.3/4	185,252	198,650	07.1/4-07.3/4	227,032	189,734
구성비	100.00%	107.20%	구성비	100.00%	83.60%
07.4/4	108,780	72,502	07.4/4	30,114	61,889
구성비	100.00%	66.70%	구성비	100.00%	205.50%

이런 급격한 변화가 관계사와의 거래에서 가격이 조작된 것이 아닌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관계회사와의 거래규모가 상당하다. 2006년에는 약 1,920억, 2007년에는 약 2,331억에 달했다. ㄱ사에서 23억, ㄴ사에서 265억, ㄷ사에서 389억, ㄹ사에서 145억을 각각 매입하였다. 이들 각각의 거래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6. 양호한 경영 상태에서의 정리해고

(1) C약기 사

C약기 사는 미국의 W사가 49%, 국내 주주가 51%를 출자한 합작 투자법인으로 약기류 제조,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3년 8월 31일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2005년 중 외국인 지분은 국내 주주에게 양도하고 철수하였다. 일단 고정자산 상황을 보기로 하자.

〈표 1-35〉 C약기사의 고정자산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3	구성비	2004	구성비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II. 고정자산	17,543	64.3	12,640	49.3	10,684	64.5	10,674	69.1
(1) 투자자산	8,743	32	4,079	15.9	2,488	15	2,887	18.7
장기금융상품	4,972	18.2	505	2	0	0	0	0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517	9.2	2,443	9.5	2,219	13.4	2,657	17.2
관계회사대여금	946	3.5	825	3.2	0	0	0	0
회원가입권	182	0.7	182	0.7	182	1.1	182	1.2
(2) 유형자산	8,800	32.2	8,524	33.3	8,168	49.3	7,767	50.3
토지	6,402	23.5	6,402	25	6,402	38.7	6,402	41.4
건물	3,381	12.4	3,381	13.2	3,381	20.4	3,381	21.9
감가상각누계액	-1,359	-5	-1,632	-6.4	-1,905	-11.5	-2,178	-14.1
잔존가치	2,023	7.4	1,750	6.8	1,477	8.9	1,204	7.8
기계장치	1,395	5.1	1,334	5.2	1,221	7.4	1,194	7.7
감가상각누계액	-1,094	-4	-1,016	-4	-989	-6	-1,055	-6.8
잔존가치	301	1.1	318	1.2	233	1.4	139	0.9
공기구비품	795	2.9	811	3.2	813	4.9	741	4.8
감가상각누계액	-767	-2.8	-788	-3.1	-800	-4.8	-736	-4.8
잔존가치	28	0.1	23	0.1	12	0.1	5	0
(3) 무형자산		0	36	0.1	28	0.2	20	0.1
자산총계	27,299	100	25,613	100	16,561	100	15,449	100

고정자산이 줄어들고 있다. 주로는 투자자산 중 장기금융상품이 줄어들었다. 2003년 약 50억에서 2004년 약 5억으로 줄어들었다.

유형자산도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데 토지와 건물가액을 제외한 유형고정

자산은 얼마 안된다. 2006년의 경우 잔존가액이 2억도 안된다.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익은 계열사로 집중되고, 그리고 이익 중 배당으로 챙기고 남은 부분은 인도네시아나 중국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 고용불안이 안일어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C사가 땅과 건물만 팔고 인천 [공장 소재지]을 떠날 가능성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어 보인다.

〈표 1-36〉 C 약기사의 부채와 자본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3	구성비	2004	구성비	2005	구성비	2006	구성비
I. 유동부채	1,436	5.3	1,595	6.2	2,378	14.4	1,516	9.8
매입채무	572	2.1	742	2.9	550	3.3	737	4.8
미지급비용	424	1.6	418	1.6	1,084	6.5	378	2.4
임대보증금	260	1	269	1.1	260	1.6	290	1.9
II. 고정부채	2,487	9.1	2,497	9.7	2,085	12.6	2,683	17.4
퇴직급여충당금	4,885	17.9	4,577	17.9	3,856	23.3	4,146	26.8
국민연금전환금	-98	-0.4	-68	-0.3	-43	-0.3	-37	-0.2
퇴직보험예치금	-2,299	-8.4	-2,012	-7.9	-1,729	-10.4	-1,426	-9.2
	2,487	9.1	2,497	9.7	2,085	12.6	2,683	17.4
부채총계	3,924	14.4	4,092	16	4,463	26.9	4,198	27.2
I. 자본금	2,144	7.9	2,144	8.4	1,094	6.6	1,094	7.1
II. 자본잉여금	4,475	16.4	4,475	17.5	4,475	27	4,475	29
재평가적립금	4,328	15.9	4,328	16.9	4,328	26.1	4,328	28
III. 이익잉여금	17,007	62.3	15,742	61.5	16,517	99.7	6,713	43.5
임의적립금	13,530	49.6	12,030	47	12,930	78.4	4,610	29.8
처분전이익잉여금(결손금)	333	1.2	740	2.9	780	4.7	-851	-5.5
IV. 자본조정	-251	-0.9	-839	-3.3	-9,988	-60.3	-1,032	-6.7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	-251	-0.9	-839	-3.3	-1,043	-6.3	-1,032	-6.7
감자차손	0	0	0	0	-8,945	-54		0
자본총계	23,375	85.6	21,521	84	12,098	73.1	11,250	72.8
부채와자본총계	27,299	100	25,613	100	16,561	100	15,449	100

부채와 자본을 보도록 하자. 부채도 얼마 안되고 이자가 나가는 부채는 거의 없다. 자본총계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W사의 철수로 인한 것이다. 자본금이 약 10억 정도 줄었는데 자본금감소의 약 9배인 89억의 감자차손이 발생하고 있다. W사의 지분에 대한 보상가액이라 하겠다. 2006

년에는 감사차손(자본금 감소 과정에서 입은 손실)을 이익잉여금을 통해 보전하였다.

〈표 1-37〉 C 약기사의 손익계산서 요약

(단위: 백만원, %)

과 목	2003년	구성비	2004년	구성비	2005년	구성비	2006년	구성비
I. 매출액	19,143	100	23,245	100	21,373	100	15,633	100
제품매출액	18,018	94.1	20,456	88	18,695	87.5	13,535	86.6
상품매출액	1,124	5.9	2,789	12	2,677	12.5	2,098	13.4
II. 매출원가	17,379	90.8	21,367	91.9	19,177	89.7	15,943	102
(1) 제품매출원가	16,481	86.1	19,046	81.9	16,935	79.2	14,031	89.8
당기제품제조원가	16,706	87.3	19,562	84.2	17,154	80.3	14,844	95
(2) 상품매출원가	898	4.7	2,321	10	2,242	10.5	1,912	12.2
IV. 매출중이익(손실)	1,764	9.2	1,878	8.1	2,196	10.3	-310	-2
V. 판매비와 관리비	2,248	11.7	2,428	10.4	2,081	9.7	1,472	9.4
임원 급료	243	1.3	248	1.1	194	0.9	180	1.2
급료외임금	237	1.2	202	0.9	143	0.7	128	0.8
상 여 금	250	1.3	255	1.1	218	1	85	0.5
퇴 직 급 여	434	2.3	137	0.6	411	1.9	87	0.6
복리후생비	82	0.4	80	0.3	58	0.3	44	0.3
수출수수료	699	3.7	865	3.7	751	3.5	548	3.5
운역수수료	63	0.3	91	0.4	83	0.4	103	0.7
VI. 영업이익(손실)	-484	-2.5	-550	-2.4	115	0.5	-1,782	-11.4
VII. 영업외수익	1,262	6.6	1,670	7.2	1,860	8.7	1,048	6.7
이자수익	841	4.4	800	3.4	974	4.6	120	0.8
수입임대료	232	1.2	284	1.2	328	1.5	353	2.3
지분법이익	114	0.6	515	2.2	391	1.8	427	2.7
VIII. 영업외비용	188	1	328	1.4	547	2.6	125	0.8
IX. 경상이익(손실)	590	3.1	793	3.4	1,428	6.7	-859	-5.5
X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590	3.1	793	3.4	1,428	6.7	-859	-5.5
XIII. 법인세등	265	1.4	56	0.2	653	3.1		0
XIV. 당기순이익(손실)	325	1.7	737	3.2	775	3.6	-859	-5.5

이제 손익계산서를 분석해 보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감소와 이자수익 감소 이외에 별다른 특징을 찾을 수 없다. 이자수익 감소는 각종 금융상품 감소로 인한 것이고 매출 감소는 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매출 감소는 달러가치 하락/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 물량 자체(C 약기를 비롯한 계열사 전체)의 감

소로 인한 측면이 있을 것이고, 원화가치 상승으로 원화로 표시한 매출액이 감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 말고 인도네시아나 대련으로만 물량이 집중된다든가, 혹은 다른 감시자가 없게 되면서 매출누락을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매출이 이렇게 급격히 줄면 당연히 원가는 오르게 되어있다. 고정비는 줄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연히 당기순이익은 적자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지속적인 흑자에 비하면 한 해의 적자는 아무 것도 아니다. 당장 부채도 없지 않은가! 한 해의 적자를 빌미로 정리해고를 한다는 것은 C 악기 경영자가 얼마나 반노동자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2) PH사

〈표 1-38〉과 〈그림 1-26〉은 초민족적 자본 PH사의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년의 영업결과이다. 〈표 1-38〉을 통해 영업결과를 개괄해 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출액은 2001년에 약간 하락하였고, 영업이익은 2001년에 약간, 2005년, 2007년에 약간 하락하였다.

〈표 1-38〉 매출액 및 이익지표(2000-2008)

(단위: 백만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매출액	12,363	12,150	14,460	19,797	26,754	28,258	35,221	37,907	42,096
매출총이익	2,090	2,076	2,676	4,681	6,068	5,336	7,068	7,147	8,823
영업이익	850	658	813	2,340	3,531	1,637	3,181	2,773	3,828
경상이익	648	397	672	2,156	3,132	1,065	2,831	2,378	3,497
당기순이익	548	367	520	1,861	2,721	503	2,459	1,810	2,808

*1 결산월이 2005년까지는 12월이었다가 2006년부터는 6월로 바뀌었다. 그래서 2006년의 영업결과는 6개월 동안의 영업결과에 단순하게 2배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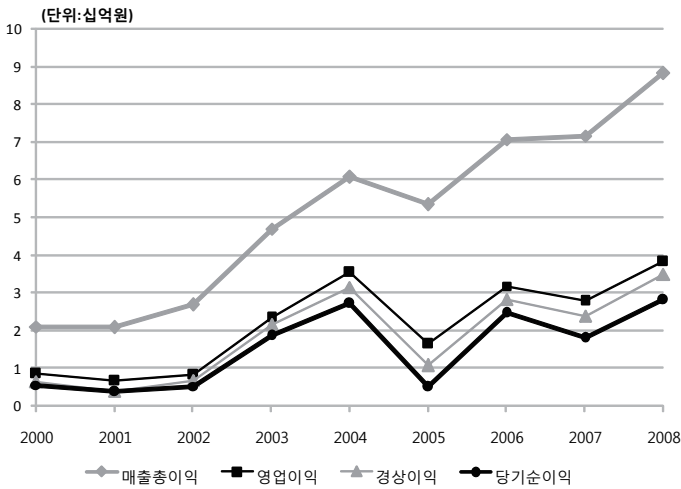
*2 2007년과 2008년의 경상이익 수치는 법인세전순이익이다.

다른 이익지표들도 2001년, 2005년, 2007년에 약간 하락하였으나 다른 해에는 매우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고, 2003년, 2004년, 2006년, 2008년의 성

장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그런데 PH사는 정리해고를 경영악화를 이유로 2009년 197명중 113명의 정리해고를 예고하였다. PH사의 모기업은 동일한 제품을 만드는 또 다른 공장을 독립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PH사의 모기업은 PH사와 이 또 다른 기업에 대해 모두 10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노조활동이 활발해진 PH사에서 정리해고를 단행하여 PH사의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PH사의 모기업이 유사한 두 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으면서 두 회사를 한 회사 안에서의 두 사업부처럼 운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림 1-27〉 이익지표들(2000-2008)



한편 PH사의 모기업은 2006년 순이익 약 6억 7천만 달러, 2007년은 8억 3천만달러, 2008년은 약 9억 5천만달러(약 1조 4천억원)의 어마어마한 순이익을 내고 있는 초국적 업체이다.

정부와 자본은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매우 양호한 경영상태에서도 정리해고를 기도하는 PH사의 사례는 이들의 모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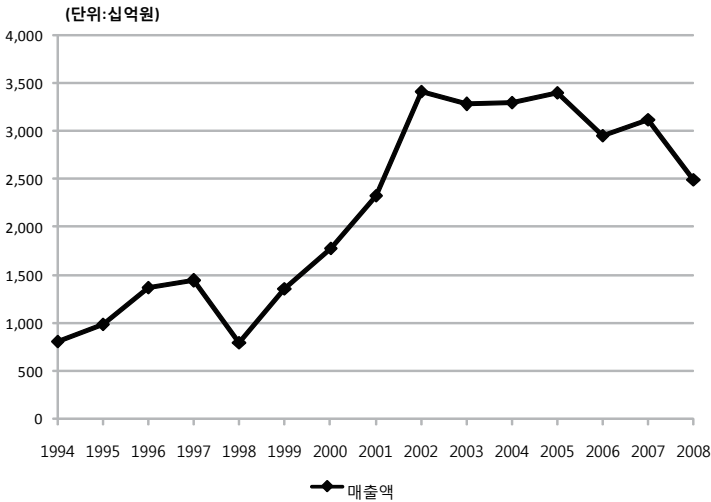
7. 현안 사업장들

S 자동차사를 분석해 보기로 하자.

(1) 손익상황

아이엠에프와 기업매각 전후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S 자동차 사는 매출액이 2002년 이래 다시 줄고 있다. 영업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2008년 경제위기의 여파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더욱 더 현저하다.

〈그림 1-28〉 S 자동차사의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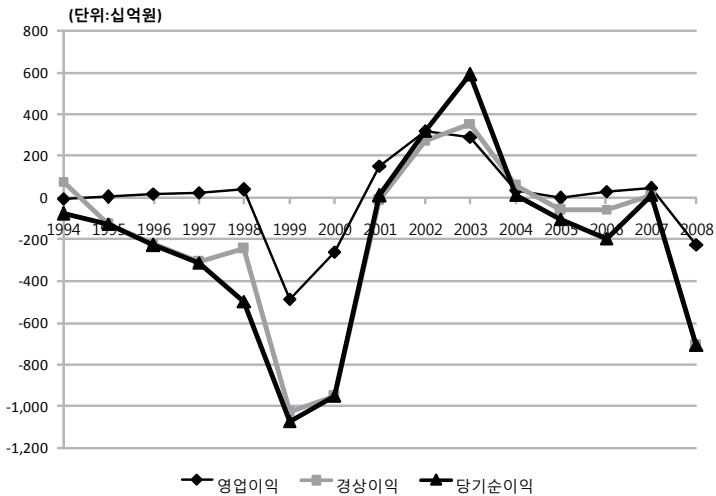


〈표 1-39〉 S 자동차사의 영업 추이

(단위: 백만원)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매출액	805,935	986,748	1,369,400	1,441,578	794,192	1,359,736	1,778,479	2,326,694
영업이익	-4,501	2,217	16,756	24,701	36,873	-489,439	-262,155	152,464
경상이익	77,216	-127,796	-220,019	-311,166	-245,673	-1,030,330	-953,652	-12,112
당기순이익	-79,326	-126,226	-228,487	-313,321	-499,831	-1,074,638	-953,652	9,178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4
매출액	3,417,338	3,281,452	3,297,855	3,403,697	2,951,837	3,119,335	2,495,217	233,749
영업이익	318,366	289,576	31,043	-2,113	27,270	44,086	-227,389	-125,678
경상이익	272,500	355,230	56,180	-59,239	-57,728	11,605	-709,684	-265,639
당기순이익	320,425	589,696	11,389	-103,360	-195,962	11,571	-709,684	-265,639

〈그림 1-29〉 S 자동차사의 이익지표



〈표 1-40〉 S 자동차사의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세부내역

(단위: 천원)

계정과목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손상차손누계액	장부가액	회수가능가액	유형자산손상차손
건물	423,501,869	126,254,909	387,880	296,859,080	94,032,340	202,826,740
건축물	103,124,760	51,204,165	-	51,920,595	14,376,800	37,543,795
기계장치	864,406,493	705,558,368	736,938	158,111,187	53,419,313	104,691,874
차량운반구	11,323,595	7,438,688	82,679	3,802,228	1,445,359	2,356,869
공구와기구	542,737,295	260,344,554	5,029,514	277,363,227	114,447,354	162,915,873
비품	49,653,256	38,625,583	493	11,027,180	3,719,017	7,308,163
건설중인자산	44,180	-	-	44,180	-	44,180
계	1,994,791,448	1,189,426,267	6,237,504	799,127,677	281,440,183	517,687,4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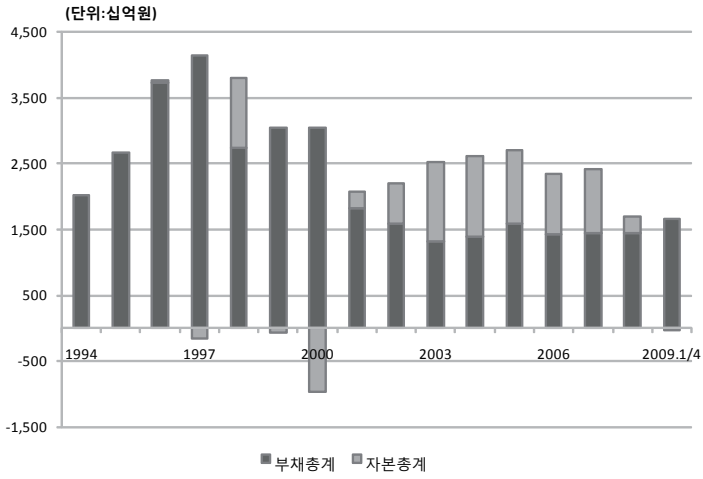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많은 부분 유형자산손상차손에서 연유하였다. 회사가 당기 중 법정관리 신청 등 기업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유형자산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당기 및 전기 중인 식한 유형자산손상차손의 세부내역은 〈표 1-40〉과 같다.

당기순이익 감소에는 다른 많은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외화환산손실의 발생도 영향을 미쳤는데 1,118억 발생하였다.

(2) S 자동차사의 재무구조

97년에는 단기차입금만 1조9천억, 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이었는데 시간이 지나 당해연도에 갚아야 하는 차입금) 등 유동부채(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만 3조 1천억이었다. 대신 유동자산은 약 1조 정도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리해고가 벌어진 2009년의 사정은 2000년보다 좋았다. 물론 이후의 영업상황에 따라서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그림 1-30〉을 참조하라).

〈그림 1-30〉 자본총계와 부채총계



부록 1 각 재무제표 계정과목 분류 및 설명

* 한국은행(2009), 『2008년 기업경영분석』 중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해설' 에서 발췌하였다.

1. 대차대조표 계정 과목

자산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특정실체에 의해 획득되었거나 통제되고 있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현금, 재고자산, 토지 등과 같은 각종 유형의 자산과 매출채권, 대여금, 미수금 등과 같은 채권 및 무형의 권리 등이 포함된다.

자산은 이용가능한 자원의 유동성 정도에 따라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된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이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현금·예금, 상품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자산과 비순환적이지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포함한다. 유동자산은 현금화의 용이성에 따라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된다.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판매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현금화될 수 있는 자산으로 다른 자산의 취득 또는 유동부채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이러한 당좌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미수금 및 기타 당좌자산으로 구분된다.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 당좌예금, 보통

예금 및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당시 만기일(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말한다.

단기투자자산

단기투자자산은 기업이 여유자금 활용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단기투자증권(단기매매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또는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 단기금융상품(금융기관이 취급하는 1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등) 및 단기대여금 등을 말한다.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이 있다. 외상매출금은 상품, 제품, 원료 등 영업의 주거래대상인 물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신용판매하거나 임기공 등 용역제공에 의해 발생하는 영업상의 미수채권을 말한다. 받을어음은 상품 및 제품의 매출에 대한 대가로 받은 타인 발행의 약속어음 또는 타인지급의 환어음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상업어음만 계상되며, 용통어음은 단기대여금으로 계상된다. 또한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한다.

미수금

미수금은 토지 등 비유동자산이나 장단기 투자증권의 처분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취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기타당좌자산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당좌자산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여기에는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급법인세 등이 포함된다. 미수수익은 당기에 속하는 수익중 미수액으로 한다.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여기에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과 선박·건설업의 미완성공사가 포함된다.

상품, 제품 및 반제품

상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등을 말하며 부동산 매매업의 경우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 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시킨다. 제품은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 부산물 및 잔폐물 등으로 한다. 반제품은 이미 상당한 가공을 끝내고 저장 중에 있는 중간제품과 부분품으로 그 자체가 판매 또는 저장가능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재공품과 구별된다.

원재료

원재료란 제품을 생산하는데 소비할 목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재화중 제조과정에 투입되지 아니한 것이다. 여기에는 원료, 재료, 부재료, 매입부분품, 미착원재료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생산에 사용되는 소모품 등은 여기서 제외하여 기타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기타재고자산

기타재고자산은 위의 항목 이외의 재고자산을 합계하여 기재하며 재공품, 저장품 등이 포함된다.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생산과정에 있는 것을 말하고 저장품은 소모품, 소모성 공구기구비품, 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을 말한다.

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판매 또는 소비가 어려운 자산으로 여기에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등이 포함된다.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장기에 걸쳐 이자 및 배당수익을 얻을 목적이거나 다른 기업을 지배·통제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한다. 투자자산에는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투자부동산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이 포함된다.

장기투자증권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장기투자증권으로 분류하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거나 매도 등에 의하여 처분할 것이 거의 확실한 매도가능증권과,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만기보유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는 회사의 주식 가액. 신자유주의에서 실물투자가 줄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등 투자자산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하며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등이 포함된다.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등 비상각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형자산은 사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에 대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배분되며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감액손실누계액이 차감된 순액으로 표시된다.

토지

영업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대지, 임야, 전답, 잡종지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전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는 재고자산이나 투자자산으로 표시한다. 토지의 취득원가에는 구입가액과 취득세, 등기 및 명의 이전비, 토지의 정지비용, 조경비용 등 토지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까지 지출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설비자산

유형자산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와 달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설비자산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 선박·차량운반구 등을 포함한다.

건물·구축물

건물은 기업이 영업목적으로 토지에 건설한 건축물과 그것의 영속적 부속설비로서 건물과 냉난방, 전기, 통신 및 기타의 건물부속설비가 포함된다. 구축물은 토지에 부착된 토목설비 또는 공작물로서 교량, 안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갯도, 굴뚝, 정원설비 등이 포함된다.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일반기계와 「컨베이어」, 「호이스트」, 기중기 등의 운송설비 및 기타의 부착설비 등을 말하는데 취득원가에는 순송장가격에 운임, 운송보험료, 취득세, 설치비용, 시운전비용 등의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기계는 동력을 받아서 외부의 대상물에 작업을 가하는 설비의 단위를 의미하며 장치는 대상물을 내부에 수용하여 이것을 변질, 변형, 분해, 운동시키는 설비의 단위를 말한다.

선박·차량운반구

선박, 차량운반구는 기업소유의 선박 및 기타의 수상운반구와 철도차량, 자동차 및 기타의 육상운반구를 말한다.

기타설비자산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설비자산으로서 공구와 기구, 비품 등이 포함된다.

건설중인 자산

건설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해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이 지출되었으나 건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건설이 완료되어 영업에 사용하게 된 때에는 해당 유형자산계정으로 대체 처리한다. 또한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차입금에서 발생한 순금융비용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한다.

기타유형자산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유형자산으로서 입목 등이 포함된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자산을 말한다. 무형자산에는 산업재산권, 라이선스와 프랜차이즈,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비, 임차권리금, 광업권 및 어업권 등이 포함된다.

개발비

특정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개발을 위한 내부 프로젝트는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되며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이나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중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상개발비·연구비 과목으로 해당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발비가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개발후 완성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나 능력, 미래 경제적 효익 창출력,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의 객관적 측정가능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타비유동자산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부채 및 자본

기업에 투입된 총자본은 그 원천에 따라 타인자본인 부채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진다. 부채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다른 실체에게 미래에 자산이나 용역을 제공해야 하는 특정실체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자본은 주주지분 또는 소유주지분이라고도 하는데 기업의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하고 남은 잔여분을 말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성된다.

유동부채

유동부채는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단기금융기관차입금, 유동성회사채, 기타차입금) 및 미지급금, 기타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외상매입금은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매입과 같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매입에누리 및 환출 등을 차감한 순액으로 기재한다(고정자산인 건물, 기계설비 등의 매입대금의 미지급금은 외상매입이 아니다). 지급어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무로서 상품이나 원재료의 매입대금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타인발행의 환어음을 인수한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자산을 융통하기 위하여 발행한 금융어음은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상업어음만 계상하게 되며 자금조달을 위한 융통어음은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단기금융기관차입금

단기금융기관차입금이란 당좌차월을 비롯하여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은행, 보험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기성 차입금을 말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어음차입금도 이에 포함된다. 이전에 별도 분류해왔던 유동성장기차입금(장기금융기관차입금 또는 기타 장기차입금으로서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차입금)은 2007년부터 단기금융기관차입금에
합산하였다.

유동성회사채

유동성회사채는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회사채를 말한다.

기타단기차입금

기타단기차입금은 금융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으로서 관계
회사 단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고정자산 또는 유가증권의 취득 등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
에서 발생한 채무를 말한다.

기타유동부채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부채로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급
·상환되는 채무로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선수수익, 단기
부채성충당금 및 기타의 유동부채가 포함된다.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대차대조표일의 다음날로부터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
는 부채를 말한다. 여기에는 회사채, 장기차입금(장기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
금), 장기부채성 충당금 및 기타비유동부채 등이 포함된다.

회사채

회사채는 주식회사가 확정채무임을 표시한 증권을 발행하고 계약에 따라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며 만기에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고 차입한 채무를 말한다. 당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에서는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 미상각분을 차감 또는 부가한 순액으로 기재한다.

장기금융기관차입금

상환기일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금융기관차입금을 말한다.

기타장기차입금

기타장기차입금은 회사채 및 장기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한 차입금중 1년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모든 차입금을 말한다. 이 항목에는 관계회사장기차입금, 주주·임원·종업원 장기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부채성충당금

부채성충당금은 1년 이후에 사용되는 충당금으로서 당기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장래에 지출될 것이 확실하고 당기의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에 대해 금액을 추산하여 계상하며 이에 는 퇴직급여충당금, 판매보증충당금, 공사보증충당금 등이 있다.

기타비유동부채

지급기한이 1년 이상인 비유동부채중 위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장기성 매입채무 및 기타의 비유동부채 등을 말한다.

자본

자본이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및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구성된다.

자본금

자본금이란 정관에서 확정된 자본금중 발행이 완료된 주식의 액면가액 총액을 말하며 보통주자본금과 우선주자본금 등으로 분류한다.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와 같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으로 이는 원칙적으로 배당이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된다.

- ① 주식발행초과금: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② 감자차익: 자본감소의 경우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에 요하는 금액과 결손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초과한 때에 그 초과금액
- ③ 기타자본잉여금: 자기주식처분이익 등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이란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며 기업의 손익거래의 결과 나타난 잉여금중 사외유출분을 제외하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① 이익준비금: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
- ② 기타법정적립금: 상법 이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금액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재무구조개선적립금 등
- ③ 임의적립금: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이익 가운데서 기업 내부에 유보시켜 임의로 적립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적립금과 대비됨
- ④ 처분전이익잉여금 또는 처리전결손금

자본조정

자본조정은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지만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에 가감하는 항목으로서 주식할인발행차금, 배당건설이자, 자기주식,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감자차손 등을 포함한다. 항목별로 보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회사가 신주를 액면가 이하로 발행한 때에 그 액면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배당건설이자는 주식회사가 사업의 성질상 설립후 2년 이상 그 영업의 전부를 개시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자본금에 대하여 연 5% 이하로 배당한 이자를 말한다. 자기주식은 기발행 주식중에서 추후에 소각 또는 재발행할 목적으로 발행회사가 매입 또는 증여를 통하여 재취득한 주식을 말한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

포괄손익은 일정기간동안 주주와의 자본거래를 제외한 모든 거래나 사건에서 인식한 자본의 변동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등의 잔액이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손실)은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과의 차이를 계상한다.

2.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

매출액

매출액은 상(제)품의 매출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서 반제품, 부산품, 잔폐물 등을 포함한 총매출액에서 매출환입액, 에누리액 및 매출할인을 공제한 순매출액을 말한다. 상(제)품의 판매수익은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그 대가로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수익과 거래원가 및 비용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용역 수익은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과 진행률, 원가 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매출액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수익의 기본 바탕이다. 간혹 일부회사에서는 매출누락을 통한 재무제표 분식을 하기도 하므로 노동조합에서는 매월 생산량과 출하량, 매출단가 등을 조사하여 매년 말 나오는 감사보고서의 사항과 같은지를 비교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는 매출을 실현하기 위한 생산이나 구매과정에서 발생된 재화와 용역의 소비액 및 기타경비를 말한다. 판매업에 있어서의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과 당기상품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상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되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기초제품재고액과 당기제품제조원가의 합계액에서 기말제품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된다.

매출총손익

매출총손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출총손실로 표시한다.

판매비와 관리비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과 용역의 판매활동 또는 기업의 관리·유지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을 말한다.

급여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급료, 임금 및 상여금과 단기간 고용하는 임시 노동자 및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일용직이나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잡급 및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제급여 및 임원 상여금을 포함한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 매회계연도마다 일정 금액을 비용화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부채성충당금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전입된다.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퇴직급여는 제조원가명세서상의 노무비에 포함된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복리 및 후생을 위하여 사용된 비용으로서 법정 복리시설의 사업주 부담액과 종업원의 위생·보험·오락 등 제 후생비와 현물급여를 말한다.

수도광열비

수도광열비에는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된 수도료, 전기료, 가스비 및 연료비 등이 속한다.

세금과공과

세금은 법인세를 제외한 영업과 관련된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으로서 제조원가와 고정자산의 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제세금이 제외된 것이며 공과란 상공회의소 부과금, 연합회 부과금, 조합 각출금, 회비 등과 같이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로서 제조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임차료

임차료는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된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임차료를 말한다.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판매와 관리부문에서 사용된 고정자산(토지와 건설중인 자산 제외)의 원가를 그 경제적 효익이 발생하는 기간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 것을 말한다.

접대비

접대비, 교제비, 기밀비, 사례금, 기타 명목으로 사용되거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이외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출한 금액이며, 금전을 제공한 경우는 기부금으로 처리하게 된다.

광고선전비

통상적인 영업활동의 수행상 지출된 광고선전비를 말하며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지출한 비용이란 점에서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한 접대비와 구별된다.

경상개발비·연구비

경상개발비·연구비는 특정 신기술연구 또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으로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모든 지출과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기술적 실현가능성, 완성후 판매 또는 사용하려는 기업의 의도 및 능력, 미래의 경제적 효익창출력 등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해당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보험료

보험료는 판매와 관리부문에 사용되는 건물, 건물부속설비, 비품 등에 대한 화재보험료와 그밖의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운반·하역·보관·포장비

운반, 하역, 보관, 포장비는 판매를 위하여 상(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과정이나 자사내에서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와 상(제)품을 양륙·적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하역비, 상(제)품을 창고시설에 보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보관비, 그리고 상(제)품을 포장하는 데 소요되는 포장비를 말한다.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산출한 대손처리액과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을 상각처리한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하고 기타채권에서 발생한 것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무형자산상각비

무형자산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비되기 때문에 상각을 통하여 장부가액을 감소시키게 된다.

개발비상각

무형자산으로서의 개발비에 대한 상각액을 말한다.

지급수수료

무형자산이나 무체 재산권의 사용대가를 지급수수료라 말한다. 따라서 임차료(rent)는 지급수수료가 아니다.

기타판매비와 관리비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이외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는 여비, 교통비, 수선비, 견본비 등을 말한다.

영업손익

영업손익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손익으로서 매출총손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영업외수익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보조활동 또는 부수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상적 수익을 영업외수익이라고 한다. 영업외수익에는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 및 투자자산처분이익, 유형자산처분이익, 지분법평가이익 등이 속한다.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예금이나 대여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배당금수익

배당금수익은 주식, 출자금 등의 장·단기투자자산에 투자한 결과로 받은 배당금을 말한다.

외환차익

외환차익은 회계기간중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이익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다만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 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이익이 있으면 해외사업환산대로 하여 자본의 부가항목으로 기재하고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회계연도에 이익으로 처리한다.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

투자·유형자산처분이익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수취금액이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지분법평가이익

지분법평가이익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

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발생분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이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타영업외수익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영업외수익에는 수입임대료, 사채상환이익, 지분법이익, 잡이익, 특별이익 등이 있다.

영업외비용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영업비용 이외의 비용 또는 손실로서 이자비용,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실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지분법평가손실 등이 해당된다.

이자비용

이자비용은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지출과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 장·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 사채발행차금상각(환입)액,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채무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외화차입금과 관련된 환율변동손익 중 이자비용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금융리스이자비용 등을 포함한다. 이자비용은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본화대상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기에 차입금이 포함될 경우에는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된다.

외환차손

외환차손은 회계기간중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환율변동으로 발생하게 되는 손실을 말한다.

외화환산손실

외화환산손실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를 결산일에 적정 환율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다만 해외지점 또는 해외사업소의 외화 표시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일괄하여 원화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손익을 상계한 후 환산손실이 있으면 해외사업환산차로 하여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하며 관련지점 또는 사업소가 폐쇄되는 회계년도에 손실로 처리한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

투자·유형자산처분손실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 수취금액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한다.

지분법평가손실

지분법평가손실은 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지배·종속회사를 통하여 간접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손실 발생분에 대하여 투자회사의 지분율만큼 손실로 인식하는 금액을 말한다.

매출채권처분손실

매출채권처분손실은 외상매출금을 양도하거나 받을어음을 할인하면서 지불하는 수수료나 할인료로 처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타영업외비용

기타영업외비용은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 이외의 영업외비용으로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기부금, 잡손실, 특별손실 등이 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은 기업의 경상거래, 즉 영업거래와 영업외거래에 의하여 발생된 손익으로 영업손익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기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기에 부담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차기 이후에 발생하는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상계한다.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며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적인 경영성과를 나타낸다.

3. 제조원가 명세서 계정 과목

당기총제조비용

당기중 제품생산에 투입된 총제조비용을 말하며 원가요소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분한다.

재료비

제조기업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구입한 물품비를 재료비 또는 원료비라고 한다. 기초재료 재고액과 당기재료 매입액의 합계액에서 기말재료 재고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재료비를 계산할 때는 재고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재료비를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재료재고를 조작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기말재고를 과대계상하게 되면 재료비가 줄게 되므로 전체 수익이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 반대로 기말재고를 과소계상하면 재료비가 늘어나게 되므로 수익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노무비

제품의 제조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상여금, 잡급과 퇴직급여 등을 말한다.

퇴직급여

제품의 생산, 공장작업 등의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공장종업원이 장래에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매회계연도마다 일정금액을 비용화하는 것으로, 동 금액은 부채성충당금 중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으로 전입된다. 판매와 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직원의 퇴직급여는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에 포함된다.

실제 직원이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부족액을 퇴직급여액으로 전입한다.

경비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지출된 원가요소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복리후생비

제조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복리후생 (의무·위생·보험·오락 등)을 위하여 지출된 제 경비를 말한다.

전력비

제조부문에서 소비된 전력비를 말한다

가스수도비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수도료, 연료비 및 유류비 등을 말한다 다만, 운송업종에 있어서 운송수의 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및 유류비는 업종특성상 재료비로 계상된다.

감가상각비

토지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은 한 번에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가치가 소모되어진다. 이에 투자된 자금을 일시에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명에 따라(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나누어 비용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 및 비품 등 생산에 관련된 유형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명세서에 있다.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은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관리비의 감가상각비로 들어간다.

세금과공과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세금과 공과금을 말한다.

임차료

공장용의 토지, 건물 및 구축물 등을 임차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차료 또는 사용료를 말한다.

보험료

공장의 건물, 기계, 저장품 등의 화재보험료 및 기타 손해보험료를 말한다.

수선비

공장의 건물, 기계장치 및 공·기구 등의 수선을 외부에 의뢰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외주가공비

외주가공비란 하청업자에게 재료를 공급하여 가공을 의뢰한 경우에 발생하는 임가공비용을 말한다.

운반·하역·보관·포장비

제조활동을 위하여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을 운반·하역·보관·포장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경상개발비

경상개발비는 특정 신기술연구 또는 신제품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무형자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제조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말한다.

기타경비

이상에서 열거한 항목을 제외한 경비의 합계액으로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특허권사용료 및 잡비 등을 포함한다.

기초재공품원가

재공품은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한 생산과정에 있는 것으로, 기초재공품원가는 전기에서 이월된 재공품잔액을 말한다.

기말재공품원가

기초재공품원가와 반대로 결산일 현재 생산과정중에 있는 재공품 잔액을 말한다.

타계정대체액

타계정대체액은 자사의 제품을 자가소비하는 경우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차감하여 자산 등 타계정으로 대체하게 되는 제품제조원가를 말한다.

당기제품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중 제품생산을 위하여 소요된 총비용으로서 기초재공품원가에 당기총제조비용을 가산하고 기말재공품원가와 타계정대체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부록 2

비율 설명

* 한국은행(2009), 『2008년 기업경영분석』 중 '계정과목 및 분석지표 해설' 에서 발췌하였다.

1. 성장성에 관한 지표

기업의 자산, 자본 등 경영규모와 기업활동의 성과가 당해년도중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경쟁력이나 미래의 수익창출능력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1) 총자산증가율

기업에 투하된 총자산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text{총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총자산}}{\text{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100$$

2) 유형자산증가율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의 설비투자동향 및 성장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다.

$$\text{유형자산증가율} = \frac{\text{당기말유형자산}}{\text{전기말유형자산}} \times 100 - 100$$

3) 자기자본증가율

내부유보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자기자본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자기자본증가율} = \frac{\text{당기말자기자본}}{\text{전기말자기자본}} \times 100 - 100$$

4) 매출액증가율

전기 매출액에 대한 당기 매출액의 증가율로서 기업의 외형 신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text{매출액증가율} = \frac{\text{당기말 매출액}}{\text{전기말 매출액}} \times 100 - 100$$

2. 손익의 관계 비율

일정기간 동안의 기업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 비율로서 투자된 자본 또는 자산, 매출수준에 상응하여 창출한 이익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자산이용의 효율성, 이익창출능력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영업성과를 요인별로 분석, 검토하기 위한 지표로 이용된다. 수익성분석은 자산이익률, 매출액이익률, 매출액대비원가를 등을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저장(stock)개념의 대차대조표 항목과 유량(flow)개념의 손익계산서 항목을 동시에 고려하는 혼합비율의 경우 대차대조표 항목은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을 평균하여 사용한다.

1) 총자산세전순이익률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총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인세차감 전순이익(이하 세전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측정한다.

$$\text{총자산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한편 이 비율의 변동요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지표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세전순이익/매출액)과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의 곱으로 분해하여 볼 수 있다.

총자산세전순이익률 = 매출액세전순이익률 × 총자산회전율

$$\frac{\text{세전순이익}}{\text{총자산}} = \frac{\text{세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예를 들어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은 높으나 총자산회전율이 낮은 경우에는 판매

마진은 높았으나 기업의 판매활동이 부진하였음을 나타낸다.

2) 총자산순이익률

당기순이익의 총자산에 대한 비율로서 ROA(Return on assets)로 알려져 있다. 기업의 계획과 실적간 차이 분석을 통한 경영활동평가나 경영전략 수립 등에 많이 사용된다.

$$\text{총자산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총자산}} \times 100$$

3) 자기자본순이익률

자기자본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ROE(Return on Equity)로 널리 알려져 있다. 자본조달 특성에 따라 동일한 자산구성 하에서도 서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므로 자본구성과의 관계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text{자기자본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자기자본}} \times 100$$

4) 매출액세전순이익률

기업경영활동 성과를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대표적 지표로서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활동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 경영성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text{매출액세전순이익률} = \frac{\text{세전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5) 매출액순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순이익률} = \frac{\text{당기순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6)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제조 및 판매 활동과 직접 관계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으로 영업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매출액영업이익률} = \frac{\text{영업이익}}{\text{매출액}} \times 100$$

7) 변동비 대 매출액

변동비는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이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은 조업도가 낮거나 설비가 지나치게 많음을 의미하고 반대로 과도하게 높은 것은 고정설비의 부족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은 적정조업도 및 투자설비규모의 판단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일반적으로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은 변동비로 분류된다.

$$\text{변동비 대 매출액}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times 100$$

*) 변동비 = 총비용 - 고정비

8) EBITDA 대 매출액

EBITDA는 이자 및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상각비를 더하여 산출된다. 회계상의 순이익이 금융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 영업외적 요인이나 회계처리방식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해 EBITDA는 이러한 영향이 배제된 경영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 수익성 판단지표로 유용하게 쓰인다.

$$\text{EBITDA 대 매출액} = \frac{\text{세전순이익} + \text{이자비용} + \text{감가상각비} + \text{무형자산상각비}}{\text{매출액}} \times 100$$

9) 감가상각률

비상각자산 즉 토지, 건설중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에 어느정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이 비율이 높으면 유·무형자산에 대한 재투자비용 회수가 빠름을 의미한다.

$$\text{감가상각률} = \frac{\text{감가상각비}}{\text{유형자산} + \text{무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 \text{토지}) + \text{감가상각비}} \times 100$$

10) 금융비용 대 부채

기업의 부채에는 차입금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는 이자부부채와 매입채무, 선수금, 충당금 등과 같이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비이자부부채가 있다. 금융비용 대 부채 비율은 이러한 비이자부부채를 포함한 총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의 비율을 말한다.

$$\text{금융비용 대 부채} = \frac{\text{이자비용}}{\text{부채}} \times 100$$

11) 차입금평균이자율

회사채, 금융기관차입금 등과 같은 이자부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의 비율로서 차입금에 대한 종합적 평균이자율을 의미하며, 이 비율과 다른 수익성 지표를 비교해 봄으로써 타인자본의 운용이 효율적으로 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text{차입금평균이자율} = \frac{\text{이자비용}}{\text{회사채} + \text{장·단기차입금}} \times 100$$

12)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은 이자지급에 필요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이자부담능력을 판단하는데 유용한 지표이다.

$$\text{이자보상비율} = \frac{\text{영업이익}}{\text{이자비용}} \times 100$$

13) 손익분기점률

손익분기점이란 일정기간의 매출액과 총영업비용이 일치하여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점으로 매출량 또는 매출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손익분기점에 미달할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한다. 손익분기점률이란 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과 실현된 매출액과의 비율이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영업활동의 채산성이 양호함을 의미하며 높을수록 채산성이 좋지 않음을 나타낸다.

손익분기점분석이란 비용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분류하여 조업도 변동에 따른 기업의 수익, 비용 및 이익의 상호변동관계를 분석하고 이로부터 매출 및 이익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다만 기업경영분석에서의 손익분기점분석은 세전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text{손익분기점률} = \frac{\text{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text{매출액}} \times 100$$

$$\text{손익분기점에서의 매출액} = \frac{\text{고정비} - \text{영업외수익}}{1 - \frac{\text{변동비}}{\text{매출액}}} \times 100$$

14) 사내유보율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중 사내유보분의 비중을 표시하는 비율로 당기에 거둔 경영성과중에서 사내유보된 비율을 나타내는「플로우(flow)」개념이다.

$$\text{사내유보율} = \frac{\text{사내유보}^*)}{\text{처분전이익잉여금} + \text{임의적 적립금이입액}} \times 100$$

* 사내유보 = 당기에 처분된 이익준비금 + 기타법정적립금 + 임의적립금
+ 기타이익잉여금처분액 + 차기이월이익잉여금

15) 배당률과 배당성향

배당률은 주식발행총액(납입자본금)에 대한 배당금지급액의 비율로서 투자자에 대한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자자에게는 수익률에 해당하는 것이 되므로 투자결정에 중요한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

$$\text{* 배당률} = \frac{\text{배당금}}{\text{자본금}} \times 100$$

배당성향은 기업이 당기순이익중 어느정도를 배당금으로 지급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외배당률(payout ratio)이라고도 한다. 기업의 배당률만으로는 배당지급능력의 대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률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3. 자산·부채·자본의 관계 비율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관계비율은 대차대조표 각 항목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정태비율로서 단기채무 지불능력인 유동성과 경기대응 능력인 안정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1)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비율은 총자본중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재무구조 지표이다. 자기자본은 금융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기업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이므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안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text{자기자본비율} = \frac{\text{자기자본}}{\text{총자본}} \times 100$$

2)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 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 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text{유동비율} = \frac{\text{유동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3) 당좌비율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서 유동자산중 현금화되는 속도가 늦고 현금화의 불확실성이 높은 재고자산 등을 제외시킨 당좌자산을 유동부채에 대응시킴으로써 단기채무에 대한 기업의 지급능력을 파악하는데 사용된다.

산성시험비율 또는 신속비율이라고도 하는 이 비율은 기업의 유동성분석을 위한 보조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text{당좌비율} = \frac{\text{당좌자산}}{\text{유동부채}} \times 100$$

4) 부채비율

부채비율은 타인자본과 자기자본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안정성 지표로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구조가 건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채비율은 자기자본비율과 역(逆)의 관계에 있어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부채비율은 낮아지게 된다. 타인자본은 차입금, 회사채, 매입채무, 미지급금, 부채성충당금 등의 부채를 말하며 1년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 1년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부채는 비유동부채이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단기 채무 상환의 압박을 받지 않고 투자수익률이 이자율을 상회하는 한 타인자본을 계속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채권회수의 안전성을 중시하는 채권자는 부정적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기업의 부채비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추가로 부채를 조달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도한 이자비용의 지급으로 수익성도 악화되어 지급불능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text{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 + \text{비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5) 유동부채비율

자기자본에 대한 유동부채의 비율로서 자본구성의 안정성을 측정하는 보조지표이다. 이 비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자본구성의 안정성은 물론 재무유동성도 불안정한 상태로 있음을 의미한다.

$$\text{유동부채비율} = \frac{\text{유동부채}}{\text{자기자본}} \times 100$$

6) 차입금의존도

총자본중 외부에서 조달한 차입금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차입금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금융비용부담이 가중되어 수익성이 저하되고 안정성도 낮아지게 된다.

$$\text{차입금의존도} = \frac{\text{장·단기차입금} + \text{회사채}}{\text{총자본}} \times 100$$

4. 자산·부채·자본의 회전률

자산·부채·자본의 회전율은 기업에 투하된 자본이 기간 중 얼마나 활발하게 운용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활동성분석이라고도 한다. 기업은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투입된 자본을 끊임없이 회전시키는데 이에 따른 성과는 매출액으로 대표될 수 있다. 따라서 회전율을 측정하는 기본항목은 매출액이며, 기업의 활동성은 매출액과 각 자산·부채·자본 항목에 대한 회전배수로 측정된다.

1) 총자산회전율

총자산이 1년 동안 몇 번 회전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기업에 투하한 총자산의 운용효율을 총괄적으로 표시하는 지표이다.

$$\text{총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총자산}}$$

2) 유형자산회전율

유형자산의 이용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자산의 적정여부를 판단하는데 유용하다. 이 비율이 높으면 비유동자산의 유지를 위하여 지출되는 상각비, 보험료, 수선비 등의 고정비가 제품단위당 체감적으로 배분되어 원가절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영업 규모에 비해 설비투자가 부진한 경우에도 이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text{유형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유형자산}}$$

3) 재고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은 매출액을 재고자산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고자산의 회전속도, 즉 재고자산이 현금 등 당좌자산으로 변화하는 속도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상품의 재고손실방지 및 보험료, 보관료의 절약 등 재고자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재고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적정수준 이하로 유지하여 수요변동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날 수가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재료의 가격이 상승추세에 있는 기업이나 재고자산의 보유수준이 크게 높아지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주로 후입선출법에 의해 재고자산을 평가함으로써 재고자산회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에 대한 상대적인 차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재고자산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었는지, 생산기간이 단축되어 재공품이 감소하였는지, 기업의 재고보유 방침이 바뀌었는지, 또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다르게 채택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text{재고자산회전율} = \frac{\text{매출액}}{\text{재고자산}}$$

5. 생산성에 관한 지표

기업활동의 성과 및 효율을 측정하고 개별 생산요소의 기여도 및 성과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지표이다. 그러므로 생산성에 관한 지표는 경영 합리화의 척도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성 향상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분배기준이 된다. 근래에는 기업경영의 성과를 부가가치 생산성이란 개념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노동장비율

생산과정에서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노동장비를 이용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text{노동장비율} = \frac{\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text{종업원수}}$$

2) 자본집약도

종업원 한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본액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노동장비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text{자본집약도} = \frac{\text{총자본}}{\text{종업원수}}$$

3)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

종업원 한 사람이 창출한 부가가치를 산출한 지표로서 부가가치기준에 의한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을 말하며 임금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노동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보유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활동은 크게 노동과 자본의 결합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그 성과도 노동요인과 자본요인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동생산성만을 기준으로 생산성을 평가할 수는 없으며 자본 생산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text{종업원1인당부가가치} = \frac{\text{부가가치}}{\text{종업원수}}$$

4) 총자본투자효율

총자본투자효율은 기업에 투자된 총자본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산출하였는가를 나타내는 비율로서 자본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이 비율이 높으면 총자본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었음을 의미한다.

$$\text{총자본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총자본}} \times 100$$

5) 설비투자효율

설비투자효율을 기업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설비자산(유형자산-건설중인 자산)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생산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자본 투자효율의 보조지표로 이용된다. 또한「설비투자효율×노동장비율 =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로 표시되므로 노동생산성의 변동요인 분석에도 이용된다.

$$\text{설비투자효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유형자산} - \text{건설중인 자산}} \times 100$$

6)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같은 기간중의 산출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산출액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므로 소득률이라고도 한다. 부가가치액은 산출액에서

다른 기업이 생산한 중간투입물인 재료비 등을 차감한 것이므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높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이 높다는 것은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분배되는 몫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text{부가가치율} = \frac{\text{부가가치}}{\text{산출액}^*)} \times 100$$

*) 산출액 = 매출액 + 제품재고증감**) - 외주가공비

**) 제조비용 - 매출원가

7) 노동소득분배율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창출한 요소비용부가가치 중에서 노동력을 제공한 근로자에게 분배된 몫의 비중을 나타낸다.

$$\text{노동소득분배율} = \frac{\text{인건비}}{\text{요소비용부가가치}^*)} \times 100$$

*) 요소비용 부가가치 = 영업잉여 + 금융비용 + 인건비

6. 부가가치의 구성

부가가치(value added)는 회사의 이익을 주주에게 귀속되는 순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이해관계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측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부가가치는 창출 측면과 분배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데 기업경영분석 통계는 분배측면에서 접근하여 영업잉여(영업손익 + 대손상각비 - 금융비용), 인건비, 금융비용, 조세공과, 감가상각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에 나타난 해당항목들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1) 영업잉여

영업손익에 대손상각비를 가산하고 금융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2)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중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과 제조원가명세서중 노무비, 복리후생비 항목의 합계액을 인건비로 한다.

3) 금융비용

차입금이나 회사채발행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이자비용을 말한다

4) 조세공과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제세금과 공과를 말한다.

5) 감가상각비

판매관리부문과 제조부문에서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알기쉬운
경제·노동지표

알기쉬운
경제·노동지표

“경제지표로 세계경제위기 이해하기”

#1 1원 vs 1,620,000,000,000원

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당시 정부는 쌍용자동차에 단 1원의 지원도 없었으며, 법정관리인을 통해 노동조합의 점거 파업을 중단시키고, 정리해고를 관철시킬 것만을 주문하였다. 그런데 쌍용차 점거 파업이 끝나고 한 달 뒤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 투기로 1조 6,200억 원의 손실을 기록하자, 정부는 1조 3천억 원을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즉각 투입하였다. 20여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고, 노동조합이 목숨을 걸고 도장 공장에서 점거 파업을 벌려도 1원 지원도 없었던 정부가 우리은행에는 아무 조건도 없이 덱석 2조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공적자금의 비밀, 제조업과 금융의 사이에 얽혀있는 복잡한 이야기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2 자동차와 부동산

20세기 미국 자본주의를 대표했던 지엠(GM)이 파산하여 정부 구제금융을 받았다. 80여 년간 자동차 판매 세계 1위였으며, 현재와 같은 초민족적기업의 모태를 가장 먼저 만들어 낸 지엠의 파산은 그 자체로 20세기 자본주의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일부 보수언론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강한 노조와 고임금 노동자 때문에 지엠이 망한 것일까? 만약 보수언론들의 주장처럼 노동조합 때문에 지엠이 망한 것이라면, 이는 20세기 초 공산주의 혁명에 비견될 만한 일일 것이다. 20세기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기업을 노동조합이 무너뜨렸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엠이 망한 배경에는 신기하게도 미국 부동산 시장과 미국-중국의 달려 거러가 있었다.

#3 노동자의 양보

2008년 하반기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에 기업들의 위기 대응이 용이하지 않라며,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리고 2009년 8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역시 기업들이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해지를 선택할 것이라며 비정규직보호법의 유예를 주장하며, 비정규직의 양보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작 2009년 초부터 재벌 기업들은 '어닝 서프라이'라 불리는 큰 수익을 올렸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부터 세계 최고 수준의 노동 유연화를 달성한 한국 사회에서 경제 위기는 노동자들의 고용,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 그 스스로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를 분석해보며, 경제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에 대해 알아본다. 경제를 측정하는 여러 지표들을 이해하면 현재 세계 경제와한국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대략 파악해 볼 수 있다. 노동자의 눈으로 이러한 경제 지표들을 이해한다면, 정부와 자본이 각종 숫자들을 동원하여 하는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2부를 모두 읽고 나면 앞의 세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을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다.

I

세계 경제 회복 논쟁

경제성장률의 뒤편에 있는 진실

초 근경제 회복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언론들의 보도처럼, 2008년 초국적 투자 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세계 경제 위기가 1년 여 만에 끝나고, 이제 세계 경제는 회복되어 가는 것일까?

2009년 8월 현재, 이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첫 번째 전망은 정부와 금융 기관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계 경제가 1년 동안 추락한 속도만큼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속칭 'V' 회복론이라고도 한다. 이 입장은 시장의 자기 정정 능력을 확신하는 입장으로, 70년대 후반 오일 쇼크 이후 1982년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도, 2001년 정보통신산업 거품 붕괴로 인한 경제 침체기에도 모두 1년 안에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전망은 진지한 경제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재의 회복은 일시적인 반등 현상일 뿐이며 세계 경제가 실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80년대 이후 금융 시장 중심으로 발전해 온 세계 경제의 시스템이 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경우 'U' 회복 혹은 'W' 회복을 이야기한다. 'U' 회복론은 1~2년간의 저성장 후 회복한다는 의미이며, 'W' 회복론은 잠깐의 반등 이후 2차 경제 위기가 발발하고 나서야 회복한다는 의미이다.

마지막 전망은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위기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의 문제이므로, 잠깐이 경기 반등은 있을 수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발전 법칙의 근간이라고 할 이윤율이 70년대 이후 장기적 추세로 하락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20세기 초와 같은 기술적 경영적 대규모 혁신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추세의 반등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경제 조기 회복을 주장하는 첫 번째 입장이 내세우는 주요 근거는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경제 지표인 '경제성장률'이다. 2008년 4분기 -3.4%를 시작으로 2009년 1분기 -4.2%까지 하락한 경제성장률은 2009년 2분기 -2.2%로 하락 폭이 다소 완화되었다.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 하락 속도가 줄어들었으며, 세계통화기금(IMF)은 2009년 전 세계 국내총생산이 1.3% 감소했지만 2010년에는 2.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전망은 '경제 성장률' 수치 회복만으로 경제 위기 종식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경제 성장률 지표 회복은 오히려 현재 경제의 진짜 곪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번 장에서는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측정되고,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경제 성장률의 의미를 알고 나면 과연 세계 경제가 진짜 회복되고 있는지 부족하게나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경제성장률

경제 성장률은 한 국가 혹은 세계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제성장률은 보통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감율을 의미하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이 무엇인지 알아야하고, 다음으로 '실질'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해야 한다.

● 국내총생산(GDP)

먼저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로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이다. 여기서 재화란 쌀, 의복, 자동차 등의 물질적 형태를 가진 것이며, 서비스는 운송, 숙박, 의료, 교육 등과 같이 형태가 없는 사람의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새로이 생산한 가치”라는 규정이다. 흔히 부가가치라고도 한다. 아래 예를 보도록 하자. 철강 회사와 자동차 회사만 있는 경제를 가정한다. 철강회사에서는 오직 노동자의 노동력만을 통해서 철을 생산한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는 철과 노동력을 통해서만 자동차를 만들어 낸다.

〈표 2-1〉 철강 회사와 자동차 회사만 존재하는 가상 경제에서의 총생산					
철강회사 (단위 만원)			자동차 회사 (단위 만원)		
판매수입		₩100	판매수입		₩200
비용		₩80	비용		₩170
임금	₩80		임금	₩70	
			철강구매	₩100	
이익		₩20	이익		₩30

위와 같은 경제에서 국내총생산은 얼마일까? 철강회사는 어떠한 원재료 없이 노동을 통해서만 생산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판매수입과 같은 100만

원이다. 자동차 회사의 경우 200만원의 판매수입을 올렸지만, 이 중 100만원은 원재료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는 100만원이다. 따라서 위 국민경제에서의 총생산은 100+100=200만원이다. 위의 예에서도 직감했겠지만 보통 총생산은 최종 소비되는 상품의 판매 수입과 같다.

이러한 국내총생산은 한국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 조사된다. 하나는 생산 측면에서, 다른 하나는 지출 측면에서 조사되는데, 정의 상 양자는 같다. 왜냐 하면 생산된 상품을 노동자나 자본가가 자신들의 임금이나 이윤을 지출하여 소비할 것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생활에 필요한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여 소비할 것이고, 자본가는 이윤 중 일부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 소비하고, 또 일부는 기업 투자를 위해 설비 구매에 지출할 것이다. 정부 역시 세금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 자본가의 이윤 중 일부를 거두어 지출한다. 흔히 거시 경제학 등에서는 소비 측면에서의 국내총생산을 더 즐겨 이용하기도 한다. 지출 측면에서의 국내총생산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text{국내총생산}(Y) = \text{민간소비}(C) + \text{투자}(I) + \text{정부지출}(G) + \text{수출}(X) - \text{수입}(IM)$$

여기서 주의할 점은 국내총생산에는 수출이 더해지고 수입이 공제(빼기)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만들어 진 생산물을 국내의 노동자, 기업, 정부가 소비하고, 외국인도 소비한다. 우리가 만든 생산물을 외국인이 소비하는 것이 수출이다. 반대로 우리 역시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국내에서 소비하기도 한다. 이 때 이 외국 상품의 소비에 지출된 만큼 국내에서 만든 상품의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를 해준다.

〈표 2-2〉 한국의 국내총생산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단위: 십억원)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단위: 십억원)		
	2007	2008		2007	2008
농림어업	27,294	28,787	(공제)재화와서비스의 수입	393,207	407,587
광업	1,910	1,935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	426,071	450,499
제조업	247,408	255,019	투자	277,729	279,956
전기, 가스, 수도사업	19,026	19,997	정부소비지출	134,807	140,488
건설업	62,135	60,660	민간소비지출	512,095	516,808
서비스업	502,050	514,718	통계상불일치	91	-453
총부가가치(기초가격)	859,518	880,513			
순생산물세	96,992	97,298			
국내총생산(시장가격)	956,515	977,787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956,515	977,787

위 표는 한국은행에서 국내총생산을 생산과 소비 측면에서 조사한 것이다. 참고로 생산측면에서 조사할 때는 업종 별로 조사한다. 국내총생산의 소비(지출) 항목에는 통계상불일치라는 항목도 보이는데, 이는 현실 조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차로 인해 생긴 생산과 지출의 차이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다.

2008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약 978조원이다. 생산측면에서 보면 제조업의 경우 총생산에서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53%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측면에서 보면 수출이 46%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경제 통계에서 나오는 서비스업은 제조업, 건설업, 광업, 농업을 뺀 나머지 모든 업종을 지칭한다.

● 실질국내총생산

앞에서 살펴본 국내총생산을 흔히 명목국내총생산이라고 한다. 명목 국내총생산은 최종 상품의 판매수입이다. 하지만 문제는 상품의 가격이 매년 변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7년에 브라보콘은 500원이었지만, 현재는 1,500원의

로 세 배 상승했는데, 만약 브라보콘 10개를 노동력만을 통해 생산하는 경제를 가정해보면, 총생산은 아무런 생산증가 없이 1997년 5천원에서 2008년에 1만 5천원으로 상승한 꼴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 결과를 경제성장이 300% 이루어졌다고 말해도 될까? 물론 아닐 것이다. 실제 위의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변화가 없다.

이러한 가격 변화, 즉 물가변화를 감안하여 명목 국내총생산을 조정해 준 것이 실질 총생산이다. 보통 '실질' 이라는 말이 붙는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물가에 따라 조정된 숫자라는 의미이며, 실제로 구매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참고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얻어지는 값을 GDP 디플레이터라고 부른다. GDP 디플레이터에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등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가지수가 반영되어 있는 일종의 종합물가지수이다.

●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은 실질국내총생산의 증감율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실질국내총생산이 작년에 비해 2% 줄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가 된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교 시점이 무엇이나이다. 연간 변화율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보통 국내총생산은 분기별로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를 이전 분기와 비교할지 아니면 전년의 같은 분기와 비교할지가 문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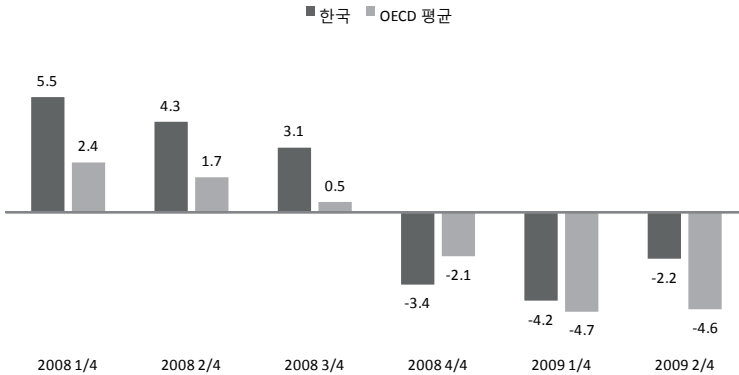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0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2.2%라고 할 때는 전년동기 대비, 즉 2008년 2분기와 비교한 것이다. 하지만 200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2.6%라고 할 때는 전기 대비, 즉 2009년 1분기와 비교한 것이다. 2008년 2분기에는 아직 한국에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를 작년 2분기와 비교하면 매우 크게 하락하게 된다. 반대로 2008년 4분기에 경제위

기가 본격화되어 생산량이 크게 하락하였고 2009년 1분기에도 별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생산량이 회복한 2009년 2분기를 1분기와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은 상승하게 된다.

보통 미국은 전기 대비를 많이 사용하고, 한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를 많이 사용한다. 참고로 전기대비를 표시할 때는 연율로 환산하는 경우가 많은 것에 주의해야 한다. 연율은 해당 분기가 계속 1년간 이어질 경우 (네 분기 연속) 연 경제성장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08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5.1% 하락했다고 하면, 연율로는 약 20% 하락한 것이 되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기 대비 시 연율을 사용한다. 다른 나라와의 비교 시에 주의할 점이다.

●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그림 2-1〉 한국과 OECD 평균 경제성장률 비교



*자료: OECD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4분기부터 세계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

로 시작되었다. 30여개 경제 선진국으로 구성된 세계경제협력기구(OECD)는 2008년 4분기 실질국내총생산이 전년 동기보다 평균 2.1% 하락하였고, 2009년 2분기까지 큰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은 2008년 4분기 -3.4%, 2009년 1분기 -4.2% 하락하면서, 반년 간 아이슬란드 등 국가부도 사태에 내몰린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하락을 겪었다. 2009년 2분기에는 실질국내총생산 하락이 -2.2%로 줄어들며 세계경제협력기구 평균 -4.6% 보다 다소 나아졌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2009년 2분기 경제 하락 속도가 1분기보다 나아졌다고 평가하며,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 국면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 정부는 2분기 경제 하락 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을 바탕으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자신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일까? 다음 장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2. 최근 경제 회복의 키워드_정부 지출과 자산 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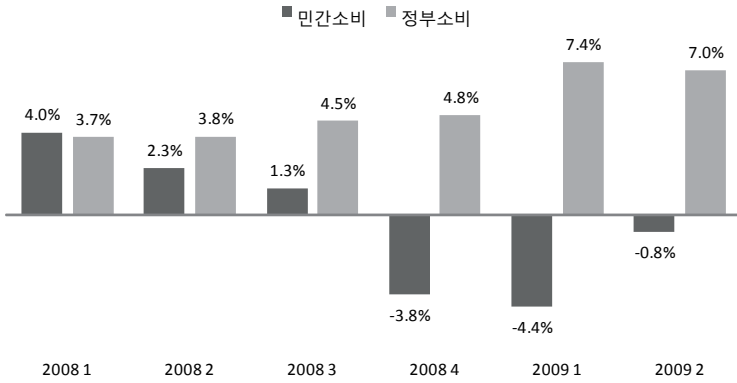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은 상품의 생산을 의미한다. 판매되지 않는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경제의 한 측면을 파악할 수 있다. 국민총생산에서 보면 소비(지출)는 크게 민간소비와 정부소비로 나뉜다. 민간소비는 노동자, 자본가 등이 지출하는 것이며, 정부소비는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 지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보면 2008년 현재, 민간소비지출이 516조, 정부소비지출이 140조 정도 된다.

● 정부 지출

한편,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정부 소비가 경제 성장을 떠받치는 특징이 나타난다.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에서 경제위기가 본격화된 2008년 4분기 민간소비는 3.8% 줄었지만, 정부소비(정부의 재정지출)는 4.8% 늘어났고, 2009년 1분기 2분기 모두 7%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민간소비는 2009년 1분기 -4.4%에서 -0.8%로 하락 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예년에 비해 줄어든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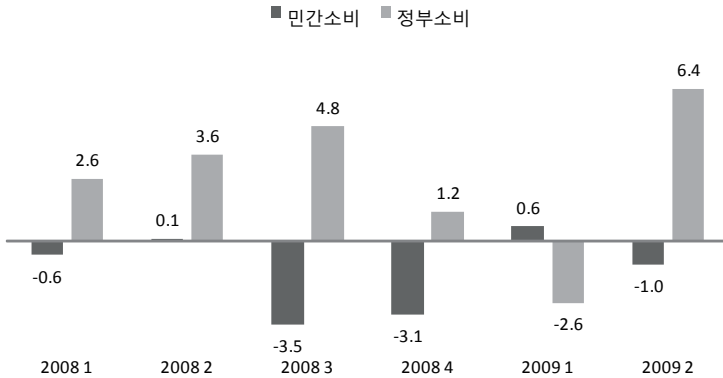
미국의 경우 이러한 정부에 의한 소비 증가가 좀 더 크게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미국 국내총생산에서 민간과 정부의 소비 증감율을 전기대비 연율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민간소비는 2008년 1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최대 -3.5%까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정부소비는 200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2~5%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전기 대비 연율 환산이라는 것을 주의하길 바란다(앞의 '경제성장률' 부분을 참조).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같이 전기대비 연율 환산으로 다시 계산해보면, 2008년 4분기 민간 소비는 17%가 줄었고, 2009년 1분기 정부 지출은 15%가 증가하였다.

〈그림2-2〉 경제 위기 시기 민간과 정부 소비 비교 - 한국



*자료: 한국은행

〈그림 2-3〉 경제 위기 시기 민간과 정부 소비 비교 -미국



*자료: 미국경제통계국

미국정부의 경우 약 3조 달러(약 3600조 원)에 달하는 정부지출을 진행하고 있다. 약 1조 달러는 사회보장망 및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금융 기관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사용된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돈을 헬기에서 뿌려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로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이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최대의 자동차 회사 지엠(GM), 세계 최대의 보험 회사 에이아이지(AIG), 세계 최대의 모기지 업체들(페니메이, 프레디맥 등), 세계 최대 은행들(씨티 은행 등)이 모두 정부 소유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 역시 2012년까지 4조 위안(약 2,900조 원) 규모의 정부 지출을 진행 중이며, 유럽 역시 약 4천억 유로(약 600조 원) 규모의 정부지출을 진행 중이다.

이제 앞의 제조업 생산 수준이 2009년 초에 들어 상승한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제조업 생산 상승은 위기가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정부들이 돈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 자산 거품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민간 소비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소비가 경제 위기 이전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다. 흔히 자산 거품이라고 부르는 현상이다. 미국의 예를 보자.

미국의 많은 시민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여러 모기지 업체가 제공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경쟁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로 인해 주택 구매자들이 부에 넘치는 소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1부에서 배운 대차대조표를 응용해보자. 미국 시민 A는 모기지 업체 F로부터 주택담보대출 10만 달러를 받아 자신의 저축 5만 달러와 합쳐 뉴욕에 15만 달러 집을 구매했다. 이 경우 자산 항목에 부동산 15만 달러가 기재되고, 부채에 10만 달러, 자본에 5만 달러가 기재된다. 그런데 집 값이 폭등하여 1년 후 20만 달러가 되었다 하자. 1년 후 자산을 재평가했다고 가정하면 A의 자산이 20만 달러로 늘고, 부채는 그

대로인 반면 자본은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황재한 것이다. 물론 부채를 모두 갚는 순간까지 이 자산이 온전하게 A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가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5년 이상 상승할 것이고, 지금보다 두 배는 더 오를 것이라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A의 자산은 5년 후에는 40만 달러가 되어 굳이 부채 상환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 집을 매각하면 부채 10만 달러를 갚는 것은 물론 25만 달러의 이익도 챙기게 된다. A는 그래서 굳이 부채 상환을 위해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 수입 25만 달러를 담보로 신용 구매(카드 대출 등)를 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A의 신용 구매의 담보 25만 달러는 실제 수입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따라서 만약 부동산 가격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으면, A는 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 이렇게 부동산 등 자본 시장의 과열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이 평가되는 것을 자산 거품이라고 한다. 앞에서는 부동산을 예로 들었지만 증권(주식, 채권 등) 역시 마찬가지로 자산 거품의 한 요소이다.

미국은 이러한 방식으로 90년대 후반부터 2007년까지 부채를 기반으로 과소비를 해왔다. 많은 시민들은 부동산 매매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빚을 내어 구매하였고, 금융 기관들은 이 부동산담보대출을 증권화하여 또 다른 금융 자산을 만들어 내었다(파생금융상품 장 참조). 고수익 투기를 통해 금융 기관의 임직원들은 천문학적 연봉을 매년 받았으며, 그 만큼 소비하였다. 그런데 부채가 자본이 되고, 자본이 또 다른 가공 자본이 되는 기적이 발생한 듯 보였지만, 결국 어느 순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이 모든 자산 증식 과정이 붕괴되었다.

바로 이것이 미국 민간소비가 급감한 원인 중 하나인 자산 거품의 형성과 붕괴 과정이다. 이미 1990년대 일본 경제가 추락할 때도 80년대 중후반의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산 거품이 꺼진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경제 성장이 반등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자산 거품이 이 성장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정부 지출 중 상당

부분이 실재 투자보다는 주식 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모여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 정부가 은행 파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투입한 자본금 중 상당 부분은 아시아 부동산과 주식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다(뒤의 은행 부분 참조). 중국의 부동산은 올 해 들어서만 두 배 가까이 상승하였고, 한국 주식 시장은 외국인 자본이 유입되며 급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대부분 증시가 저점을 찻던 2009년 5월 9일과 비교하여 약 17조 달러(약 2,000조 원) 시가 총액이 상승하였다.

거품으로 혼쭐 난 자본주의가 다시 거품으로 성장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한 것일까? 다음 장에서부터 은행과 화폐에 대해 알아보며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3. 정부와 자본의 손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는 경제 위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수 십조 원을 쏟아 붓고 있다. 당장 언론에 잘 알려져 있는 90조원 규모의 감세와 22조원 규모의 4대강 삽질 뿐만 아니라,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 20조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 등 경제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150조가 넘는 예산을 지출하였거나, 앞으로 지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2008년 노동자들(고위 임원과 관리직도 포함)이 받은 임금 총액은 460조원 정도인데, 정부가 쓴 돈(그리고 조만간 쓸 돈)은 이 액수의 33%에 육박하는 큰 돈이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 전체에게 4개월 이상의 임금을 그냥 주고도 남은 이 돈은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듯이 노동자들에게는 그다지 돌아간 것 같지 않다.

국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의 향방을 찾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부가가치의 생산과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기업가의 이윤으로, 그리고 정부의 세금으로 징수되며 돌고 돌아 결국 특정 계급에게 집중되는 메카니즘을 살펴보자.

● 부가가치의 생산과 착취

앞의 철강회사와 자동차 회사로만 구성된 가상의 경제에서 살펴보았듯이 부가가치는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으로 구성된다. 먼저 생산 현장에서 모두가 경험하고 있듯이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지출하여 그 냥은 자연 상태로는 쓸모가 없었던 철광석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자동차로 만들어 가치를 부가하였다. 노동자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데 기업가의 이윤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기업가도 일을 하지만 기업가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하여 직접 철광석을 철강으로, 그리고 자동차로 만

드는 것은 아니다. 기업가의 일이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노동자들을 생산 현장에 배치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화해서 생각해보면 기업가의 이윤은 노동자들이 만든 가치 중 일부를 노동자들을 생산 현장에 배치하고 감독한 대가로 받아서 생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상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계, 그리고 기계의 도움을 받아 생산된 상품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가에게 부가가치의 일부를 떼어 줄 수밖에 없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노동자가 기업가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가에게 임금이라는 형태로 생산된 부가가치 중 기업가의 이윤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노동자는 기업가가 구매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상품을 생산한다. 그런데 영원불멸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없다. 생산 과정에서 기계 역시 마모가 된다. 그래서 여러 부품들을 종종 교체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예 설비를 모두 폐기하고 새로운 설비로 교체해야 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추상화시켜 생각하면 생산된 부가가치 중 일부가 이 기계의 감가상각으로 소모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연히 기업가는 생산을 통해 결국 자신이 투자한 기계의 비용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에서 이 감가상각을 공제한다.

$$\text{생산된 부가가치} - \text{설비 감가상각} - \text{기업가 이윤} = \text{노동자의 임금}$$

그런데 실제 경제는 위의 가상 경제만큼 간단하지 않다. 경제에 다른 요소들이 더 추가된다. 첫 번째는 금융 기관이다. 기업가는 이윤 중 일부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들이 겪는 일처럼 설비 투자에는 단기간에 큰 자본이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부족한 돈은 은행 등 금융 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업가는 금융 기관에 이

자를 지불한다. 그렇다면 이 이자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당연히 이 이자 역시 노동자가 생산한 상품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지출하는 것이다.

$$\text{생산된 부가가치} - \text{금융기관 이자} - \text{설비 감가상각} - \text{기업가 이윤} = \text{노동자의 임금}$$

두 번째는 당연히 정부이다. 한 나라의 경제를 총 관리하는 국가는 노동자와 기업가 모두에게 세금을 걷는다. 그 세금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이라고 불리는 도로, 철도, 전기 시설 등을 건설하기도 하고, 경찰 군대 등 공권력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낸다. 따라서 노동자가 생산한 총부가가치에서 정부가 걷는 세금도 공제해야 한다. 단 여기서 이 세금은 기업가와 노동자에게 걷는 것이므로 기업가 이윤과 노동자의 임금은 세금을 낸 후의 이윤과 임금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노동자는 근로소득세를, 그리고 기업가는 대표적으로 법인소득세를 낸다.

$$\begin{aligned} &\text{생산된 부가가치} - \text{금융 기관 이자} - \text{정부 세금} - \text{설비 감가상각} - (\text{세후}) \text{기업가 이윤} \\ &= (\text{세후}) \text{노동자 임금} \end{aligned}$$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자가 기계 설비 도움을 받아 생산한 부가가치의 일부분을 받게 되는 것인데(다시 말하면 노동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절대로 자신이 생산한 부가가치 전체를 임금으로 받지 못한다. 즉 언제나 착취받는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2008년 한국에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생산된 부가가치 중 48.2%만을 임금으로 되돌려 받는다. 기업가는 부가가치의 24.7%를, 금융기관은 7.4%를, 정부는 1.5%를 가져간다.

그렇다면 이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정해진 규칙은 없다. 노동조

합이 힘이 강하여 다른 노동조건의 하락 없이 임금 인상을 쟁취하면 임금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반대로 기업가 이윤은 줄어들 것이다.

● 국민경제에서의 부가가치의 분배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 차원에서 측정한다. 다양한 생산 부문이 시장에서 상품을 매매하며 부가가치를 교환하고, 한 편에서 수탈하기도 하지만 어찌되었건 국가 차원에서 생산된 부가가치 총량은 보존되기 때문이다.

재벌 기업 A, 중소 부품 납품 업체 B, 그리고 은행 C가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재벌 기업 A가 부품 업체 B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적정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품 업체 B는 자신들이 생산한 부가가치만큼의 노동자 임금과 기업가 이윤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가장 간단한 경우를 생각하면 생산된 부가가치는 노동자 임금과 기업가 이윤의 합이다). 즉 부품업체 B의 노동자들 임금이나 기업가 이윤 중 일부가 재벌 기업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재벌 기업 A는 자신들이 생산한 부가가치와 부품업체로부터 적정 가격 이하로 넘겨받은 부가가치 중 일부를 돈을 빌린 대가(이자)로 은행 C에게 넘겨줄 수 있다. 이 경우 은행은 아무런 부가가치도 생산하지 않은 채 오직 자본을 대부해준 대가로 이자를 획득한다. 은행은 이 이자 중 일부를 은행 노동자의 임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를 이윤으로 남긴다.

위와 같은 경제에서 총부가가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가장 직관적으로는 A, B, C 기업의 노동자들의 임금과 기업가들의 이윤을 모두 합하면 된다. A, B, C 간에 어떠한 거래가 있었던 간에 결국 이 경제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증발한 것이 아닌 이상) A, B, C 각각에서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앞 장에서 같이 부가가치의 총액인 국내총생산은 지출(소비) 형태 (민간 및 정부 소비, 투자, 수출 및 수입) 별로 나뉜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며,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노동자의 임금과 기업가의 이윤으로 나뉘는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국내총생산 = 노동자 임금 + 기업가이윤

국내총생산 중 노동자 임금(피용자 보수)이 차지하는 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이라 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8년 현재 45.7%이다. 미국 56%, 독일 49%, 일본 51% 등 선진국에 비하면 작은 편이다. 한편 이 수치는 사실 매우 과장된 것인데 통계 작성 기관이 노동자 임금에 임원들의 수입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일반 노동자 임금의 수 십배를 받는 기업의 임원들, 고위 관리직 등이 모두 노동자 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노동자 임금 액수가 크게 늘어난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

잠깐 다시 A, B, C의 관계로 돌아가보자. 중소기업 B와 대기업 A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원하청 관계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 B는 왜 대기업 A와 공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자본 축적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큰 자본을 들여 중소기업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설비를 들여오고, 기술을 개발한다. 대기업은 이렇게 자본을 더욱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큰 이윤을 남겨야만 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수탈한다. 시장에서의 힘 관계 상 중소기업은 자신들의 상품을 제 값을 주고 팔 수 없어 자신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일부를 대기업에게 넘길 수 밖에 없고, 이 수탈이 대기업의 이윤 중 일부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소기업의 경우 총 투자한 자본 대비 수익성이 대기업에

비해 떨어진다. 경제 위기 이전 2007년 한국의 제조업 대기업(유가 증권 시장 상장사)의 총자산 대비 경상수익의 비율인 총자산세전수익률(총자산경상수익률이라고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1부를 참조)은 8%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경우 4.7%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수익률이 대기업에 비해 58% 수준인 셈이다. 경제위기가 시작된 2008년의 경우 제조업에서 대기업은 4.5%, 중소기업은 2.8%로 이 차이는 그다지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격차는 단지 기업가의 이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중소기업의 기업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대한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줄인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50~60% 사이인 것처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도 대기업 노동자의 60% 이하이다. 같은 일을 하고도 대기업 노동자에 비해 중소기업 노동자가 저임금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탈과 관련이 있다.

• 제조업과 금융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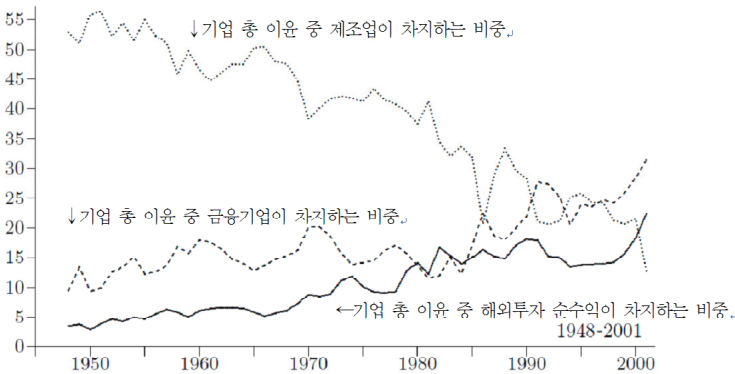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부가가치의 이전이 자본축적의 차이로 인한 생산자들 간의 이전인 반면, 금융 기관에 대한 대부 이자와 금융 기관이 투자한 자본에 대한 배당 등은 사실 전혀 실물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A, B, C 기업의 경제에서 살펴보았듯이 은행 C는 부가가치의 생산이 아니라 분배 과정에서만 존재한다.

금융 자본은 정의 상으로만 보면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 돈,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 미래를 위해 든 적금 등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리고 그 대가로 이자 수익(예금 이자와 대출 이자의 차이)을 얻는다. 하지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며, 금융 자본은 단순히 자본의 분배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대규모 수익을 얻기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예금과 대출을 주업으로 했던 은행은 투자

은행이라는 형태로 변화하여, 여러 파생금융상품들을 판매하기 시작하고, 헤지펀드 등의 정부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금융 투기 자본들이 번성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도 자회사로 이러한 금융 기관을 두어 자본을 동원하거나 또는 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규모 수익을 올리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크게 진행되었는데, 위와 같은 금융 자본의 변화와 성장을 흔히 금융화라고 한다.

미국에서의 금융화는 1970년대 후반 오일쇼크 이후 시작된 경제 위기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 위기 과정에서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는 흔히 신보수주의라고 불리는 대대적인 정책 개혁에 나섰다. 하나는 노동자 운동에 대한 탄압이었고, 다른 하나는 각종 금융 규제들을 개혁하여 금융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그림 2-4〉 미국 기업 총이윤 중에서 제조업, 금융기업, 해외투자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



* 해외투자수익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과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여 벌어들인 수익의 차이로 의미

* 출처: Mademoiselle Dumesnil, *NEOLIBERAL DYNAMICS - IMPERIAL DYNAMIC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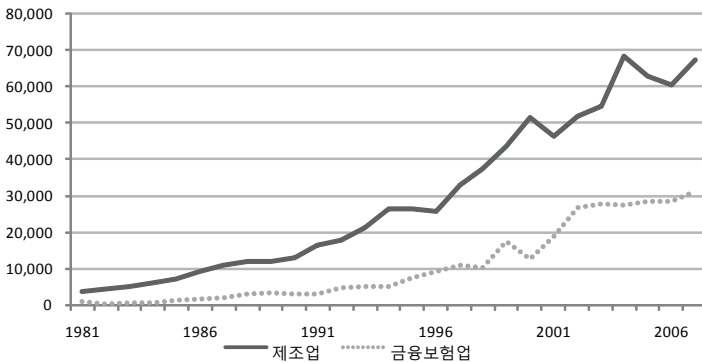
위 그림은 이러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금융 자본의 혁신이 가져온 결과를 잘 보여준다. 미국에서 제조업 기업이 차지하는 총 이윤 중 비중은 1970

년대까지도 45% 수준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 신보수주의 이후 금융 기업의 이윤이 급등하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제조업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2000년대가 되면 제조업 기업은 전체 이윤 중 10% 내외만을 차지하며, 금융 기업은 30%에 육박하는 이윤을 독식한다. 하지만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금융 기업이 직접적으로 부가가치의 생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금융 기업의 이윤은 제조업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이전이 기반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아래 그림은 제조업과 금융업의 영업이익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1997년 경제 위기 이전까지 금융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제조업 기업의 25% 수준에 불과했다. 하지만 각종 금융 규제가 사라지고, 금융 시장이 완전 개방되기 시작한 1998년 이후 금융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급증하여 2002년 이후에는 제조업 기업들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증가하였다.

〈그림 2-5〉 한국에서 제조업과 금융업의 영업이익 비교

영업이익(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 기업들이 이익을 만들어 내는 원천은 당연하게도 노동자의 임금과

비금융기업들(제조업과 기타)의 이윤이다. 2000년대 이후 노동자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통한 부동산 투자, 펀드 가입 등을 통한 주식 투자 등 임금의 상당액을 금융 기관에 넣었고, 제조업 기업들 역시 이자 및 배당으로 이익의 상당액을 금융 기관에게 이전하였다. 제조업 대기업들의 경우 외환 위기 이후 차입금 비중을 현격하게 줄여 이자 지출을 줄였고, 대신 배당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으로 분배한 액수의 비율, 자세한 내용은 1부 참조)을 상향 조정하였다. 부채비율(부채와 자기 자본의 비율, 1부 참조)은 1997년 300%대에서 2008년 80% 선까지 줄어들어 이자 비용을 대폭 줄였지만, 1990년대 5~10%에 머물던 배당률(주식 액면가와 배당액의 비율)은 2000년 이후 10~20% 대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 금융화와 노동자

그렇다면 이러한 금융화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일까? 제조업의 기업가가 금융 기업가에게 이익을 빼앗기고 있는 것일까?

물론 금융 부분의 기업가들이 금융 세계화 이후 제조업 기업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미비한 차이일 뿐이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금융 자본의 수중에 들어간 이익의 대부분은 바로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의외로 간단하다. 금융 부분이 화폐로든 신용으로든 벌어들이는 돈은 언젠가는 '실물'로 바뀌어야 한다. 금융 부분의 기업가들과 고위 관리직의 소비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새로운 자산 투자를 통해서든지 최종적으로는 '실물'로 바뀌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실제 사회적으로 유용한 재화(혹은 서비스)는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노동자가 생산한다. 즉, 노동자가 금융 부분이 소비해야 할 재화까지 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상이라는 것인데, 만약 노동자가 이 모든 것을 제 값을 받고 만든다면, 금융 부분의 기업가들이 소비할 재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금융화가 단순히 금융 규제의 해제만이 아니라 노동 유연화와 함께 진행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 정부 시절에,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대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이 도입되었다. 제조업의 기업가가 자신의 이윤과 더불어 금융 자본의 이윤까지 만들어 내자면 더욱 많은 노동 착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 수를 늘려 저임금 노동자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어 노동자가 가져가는 부가가치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 경제 위기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 내는 손실의 전가

이러한 금융화가 극단적으로 발전하여 촉발된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해 세계 각국 정부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다. 이들 정부가 쏟아 부은 돈은 물론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금의 원천은 노동자들이 생산한 부가가치 중 일부를 정부가 징수해 가는 것이다. 세금의 항목은 노동자에게, 기업에게 따로 부과되지만, 기업가는 기업과 자신의 소득에서 지불하는 세금까지를 감안하여 임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세금은 노동자에게서 나온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외환위기 과정에서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총 159조원에 이른다. 이 중 22조원은 정부 예산으로 투입하였으며, 국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49조원은 25년 동안 매년 2조원 씩 정부 예산으로 상환하여, 실질적으로 71조원이 정부 세금으로 직접 지출되는 돈이다. 나머지 돈 88조원도 직접적으로 정부 예산에서 지출되지는 않지만 정부가 출연한 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간접적으로 세금과 연관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먼저 194개에 달하는 국내금융기관과 68개에 달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출자, 대출, 부실채권매입 등으로 사용되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 금융 기관들은 마구잡이 대출과 투자를 일삼았는

데, 그 부실을 모두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지운 것이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재벌들은 수익 중 상당수는 배당으로 지출해버리고, 부족한 투자분은 채권(채권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참조하라)을 발행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부채를 증가시켜 해결한다. 금융 기관 역시 재벌들의 채권을 매입하고, 부족한 돈은 해외에서 차입해와 대출을 증가시킨다. 이 과정에서 수익은 주주들과 기업가들이 나누어 먹는다. 이 과정에서 재벌과 금융 기관들의 주주와 기업가들은 높은 이윤을 획득하지만 기업에는 부채만 남는다. 결국 이 부채가 문제가 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정부가 나서서 이 부채를 해결한다.

기업가와 주주들은 수익, 기업에 부채 증가 → 위기 발생 → 정부가 나서 부채를 해결 → 정부에게 넘겨진 부실 자산 및 부채는 세금으로 해결 →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가 정부 세금으로 이전

외환위기를 거치며 재벌들은 부채와 부실 자산의 상당수를 공적자금으로 털어내고 다시 정상화되었다. 물론 이들이 정부가 인수한 부채와 부실 자산을 나중이라도 갚은 것은 아니다. 대우그룹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실 자회사만을 정부에게 떠 넘기고, 다시 1998년 이후 높은 수익률을 회복하였다. 금융 기관의 경우 아예 정부 돈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하고, 외국계 자본에게 넘겨버렸다. 현재 시중 9개 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하고는 모두 외국인 소유로 넘어가버렸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역시 원리는 비슷하다. 이 번 위기의 경우 그 주인공이 초국적 금융 기관들이라는 점만 다르다. 초국적 금융 자본들은 1990년 중 후반부터 진행된 부동산 시장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 참조). 그런데 이 파생금융상품이

문제가 생겨 막대한 자산 부실과 부채가 발생하였다. 미국 정부는 2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금융기관들의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금융 자본에게 쥐어주었다. 한국 정부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라는 것을 만들어 금융 기관들의 금융 투기로 인한 부실 자산을 매입하거나 자본을 확충해주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달리 여기에 추가로 부실 건설회사들을 위해 20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기금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았다. 부동산 거품이 정점에 달했던 2000년대 초중반 건설회사들은 지방은행 및 제 금융 기관들과 함께 여러 자산 투자를 벌였다. 그리고 정부에 의해 이 모든 부실은 이제 노동자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II 계속되는 은행 위기

두 번째 금융 위기 시나리오

이 명박 정부를 비롯하여 국제통화기금 등은 세계경제위기가 진정될 조짐이 보인다고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계 경제성장률의 반등은 세계 각국 정부들이 쏟아 부은 지출로 인한 성격이 강하다. 이러한 실태를 아는 경제학자들은 그래서 오히려 현재 경제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조금 후에 더 큰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측 중 하나가 바로 앞으로 은행위기(은행 파산)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정부가 은행에 자본을 직접 확충하는 방식으로 미국 은행에 지원한 자금이 3,000억 달러(약 360조 원)에 육박한다. 미국 국내총생산의 약 2.1%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한국 정부 역시 자본확충펀드라는 이름으로 은행 지원을 위해 2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놓았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문제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돈이 은행 지원에 필요한지조차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이 가진 부실자산이 어느 규모인지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세계 정부들이 천조에 육박하는 돈을 퍼부었지만 언제든 다시 신용 경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을 시장에 주고 있다. 정부에 의해 단기간에 집중 투하된 자금이 약간의 생산 증가를 이루어내었지만 다시 돈 흐름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번 장에서는 금융 시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알아본다.

4. 통화

통화량은 한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을 통화라 부른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이다. 흔히 볼 수 있는 지폐나 동전 같은 현금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통화는 현금만이 아니라 현금으로 전환 가능한 여러 종류의 금융 상품들까지를 포괄한다.

국가 안에서 유통되는 통화는 중앙은행(한국은행)을 통해 시작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와 주화(즉 중앙은행 화폐)를 본원통화라 부르며, 민간이 보유한 화폐보유액과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으로 구성된다. 참고로 지급준비금은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이 예금 중 일정비율을 한국은행에 예치하거나 시재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이다.

협의통화(M1)는 본원통화에 은행신용을 더한 것이다. 여기서 은행 신용은 보통예금, 당좌예금을 지칭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수표나 어음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협의통화를 통화량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광의통화(M2)는 통화량에 금융 기관이 신용을 확장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정기예금, 정기적금, 수익증권, 금융채, 양도성예금증서(CD) 등 금융상품들이 추가된다. 광의통화를 총통화량이라고도 부른다.

참고로 여기서 신용(Credit)이라는 말은 지불을 보장한다는 말로 은행 신용이라 함은 은행이 그 지불을 보장한다는 뜻이다. 신용을 확장한다는 말은 지불을 보장하는 대상의 확대를 말한다. 흔히 경제 위기 시기에 나타나는 신용경색은 금융 기관, 혹은 기존에 지불을 보장했던 당사자들 간에 상호 불신이 발생하여 지불 보장을 믿지 못하여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을 지칭한다.

●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과 금리

그렇다면 이 통화량이 줄거나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금리일 것이다. 화폐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통화량이 적다면 화폐를 빌리는 데 드는 비용, 즉 금리가 오를 것이고, 화폐를 원하는 사람은 변화가 없는데 통화량이 늘어난다면 금리가 내릴 것이다.

한 국가 내에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지표는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이다. 말 그대로 정부가 경제 여건 조절 또는 유지를 위해 국가 내에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금리 목표를 기준금리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콜금리라고 부르는 은행 간의 단기 대출 금리를 조절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하면 이 중앙은행의 콜금리 목표치를 의미한다. 보통 1일 만기인 은행 간 단기 대출은 보통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데, 갑자기 대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다른 지출이 발생하여 현금이 지급준비금 아래로 내려가면, 지급준비금 보다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기관에게서 돈을 빌린다. 이때의 금리가 콜금리이다.

먼저 지급준비금에 대해 설명하자면, 지급준비금은 은행이 예금자들의 인출 요구에 대비해 예금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한 자금이다. 은행이 이 자금을 예치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법에 의해 각종 제재조치를 당한다. 참고로 은행이 받은 예금 중 예치해야 할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이 지급준비율을 조절하여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급준비율이 커지면 은행은 예금 중 더 많은 자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을 적게 해 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은행 B가 고객 갑에게서 100만원을 예금 받아 10만원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면, 90만원을 돈이 필요한 을에게 빌려줄 수 있다. 이 경우 통화량은 갑의 요구불예금 100만원과 을이 대출받은 현금 90만원이 되어 총 190만원이 되지만, 지급준비율이 20%라면 같은 상황에서 통화량은 180만원이 된다. 은행은 이렇게 대출을 통해 신용을 만들 수 있는데 이 때 본원통화에 비해 창조

된 통화량의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중앙은행은 공개시장조작이라는 방식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할 수도 있다. 중앙은행이 금융 시장에서 국채를 매매하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을 공개시장조작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이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시장에서 구매하면, 중앙은행이 채권 소유자에게 본원화폐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소유한 국채를 판매하면, 채권소유자의 본원화폐가 중앙은행에게로 돌아오므로 시중에 통화량이 줄어들게 된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은 국가 내에서 최종 대부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돈을 빌려 줄 수도 있다. 이를 재할인 정책이라고 하는데, 은행이 지급준비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이 낮은 이자 혹은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줄 수 있다. 낮은 이자로 빌려줄 경우 자금을 원하는 은행이 많아져 시중에 돈이 조금 더 많이 풀리게 될 것이다.

● 은행신용과 증권

참고로 통화량에서 은행신용과 증권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신용은 일차적으로 대부를 목적으로 한다. 즉 사용되지 않는 자본을 이용하여 화폐를 필요한 곳에 공급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은행에서 학자금대출을 받는 다든지,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다. 그리고 은행은 그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하지만 증권은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목적으로 한다(증권은 그 의미가 미래 소득에 대한 권리 증서이다. 예를 들면 주식, 채권 등이 대표적이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미래의 소득을 이자율로 할인하는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투자신탁회사(투신사)가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모아 뮤추얼 펀드 등에 투자할 때는 그 펀드에게서 이자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펀드가 금융 투자를 하여 걷어 들인 수익을 배분받겠다는 것이다. 수익 증권을 구매한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익이 이자 소득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대, 즉 수익 증권 구매가 같은 금액을 은행에 넣었을 때보다 높은 현재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2008년 금융 위기는 상당부분 이 증권의 성장 확장에서 기인한다. 증권의 미래 수익을 위해 각종 투기적 기법들이 개발되기 때문이다.

5. 금리와 주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한 국가 내에서 금리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 정부는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고, 기준금리라는 목표를 정하여 시중 금리들을 조절한다.

● 시중 은행 여수신 금리

일반 시민들이 시중에서 적금을 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는 시중 은행들이 결정하는 금리이다. 1990년대 이후 금융 시장이 개방되며, 은행들의 금리는 은행 자율로 맡겨지게 되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고 있듯이 예금금리는 대출금리보다 낮다. 이 차이를 통해 은행은 수익을 남긴다. 은행들은 시장에서 경쟁하며, 좀 더 많은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하기 위해 여러 예금, 대출 상품들을 개발하며 금리를 조정한다. 시중은행들의 여수신 금리는 기준금리 변화에 영향을 받지만 여러 금융 상황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움직인다.

● 채권수익률

한편 경제 내에서의 자금의 이동과 관련된 금리는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예금 대출 관련 금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역시 중요하다. 채권은 공공단체와 주식회사 등이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차용증서이다. 발행 주체에 따라 구분되며, 국채, 지방채, 금융채, 회사채 등이 있다.

보통 채권에는 만기일, 액면가, 표면금리가 확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2년 만기, 액면가 10만원, 표면금리 연 10%인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2년 후에 12만원을 받는 것이다. 원리는 적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채권은 적금통장과 달

리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 2년 만기 채권을 만기가 되지 않아도 당장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 때의 판매 가격을 채권 가격이라고 하며, 만기 시 받게 되는 금액과 현재의 채권 가격의 관계를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수익률은 보통 연수익률과 만기수익률이 있는데, 연 수익률은 만기수익률을 연 단위 수익률로 환산한 것이다. 보통 수익률이라고만 하면 연 수익률을 지칭한다.

예를 들어 보자. 홍길동이 1년 만기 국채를 시장에서 9만원에 구매했다. 액면가 10만원에, 만기일에 12만원을 받는 채권이라면, 수익률은 3만원 나누기 9만원으로 33%이다. 적금통장으로 생각하면 1년 만기 이자가 33%인 셈이다. 그런데 홍길동이 국채를 산 이후 정부의 통화 정책이 변화되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시중 이자율을 높였다. 일반 은행에서 1년 만기 적금 이자가 50%가 되었다. 홍길동은 지금이라도 적금으로 돈을 돌리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채권을 시장에서 판매하려 하지만, 9만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9만원을 적금을 들면 4만 5천원이 남지만, 국채를 사면 3만원밖에 남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길동이 자신이 소유한 국채를 팔려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급전이 빨리 필요해 즉각 팔려면 8만 원 이하로 팔아야 적금 금리 정도는 되어 구매자가 나설 것이다. 채권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 경우 채권의 수익률은 50%로 높아진다. 바로 이렇게 채권 수익률은 채권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흔히 뉴스에서 채권수익률(혹은 그냥 채권 금리라고도 부른다.)이 높아졌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낮아졌다는 뜻이다.

채권은 국채가 대표적이지만 금융 기관이 발행하는 금융채, 일반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도 있다. 회사채의 경우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수익률과 표면 금리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채권은 무담보 채권 형태가 많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면 채권 소유자가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채권에 위험 비용이 부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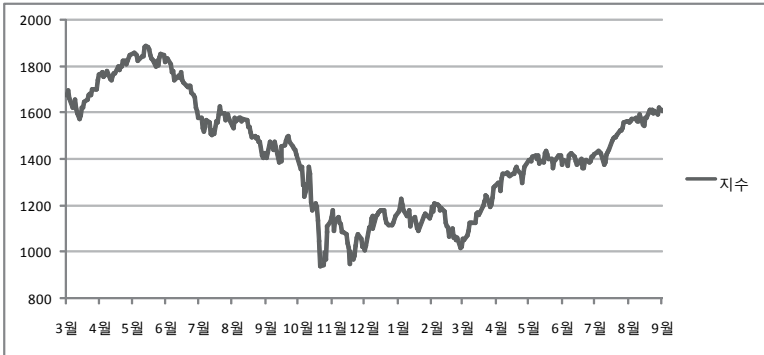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 매

매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금융 시장의 여러 투기적 행태들이 발생할 여지를 만든다.

● **주가**

주식은 기업의 미래 배당에 대한 청구권을 가진 증권이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투기적 요소를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하여 미래에 배당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는 미래의 예측이니 만큼 엄격하게 과학적 예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요인이 많이 개입한다.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관성 때문에 투기적 요소들이 주식시장에 개입하여 미래 배당보다는 여러 심리적 요인, 투기 프로그램 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2-6〉 한국 종합주가지수 변화 추이 (2008.03 ~ 2009.09)



*자료: 증권거래소

위 그림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현재 시가 총액을 1980년 1월 4일을 100이라 했을 때 비교한 종합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는 2008년 5월 2000에 육박하다, 세계 경제 위기가 한국을 강타한 2008년 11월에는 900

선까지 추락한다. 이후 지수는 등락을 반복하다 2009년 3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9월 현재 1600선까지 올라갔다.

하지만 이러한 변동은 사실 실재 기업들의 경영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 여전히 대부분의 상장 기업들이 매출액 증감이나 다른 수익성 지표에서 2008년 중반만큼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표 2-3〉 한국 법인기업 성장성 지표

(단위: %)

	2008		2009		
	상반기	02월 04일	상반기	01월 04일	02월 04일
매출액증가율	21.9	24.8	-2.3	-0.6	-4
	-22.4	-26	(-4.8)	(-3.8)	(-5.5)
유형자산증가율	3	1.8	1.9	1.3	0.7
	-3.4	-1.8	-1.4	-0.7	-0.7

*자료: 한국은행, ()는 제조업

위의 표는 한국은행이 조사한 2009년 2분기의 한국 법인기업들의 성장성 지표들이다. 2008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이 21%나 증가하였지만, 2009년 상반기는 2008년 대비 2.3% 줄어들었다. 2분기의 경우 1분기보다 더욱 줄어든 4% 감소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가의 경우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미래 예측에 대한 낙관적 기대 혹은 외국인, 국내기관투자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거품 만들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신용 확장과 부동산 거품

2008년부터 세계를 강타한 경제 위기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발생하였다. 1차적인 원인은 집값이 하락하면서, 집 값 상승을 믿고 모기지 대출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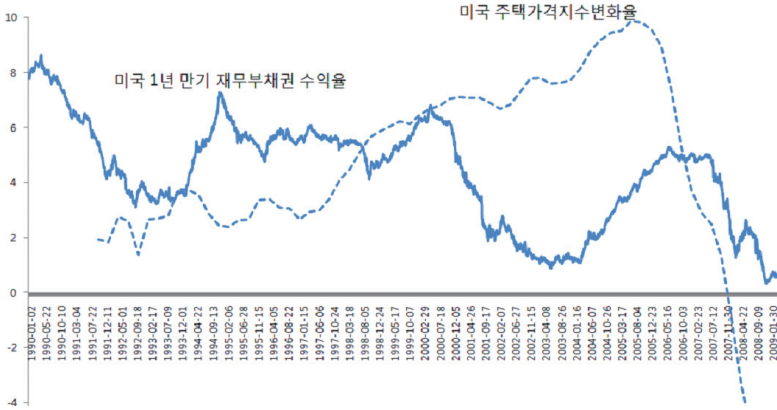
97년부터 치솟기 시작한 주택 가격을 믿고 금융 기관들이 마구잡이로 모기지 대출을 해주었고, 모기지대출금을 바탕으로 집 구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가격이 다시 급등하는 거품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거품은 언젠가 터지기 마련인지라, 2006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이 갑자기 하락하기 시작하였다. 문제는 집 값 하락이 모기지 관련 금융 기관의 부실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금융 기관 전체로 파급된 것이었다. 미국의 금융 기관들이 모기지 금융 업체들의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2차, 3차 파생상품을 만들어 판매했기 때문이다. 모기지 업체가 문제가 생기자 모기지를 이용하여 만든 모든 금융 상품들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 기술한다.

미국의 이러한 집 값 거품과 금융 투기는 근본적으로는 제조업의 수익성 저하에 따른 금융화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이 2000년대부터 지속한 저금리 정책은 이러한 집 값 거품과 금융 투자를 극단적으로 키워내며 위기를 가속화시킨 중단기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 그림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의 기준 금리 변화를 보여주는 미국 1년 만기 국채(재무부 채권)의 수익률 추이와 미국 평균 집 값(구매 기준) 추이를 함께 보여준다. 미국 기준 금리는 2000년부터 크게 하락하여 0% 대 까지 떨어진다. 거의 공짜로 돈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주택 가격을 비롯하여 주식 시장 등 대부분의 금융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준 금리를 계속해서 낮추었다. 미국은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신 경제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성장을 하지만, 물론 이제 밝혀졌듯이 이는 실제 성장이

아니라 금융 투기에 기반한 전형적인 거품 성장이었다.

〈그림 2-7〉 미국 기준금리와 주택가격 변화 추이



*자료: 미국연방준비기금, 연방주택금융공사

그렇다면, 미국 중앙은행은 왜 금융 거품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기준금리를 낮추었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더 이상 정상적인 방식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80년대 이후 실물 경제의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금융 부분을 키워서 소비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미국이 아무리 적자를 내도 외국인들이 미국으로 돈을 가져와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앞에서 이야기한 은행 신용(대출 등)이 투기적으로 이용된 대표적 사례가 바로 미국의 저금리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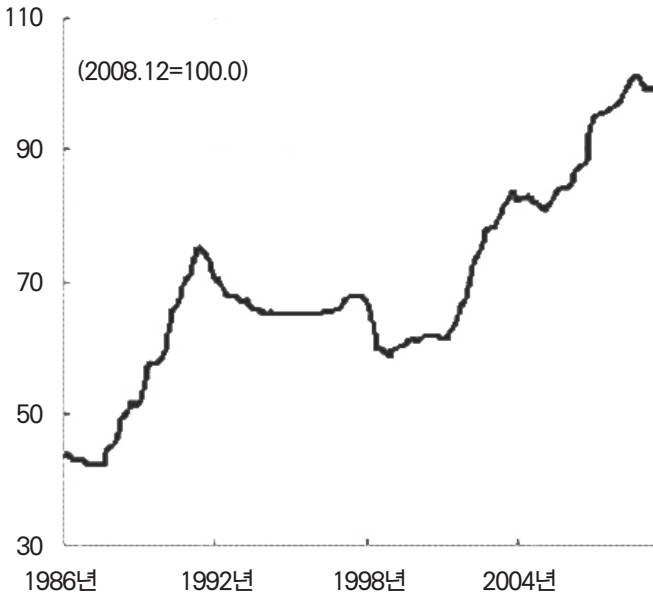
결국 미국인이 쓴 돈이 금융을 통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은 80년 이후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쌍둥이 적자라 불리는 재정 적자, 무역적자를 기록하고도 끄떡 없었다. 한 예를 들면 미국인들이 소비한 수 많은 중국 제품으로 미국은 대중 무역적자를 크게 기록했지

만, 중국은 미국 채권을 구매하거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그 적자분을 매워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형적인 성장은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는 미국이 만들어 낸 금융 세계화가 더 이상 작동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아직도 주택가격이 많게는 정점 대비 40% 까지 더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주택가격이 더 하락하면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관련 파생상품들이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 어떨까? 아래 그림은 86년부터 한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장기 추이를 보여준다.

〈그림 2-8〉 한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장기 추이



*출처: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통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8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은 이전 10년보다 두 배가 넘는 것이다. 주택보급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이 증가하는데, 이는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에서도 담보대출로 인한 가계신용 확대와 관련이 크다.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통계를 작성한 2005년부터 매년 10% 이상 상승하고 있다. 심지어 잠깐 줄었던 2008년 4분기를 제외하고는 2009년 1,2분기에도 늘어났다. 한국에서도 미국과 비슷하게 저금리 정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은행 신용이 부동산 투기에 계속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7. 자본주의의 막장, 파생금융상품

거품이 단기간이 아니라 10년이 넘게 계속된 중요한 이유는 거품이 거품을 낳는 금융 혁신, 파생금융상품과 관련이 있다. 파생금융상품은 정의로 보면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적인 금융과 달리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일종의 위험에 대한 보험인 셈인데, 문제는 이 위험에 대한 보험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익을 만들어 내는 위험에 대한 고수익 상품으로 발전했다는 것이다.

앞에서 은행신용과 증권을 구별했는데,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부채 등을 증권화(Securitization)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증권은 자금의 조달이 아니라 미래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생금융상품은 결국 유동화 불가능한 자산이나 부채, 심지어 위험까지도 미래의 수익을 위한 매매 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더 나아가 파생금융상품은 증권화된 상품들을 위험도가 낮은 상품과 높은 상품을 섞어서 새로운 수익성을 창조하는 구조화(Structurization) 단계까지 발전했다.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파생금융상품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래서 몇 가지 파생금융상품을 알아보자.

● 자산담보부증권(ABS, Asset Backed Securities)

파생금융상품의 가장 기본적 형태는 자산담보부증권이다(자산유동화증권이라고도 부른다). 자산담보부증권은 금융 기관이 대출 관련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예를 들면 A 은행이 갑과 을에게 각각 1억씩 10년 상환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다고 하자. A 은행은 자산으로 2억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 이 자산으로 만들어 내는 이익이 이자뿐이라는 것에 불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 자산으로 다른 수익원을 만들어보고자 2억 원의 채권(채권에 대한 담

보는 주택)을 담보(갑과 을에게서 2억 원과 이자를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주택을 가지는 권리)로 또 다른 2억 1천만 원 채권(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하여 시장에 유통시킨다. 이 경우 A 은행은 부채에 2억 1천만 원이 발생하지만, 이 자금을 가지고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자산 투자를 할 수 있다. 한편 이 자산담보부증권을 구매한 투자기관 B는 이 증권 자산을 담보로 또 다른 자산담보부증권(갑과 을의 주택을 담보로 한 A은행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는 2억 2천만 원 채권)을 발행하여 새로운 자금을 마련한다.

얼핏 보면 은행이 신용을 통해 통화를 창출하는 통화승수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생금융상품은 예금을 기초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화폐로 전환 불가능한 자산을 가지고 신용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즉 가공자본이라고도 불리는 이 신용은 쉽게 이야기하면 실체가 없는 가짜 신용인 셈이다.

자산담보부증권의 대표적 형태 중 하나가 위에서 예로 든 주택담보부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ies)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발단이 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소득이 낮아 대출금 상환이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발행한 주택담보대출을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고 부르는데, 이 주택담보대출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전개 과정은 간단한데, 위의 예를 들면 갑과 을이 모두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A은행은 주택을 압류한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침체하여 주택의 가격이 대출금 이하로 떨어지고, A은행은 결국 자신이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의 만기금보다 낮은 자산을 보유한다. 순부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건수가 여럿 되면 A은행이 파산하게 되고, A은행이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을 산 B 투자회사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해 자신이 발행한 또 다른 채권(자산담보부증권)을 갚지 못하게 된다. 바로 이렇게 금융 기관들이 줄도산 나게 되는 것이다.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지불 가능한 화폐가 아

나라 특정 시점의 시장 가치로 평가되는 자산을 담보로 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자산담보부증권은 매우 빈번하게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어난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자산담보부증권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 기관이 건설 회사가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익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건설 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을 하면, 그 분양 수입이 담보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양 수입이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과 주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만약 최근 상황과 같이 대량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산담보부증권은 부실 채권이 되어 버리게 된다.

2009년 상반기에 한국에서 발행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담보부증권의 발행액은 8,320억 원이며, 2008년 상반기에 비해 58% 가까이 증가하였다. 이 밖에도 기업의 매출채권, 자동차 할부금융 등을 담보로 한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상반기에만 총 18조 5천 억 원이 발행되었고, 작년 동기보다 66%가 늘어난 것이다.

● 부채담보부증권(CDO,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앞에서 설명한 자산담보부증권들을 투자회사들이 사모아서 여러 위험 등급을 섞어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을 부채담보부증권(CDO)이라고 한다. 위의 예에서 A은행과 비슷하게 B은행 역시 자산담보부증권을 발행했다고 하면, C 투자회사가 A은행과 B은행이 발행한 증권을 담보로 하여 새로운 증권을 발행하는 것인데, 이 때 이 증권은 A은행과 B은행이 발행한 증권, 즉 A은행과 B은행의 부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채담보부증권이라고 부른다.

부채담보부 증권과 같은 구조화 증권의 원래 목적은 위험도가 큰 상품과 위험도가 낮은 상품을 섞어 전체적으로 위험이 분산된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화 증권은 그 설계가 복잡해지고, 뒤에서 설명한 신용부도스왑(CDS)과 같은 보험 상품과 결합하며 기형적으로 변화한다. 2006년 이후 확산된 구조화 상품들은 복잡도가 극에 달해 구매자가 실재로 어떠한 위험들이 존재하는지조차 확인하기 쉽지 않게 변화하였다. 예를 들면 A은행이 우량신용등급인 대출자를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한 우량주택담보증권과 B은행이 불량신용등급자에게 대출한 주택담보대출을 담보로 한 신용등급이 낮은 주택담보증권과 또 다른 투자회사에서 전혀 다르게 조합하여 만든 부채담보부증권을 섞어서 새로운 등급과 수익률의 채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경우 담보 사슬이 최대 4개까지 이어지는데, 이 모든 위험의 정도를 구매자가 알기가 쉽지 않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체 금융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 것에는 이 부채담보부증권의 역할이 컸는데, 금융 기관이 가진 자산인 부채담보부증권의 위험도를 금융 기관끼리 측정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 그 상품을 소유한 금융 기관마저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상대방 금융 기관이 가진 자산이 언제 부실화될 지 예측할 수 없었던 금융 기관들이 상호 간에 금융 거래를 중단하는 신용 경색이 발생하였다.

더욱 문제는 이 상품은 아예 금융 감독 기관의 규제도 받지 않으며,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2006년 말까지 약 1조 달러(1,300조 원) 규모가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고 한다.

●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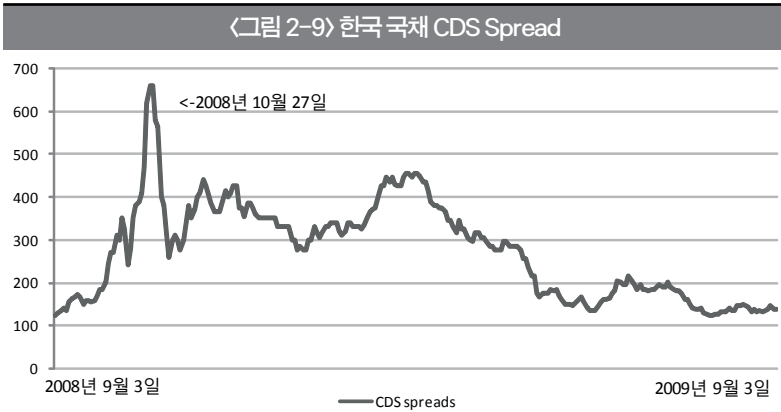
예상할 수 있듯이 앞의 자산담보부증권이나 부채담보부증권을 구매한 사람은 그 위험도로 인해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유동화 채권(자산이나 담보를 화폐로 전환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유동화라는 말을 사용한다)들은 고 수익

를(채권 가격은 낮고, 보장 액수는 크다)을 보장하지만 동시에 위험도가 높다. 또한 2006년 이후가 되면 세계 경제 향방이 불투명해져 유동화 채권이 아니더라도 일반 무담보 회사채나 국채도 투자자에게 다소 체감 위험도가 높아졌다. 이러한 채권에 대한 위험을 헤지(헤지(Hedge)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방책을 의미한다.)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 신용부도스왑(CDS)이다.

신용부도스왑은 채권 투자기관이 헤지펀드나 보험회사에 판매하는 상품인데, 일종의 채권에 대한 보험 상품이다. 유동화 채권이나 일반 채권을 가진 금융 기관이 보험회사에 수수료를 주는 대신 채권이 부도나 났을 경우 씨디에스 상품을 매수한 보험회사가 채권 금액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흔히 이 수수료를 씨디에스(CDS) 프리미엄이라고 한다. 프리미엄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채권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기일에 받는 채권 금액에 대한 추가 이자율(보험 수수료)을 씨디에스 스프레드(spread)라고 한다. 예를 들면 국가부도위험에 처해있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씨디에스 스프레드가 4,000bp(1,000bp = 10%)까지 올랐는데, 우크라이나 국채에 대한 신용부도스왑 상품에 가입하려면 국채 만기일에 받을 액수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경우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5년 만기 국채의 씨디에스 스프레드가 2008년 10월 700bp(7%)까지 올랐다 현재는 130bp 수준까지 낮아진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신용부채스왑 상품의 문제점은 이것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유동화 가능한 보험이라는 것이다. 금융 기관이 발행한 씨디에스를 헤지펀드나 보험회사가 사고, 이 헤지펀드나 보험회사가 또 이 씨디에스를 새로운 유동화 채권으로 만들거나 다른 금융 기관에 재판매한다. 더군다나 2006년부터 대량 판매된 씨디에스는 앞에서 이야기한 부채담보부증권에 옵션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하는데, 구조화 된 자산담보부증권들 중 파산 우려가 있는 있는 특정 상품들에 대해서 씨디에스 옵션을 넣어 부채담보부증권에 함께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씨디에스와 부채담보부증권이 섞여서 어느 상품이 어

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혼란스럽게 되어 버린 것이다. 예를 들면 골드만 삭스가 부채담보부증권을 헤지펀드에게 판매할 때 부채담보부증권 평가액 중 일부분에 대하여 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을 붙여 에이아이지(AIG)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에이아이지는 부채 담보부 증권의 채무불이행 위험을 앓지만 그 대신 수수료 수입을 얻는다.



*자료: 도이체방크

이러한 방식으로 신용부도스왑 상품은 각종 유동화 채권들과 함께 판매, 재판매되었고, 현재 그 액수가 약 50~70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금액은 전세계 1년 총생산보다 큰 액수이다. 그런데 앞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보았듯이 주택 가치가 더욱 하락하여 다른 모기지 상품에도 추가로 문제가 될 경우, 또는 다량의 회사채를 자산담보부 증권으로 유동화시켜온 초민족적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경우, 신용부도스왑은 연쇄 효과로 많은 헤지펀드와 보험회사를 파산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용부도스왑 상품을 거래했던 에이아이지(AIG)가 2009년 초에 파산하여 정

부 소유가 된 사례가 존재한다. 여러 파생상품 전문가들은 2차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신용부도스왑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8. 은폐된 자산 부실, 끝나지 않는 은행위기

앞에서 살펴본 파생금융상품으로 인한 자산 왜곡이 세계 경제 위기의 새로운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은행의 자산은 크게 과대평가되어 있고, 반대로 부채는 크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본격적으로 은행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표 2-4〉 주요 국가 은행들의 자본 확충 규모				
(단위: 십억달러)				
	미국	유로 사용국	영국	기타 유럽국가들
필요한 추가 투입 자본	500	725	250	225

*자료: IMF

위 표는 국제통화기금에서 예상하고 있는 은행에 추가 자본 투입 규모이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5,000억 달러(약 650조 원)이고, 유럽의 경우 1조 달러(약 1,200조 원)가 넘는 자본이 필요하다. 이 수치는 사실 의미 심장한 것인데, 특히 유럽이 그러하다. 씨티은행, 미국 은행(Bank of America) 등 미국의 주요 은행들에 대한 정부 자본 지원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있는데, 유럽 은행들의 위기는 사실 미국보다 더욱 심각하다. 한 국가에서 생산 가능한 자본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유로 화폐 사용 지역의 국내총생산은 2008년 약 13조 5천 8백 2십억 달러인데, 즉 국내총생산의 약 5% 가까이를 은행 자본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에 3% 수준이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 아래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를 잠시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은행들의 대차대조표는 제조업의 경우와 약간 다르다. 자산 항목에는 은행이 매입한 유가증권, 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 기업 및 개인에게 대출한 대출채권이 자리한다. 그리고 부채 항목에는 기업 및 개인이 예치한 예금, 타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이 자리한다. 한국의 우리 은행(2008년)의 예를 보자.

〈표 2-5〉 우리은행 대차대조표(2008년)

(단위: 십억원)

자산		부채와 자본	
현금 및 예치금	14,458	예금	139,360
유가증권	26,584	차입부채	51,292
대출채권	165,623	기타부채	25,473
기타	21,381	자본	11,921
자산총계	228,046	부채와 자본 총계	228,046

*자료: 금융감독원 경영공시 시스템, 단위: 십억원

은행은 예금자의 돈은 은행이 빌린 것으로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한다. 따라서 부채이다. 반대로 은행이 예금한 돈은 이자를 받는 것으로 자산이며, 또한 은행이 대출해 준 돈 역시 이자를 받고 후에 원금을 받는 자산이다. 크게 보면 은행의 자산은 대출이며, 부채는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은행의 가장 기본이 예금을 받아 대출하는 것이니만큼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 신용이 크게 확장되고, 더불어 각종 자산에 대한 유동화 증권이 늘어나면 은행의 기본 대차대조표가 변화한다. 위의 항목 중 자산에는 유가증권 액수가 크게 늘어나고, 부채에는 유동화 채권 발행 등으로 기타 부채가 크게 늘어난다. 초민족적 은행이자 광범위한 파생상품투자를 해온 씨티은행의 예를 보자.

〈표 2-6〉 씨티은행 대차대조표(2008년)

(단위: 십억달러)

자산		부채	
대출	665	예금	774
상품자산	378	차입부채	486
유기증권	184	증권발행	205
투자증권	256	상품부채	167
기타	455	기타	164
자산총계	1,938	자본	142
		부채외자본총계	1,938

*자료: Citibank, 단위: 십억 달러

초민족적 은행의 경우 주요 항목부터가 다소 달라지는데, 상품자산의 경우 각종 유동화증권부터 여러 금융 상품의 구입 또는 거래 수익과 관련되어 있는 항목이며, 투자증권의 경우 역시 증권 상품과 관련된 투자를 지칭한다. 부채 항목 역시 증권 발행, 상업부채 등이 파생상품의 판매 및 거래 손실과 관련된 항목이다.

우리 은행의 경우 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72%이며, 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된다. 은행 본연의 임무를 중심으로 대차대조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씨티은행의 경우 자산에서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4%, 부채 중 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 불과하다. 예금과 대출이 은행 업무의 주된 요소가 아니라 각종 금융 상품의 거래와 투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이런 은행을 겸업은행이라 하는데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들이 하는 금융투자 업무까지를 함께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지금까지 은행 업무가 제한되어 있었으나,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씨티은행과 같은 업무가 가능해졌다.

문제는 이러한 겸업은행들의 경우 금융 시장이 혼란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피해도 막대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예금자들의 예금까지도 모두 잃어버릴 정도로 손실을 크게 입는데, 다른 금융 기관과 달리 은행의 신뢰가 무너지면 흔히 뱅크런이라고 부르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비롯하여, 금융 시장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다.

● 자산 상각

특히 다양한 파생상품으로 인해 은행의 손실 정도조차 파악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현재의 은행들의 위기도 이러한 것이다. 앞의 파생상품에서 설명했듯이 각종 구조화 상품들은 위험도 위험이지만 그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특히 구조화증권의 최초 담보가 되는 자산이 부실해질 경우 그 파급 효과를 통해 상각되는 자산을 측정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른다. 아래 표는 국제통화기금이 예측한 2010년까지 은행들이 자산 상각(write-down)을 해야 하는 규모를 보여주는데, 이 또한 추측 결과일 뿐이다.

〈표 2-7〉 주요 국가 은행들의 자산 상각 규모 예측				
(단위: 십억달러)				
	미국	유로 사용국	영국	다른 유럽국가들
자산상각예측	550	750	200	125

*자료: IMF

자산 상각 규모는 미국이 5,500억 달러이고, 유로 사용국 은행들은 이보다 더 큰 7,500억 달러(약 900조 원) 규모이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유로 국가들에 있는 은행들의 자산 계정에서 900조 원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1부에서 보았지만, 이렇게 자산이 대규모로 상각되는 경우 자본잠식이 발생한다. 새로운 자본 투입이 없으면 은행이 파산하는 것이다.

다시 씨티은행의 사례를 보자. 씨티은행은 금융위기로 인한 파생상품거래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2008년 321억 달러(약 38조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위의 대차대조표에서 볼 수 있듯이 자산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은행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씨티은행은 2008년 10월 정부에서 500억 달러 규모의 자본 확충을 받고, 3,000억 달러 규모의 자산 보증을 받게 된다.

씨티은행이 자산 규모의 1.6%에 불과한 손실에 무너지게 된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씨티은행의 자산이 부실 자산, 즉 사실은 대규모 자산 상각이 필요한 자산이었다는 반증이다. 신용 검색이 정점을 향해 가던 2008년 하반기 다량의 부채담보부증권 등을 소유하고 있던 씨티은행은 장부상의 자산과 상관없이 폭탄을 짊어진 은행이 되었다. 즉 자산 매각을 통해 손실을 보충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이다.

씨티은행의 사례로 본 앞으로의 문제는 이제 유럽의 은행들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의 예측에 따르면 유비에스(UBS), 포르티스(Fortis) 등 유럽계 초대형 은행들의 자산 상각은 미국의 그것보다 더욱 크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유럽은행들의 경우 미국과 달리 구제하기에도 너무 큰 (Too big to rescue) 규모라는 것이다. 영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 6천억 유로 정도인데,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의 경우 자산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126%에 달한다. 또한 자산 규모 2위인 홍콩상하이은행의 경우 98%, 바클레이은행의 경우 94%에 이른다. 프랑스의 경우 파리국립은행(BNP Paribas)이 국내총생산의 104%, 네덜란드의 아이엔지생명(ING)은 국내총생산의 290%에 달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스위스의 UBS는 484%, 벨기에의 포르티스는 254%, 이태리의 유니크레딧은 180%에 달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자산 규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한국 역시 은행 위기가 진행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한국 은행들이 미국이나 유럽의 초대형 은행들

을 따라 자산담보부증권 등 유동화증권 투자에 본격적으로 나설 경우 위기는 한 순간에 확대될 수도 있다. 이미 우리은행은 2008년에 1조 3천 억원의 파생상품손실로 인해 1조 2천 억원의 정부 지원을 받은 경험도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이러한 손실의 규모를 수십배 확장할 것이다.

III

세계화의 끝

세계 화폐 달러의 위기

앞의 은행 위기에서 보았듯이 세계는 현재 파생금융상품들이 만들어 낸 부실 자산과의 전쟁을 치루고 있다. 자본을 조달하는 은행이 부실해지니 신용이 축소되고 제조업 기업들도 투자 보다는 미래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 확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은 노동자를 해고하고, 해고된 노동자는 소비를 줄인다. 아래 그림은 1929년 공황 당시와 현재의 세계 무역량을 비교해 놓은 것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위기로 인한 무역 축소는 공황 당시의 그것을 능가하고 있다. 세계가 그 어느 시절보다 하나로 묶여 있다는 세계화의 시대에 금융 위기로 시작한 위기는 세계 경제 자체를 빠르게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혼란이 세계 경제의 파국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핵심에는 달러 위기가 위치하고 있다. 갑자기 달러 위기라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이미 올 초에 환율 폭등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달러는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을 법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 강세는 금융이 만들어 놓은 세계화의 아이러니한 결과일 뿐이다. 이 번 세계 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미국인데, 미국의 화폐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매우 모순적인 일이다. 이 모순으로 인해 현재 세계 경제는 파국의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이 번 장에서는 환율, 국제수지, 국제투자표 등을 통해 미국이 신자유주의 속에 만들어 놓은 세계화의 비밀을 알아본다.

9. 환율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제거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 돈과 우리 돈의 교환이라는 문제가 뒤따르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나라 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환율이란 우리 돈과 외국 돈을 바꿀 때 적용되는 교환비율을 말하고 이 환율에 따라 국가 간 결제가 이루어진다.

환율은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을 통해 상대적 가치를 표현한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자국통화표시환율)은 상승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2,000원, 200엔 했던 M햄버거가 올해 일본에서는 그대로인데 한국에서는 2,500원으로 올랐다면 M 햄버거 가치를 기준으로 한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 진 것이다. 이 경우 환율은 작년 1000원 = 100엔에서, 올해 1,250원 = 100엔으로 오른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환율은 외국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외국 돈을 사려는 사람은 많은 데 팔려는 사람이 없으면 외국 돈의 가치는 오르고, 한국 돈의 가치는 내려가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좀 더 많은 변수들이 개입한다. 기대 환율, 나라별 이자율 차이, 중앙은행의 통화 공급 등이 대표적인 변수들이다.

먼저 현재의 환율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미래의 환율 수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외국의 A라는 펀드가 세 달 뒤의 한국의 경상수지가 큰 적자를 기록하고, 기준 금리는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하여(즉 한화 가치 하락, 환율 상승) 한국 원화를 매도하고 유로화를 매입할 경우 환율은 당장 하락하기 시작한다. 예상 환율이 현재 환율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종종 금융 투기자본이 이러한 성질을 환투기에 이용하기도 한다. 1990년대 남미와 동아시아가 대표적인 예들이다.

국내외 이자율 차이 역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국채 예상 수익률

이 미국 국채 예상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외국의 자본이 한국 국채를 사기 위해 들어오고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은 하락하게 된다. 주의할 점은 이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로 국내 물가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다.

환율 변동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가 낮아져 보통 수출량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원가가 10만원인 핸드폰(\$1 = ₩1,000)은 최소한 100달러에 수출할 수 있지만 환율 상승으로 1달러가 1,300원이 되면, 78달러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의 다른 핸드폰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강해져 수출이 늘어난다. 하지만 이 경우 수입 단가 역시 높아진다. 1달러, 1,000원 환율 시점에 한화 10만원으로 100달러짜리 양탄자를 수입할 수 있었는데, 만약 환율이 상승하여 1달러 1,300원이 되면 양탄자를 수입하기 위해 13만원이 필요하게 된다. 만약 그 수입품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수입량이 줄어들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원자재일 경우 생산품의 가격에 수입 단가 상승이 반영될 것이다.

참고로 환율은 외환거래 당사자에 따라 대고객환율과 은행거래에 적용하는 은행간환율로 나누어 진다. 보통 거시 지표에서 환율이라 하면 은행간환율을 의미한다. 대고객환율은 우리가 해외여행시 경험하는 것으로 외국환은행이 은행간 외국환 매매율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환율이다.

● 미국 발 경제위기와 달러 가치

보통 국가 차원의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국가의 통화 가치가 폭락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원화의 가치가 폭락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신용 경색을 막기 위해 정부가 통화 발행을 급격하게 늘릴 것이라는 예상으로 인해 기대 환율이 낮아지게 때문일 수도 있고, 그 국가 내에서의 여러 자산들의 가치가 낮아져 외국인들이 자산을 투매하고, 외환으로의 교환을 요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것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다. 미국 발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는데, 오히려 미국의 통화 가치, 즉 달러 가치가 오히려 급상승한 것이다. 아래 그림은 이러한 상황을 보여주는데 미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추락한 2008년 2분기부터 2009년 1분기까지 유로 당 달러가 크게 하락하였다(즉 1유로로 살 수 있는 달러가 1.6에서 1.3달러로 낮아졌다. 1달러의 값어치가 올랐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답은 간단한데, 세계 각국의 기업과 정부 등이 미국 발 경제 위기가 세계 위기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그나마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자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는 미국 국채와 통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 2-10〉 미국 달러 인덱스와 국채수익률 변화 추이



*자료: stockcharts.com

위 그림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과 달러 인덱스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가치를 유로, 파운드, 엔 등 몇 개 통화와 가중을 두

어 비교한 것으로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이다. 2008년 중반 이후 미국 국채 수익률이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해도 미국 국채를 사기 위한 달러에 대한 수요 역시 많아지게 되고, 달러 가치는 상승한다. 미국 경제 위기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 달러 가치가 오르는 역설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2009년 중반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 위기가 다소 진정되자 미국 국채 및 달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지며 국채수익률이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다소 낮아지기 시작했다.

● 미국 달러 가치와 중국

그렇다면 만약 달러 가치가 크게 하락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누구일까? 미국의 경우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의 골칫거리 중 하나인 무역적자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실제로 1980년대 중반에 일본과 인위적으로 달러-엔 가치를 조정하여 무역적자 해소를 도모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자신의 성장 전략을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 속에서 찾으며, 오히려 강한 달러 정책을 폈다. 무역 수출을 통한 벌이도 돈을 버는 방법이 지만, 반대로 무역 적자가 나더라도 흑자를 본 국가들이 미국에 돈을 투자하면 어차피 이리나 저리나 마찬가지로 되는 것이다. 미국 국내의 자산 가치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국이 2000년대 이후 가장 큰 적자를 보게 되고, 반대로 미국에 가장 큰 흑자를 기록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2008년 말까지 약 2조 달러가 넘는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국 국내 총생산의 40%가 넘는 액수이다. 그리고 중국은 2008년에도 대미 무역 흑자로 2,68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0년 이후 매년 큰 흑자를 기록 중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어떻게 했을까? 만약 중국이 무역으로 벌어들인 달러를 모두 시장에 내놓았다면 미국의 통화 가치는 하락했을 것이다.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다시 무역 적자가 감소하는 메카니즘을 흔히 균형이라고 칭한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우 좀 더 독특한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 중국이 미국 내 자산을 구매하면서 벌어들인 달러를 다시 미국에 투자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미국 중국의 달러 환류라고도 일컫는 이러한 미국의 무역 적자와 중국의 미국 증권 등에 대한 투자가 달러를 지탱하는 핵심 힘이 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은 약 8천 억 달러에 이르는 것을 비롯하여, 미국 주식 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중국의 미국 내 직접투자도 상당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 정부가 투명하게 밝히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없다.

● 날 뛰는 한국의 환율 변동

2008년부터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등락 폭이 큰 통화 중 하나는 한국 원화였다. 한국 원화의 환율은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6월 1,000원 이하로 떨어졌다. 2009년 2월에는 1,600원에 근접했다. 그 이전에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200원이 넘는 등락을 반복했는데, 원화 가치가 20% 가까이 절상 절하되기를 반복한 것이다.

〈그림 2-11〉 한국 환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이렇게 한국 원화의 통화 가치가 쉽게 변화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한국의 자본 시장 개방도가 높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3년 국제경제협력기구(OECD) 가입을 전후로 해서부터 1998년 국제통화기금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받던 시기까지 대부분의 자본 유출입과 관련한 규제를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자본 시장의 외국인 단기 자금부터, 투기적 목적의 직접투자(헐 값에 인수합병을 한 후 매각, 대표적으로 론스타)까지 다양한 외국인 자본들이 유입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외국인 자본들은 세계 경제 혹은 한국과 관계된 시장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다.

그 결과 한국 통화는 2008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평가 절하가 이루어진 통화 중 하나가 되었다. 2008년 평균 절상률을 살펴보면 한국 원 -15%, 영국 파운드 -8%, 인도 루피 -6% 등이 크게 하락한 통화들이며, 중국 위안 8%, 스위스 프랑 10%, 일본 엔 13% 등이 크게 가치가 상승한 통화들이다.

10. 국제수지

21세기 미국 경제를 지칭하는 표현 중 하나는 쌍둥이 적자이다. 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데, 미국은 1980년대 이후 1998년에서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쌍둥이 적자 상태에 있다. 그렇다면 2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계속하면서도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국제수지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보자.

● 국제수지표

국제수지는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한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이다. 외국과의 대외거래는 상품, 서비스, 소득, 이전 등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상거래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자본거래로 나뉜다.

경상거래를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및 경상이전수지의 4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진다. 주요 항목만 살펴보면 상품수지는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액을 말한다. 서비스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거래로 수취한 돈과 지급한 돈의 차이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상품을 나르고 외국으로부터 받은 운임, 외국관광객이 국내에서 쓴 돈, 무역대리점의 수출입 알선수수료 수취 등이 서비스수입이 된다. 소득수지는 거주자가 외국에 단기간(1년 이내) 머물면서 일한 대가로 받은 돈과 국내에 단기로 고용된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돈의 차이를 나타내는 급여 및 임금(피용자보수) 수지와 거주자가 외국에 투자하여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와 비거주자에게 국내투자 대가로 지급한 배당금·이자의 차이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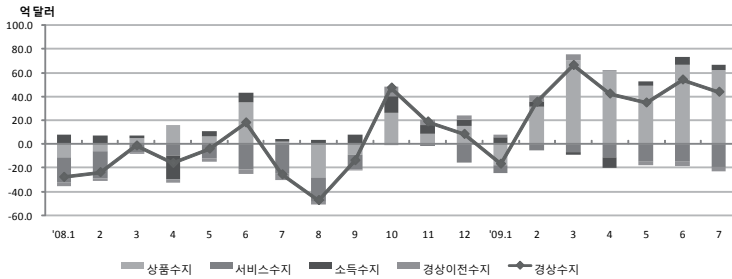
한편 자본수지는 민간기업, 금융기관, 정부 등이 외국으로부터 차입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리거나 이와는 반대로 외국에 신용공여 등의 방식으로 돈을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외화의 유출입차를 나타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에는 준비자산증감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는 거래적 요인에 의한 외환보유잔액 변동분을 뜻한다.

● 한국의 국제수지 - 무역 이득과 금융투기 손실

아래 그림은 2008년부터 2009년 7월까지의 한국의 경상수지추이를 보여준다. 한국 경제는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다, 2009년 2월부터는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중이다. 그런데 이 흑자는 우리가 수출을 잘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계속 침체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상품 수출은 2009년 7월까지 전년 동기에 비해 23% 줄어들었고, 수입은 이보다 더욱 크게 34% 줄어들었다. 수출을 위한 수출용 원자재 수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2-12〉 한국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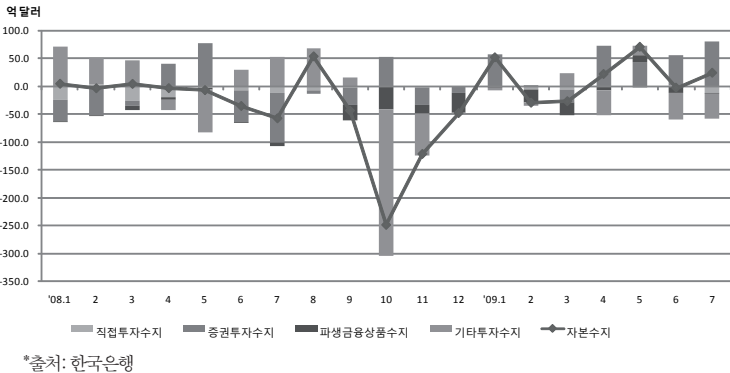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상수지 흑자가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출을 통해 큰 돈을 벌고 있는 것은 몇몇 재벌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인데, 삼성 LG와 같은 전자 회사들이 수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재벌은 크게 성공하고 있지만 국민 대부분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

이다. 이들 통계상으로는 재벌의 부가 국가적 부로 계산되어 국제수지에도 나타나지만, 사실 한국 내에서 보면 이들의 부가 국민들에게 배분되지는 않는다.

〈그림 2-13〉 한국 자본수지 추이



위 그림은 한국의 자본 수지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내내 자본 수지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본을 가져간 것이 한국이 외국에서 자본을 회수한 것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준비자산(또는 외환보유액)은 2007년 말 2,622억 달러에서 2008년 말 2,012억 달러까지 줄어든다.

특히 2008년 10월의 기타투자수지가 큰 적자를 기록한 것과 파생금융상품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작년 10월에 기타투자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은 외국금융기관들이 대규모로 차입금을 상환해 갔기 때문이었다. 외국금융기관들은 작년 10월에만 200억 달러(당시 환율로 30조 원 규모)를 회수해 갔다. 당시 한국은 두 번째 외환위기가 이야기 될 정도로 환율 폭등 및 경제성장을 하락에 고통받도 있을 무렵이었다. 파생상품금융상품 수지는 환율 등락으로 인하여 외환관련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던 국내 기

업들의 손해가 한 해 내내 발생한 것이다. 2008년 내내 문제가 된 1조 4천억 원 가량의 키코 관련 중소기업들의 손해, 지엠대우의 8천억 원 규모의 선물환 거래 손해, 우리은행의 외국과생상품 구매로 인한 1조 3천 억원 규모의 손해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 국제투자대조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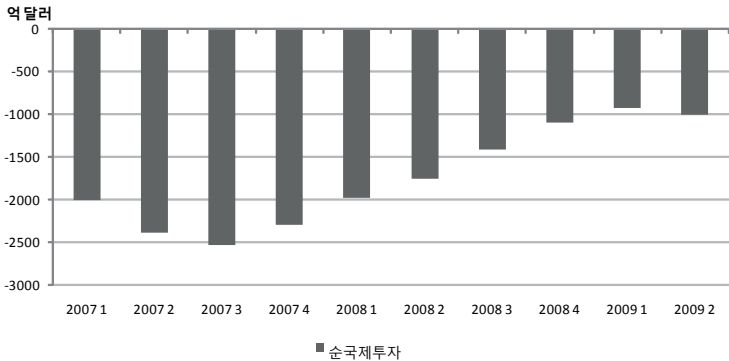
: 세계 5위의 외환보유국인데도 외환위기가 이야기되는 이유

국제수지표는 상품 서비스 등의 수출입이 현재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국제수지표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수출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외환을 보여하고 있는지, 앞으로 갚아야 할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외환 관련 잔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제투자대조표(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를 이용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국제수지표 중 투자수지와 포괄범위가 같으며, 대외투자잔액 및 외국인투자잔액, 그리고 그 변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주는 통계로 외환관련 대차대조표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제투자대조표를 들여다보면 세계적으로 5위 안에 드는 대규모 달러 보유에도 불구하고 왜 2008년 중반부터 외환위기가 심각하게 이야기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다.

국제투자대조표는 일반적인 대차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자산과 부채로 나뉜다. 자산은 국내인이 대외에 투자한 액수(화폐이거나 혹은 달러 등으로 평가된 자산)를 적고, 부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액수를 적는다. 여기서 주의 점은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한 것은 언젠가 돌려주어야 할 부채라는 점이다. 자산 항목에는 바로 현금으로 인출 가능한 외환인 준비자산, 다수의 지분 획득 또는 기업의 직접 운영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대외직접투자, 채권 및 주식에 대한 투자인 증권투자, 여러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 액을 의미하는 파생금융상품, 차입 대출 등의 기타투자 항목이 있다. 부채 항목에 역시 준비자산을 제

외한 나머지 것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순국제투자라고 부른다.

〈그림 2-14〉 한국 순국제투자



*자료: 한국은행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대부분이 외국인투자자가 대외투자보다 많은 부채국들이다. 한국 역시 순국제투자자가 마이너스인 부채국이다. 위의 그림을 보면 2007년 3분기에 우리나라의 순국제투자자는 -2,529억 달러로 국내총생산의 26% 수준에 달하였으나, 경제위기가 본격화 된 이후 2009년 2분기에는 -1,013억 달러로 절반으로 줄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회수해간 부분은 증권 투자로 주식 및 채권 시장에서 2007년 3분기부터 2009년 2분까지 1,612억 달러를 회수해 갔다. 외국인직접투자도 줄어서 같은 기간에 381억 달러를 회수했다. 외국인직접투자도 경영 관여에 대한 수준만 달리 할 뿐, 일종의 주식 투자로 간주한다면, 외국인들이 증권시장을 통해 회수해 간 돈은 약 2,000억 달러인 셈이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는 이 외화를 어떻게 조달했을까? 바로 한국이 이 2,000억 달러, 혹은 위기가 더 심해져 외국인자본이 절반 정도 철수한다면 약

4,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외화 부채를 갚을 수 있느냐 여부가 바로 외환위기 논란의 핵심이었다. 당시 국제수지 호조에 힘입어 외환이 꾸준히 유입(300억 달러)되었고, 준비자산 중 일부를 처분(600억 달러)하고, 미국과의 통화스왑(300억 달러), 정부 및 정부기관들의 외회표시 채권 발행 등 여러 정책 수단들을 동원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 닥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완전 개방된 자본 시장과 한국에서 활동하는 투기적 자본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며, 대부분의 위기가 그러하듯 위기의 폭과 넓이는 더욱 커질 것이다.

● 미국의 빛은 전세계가 갚아주어야 할 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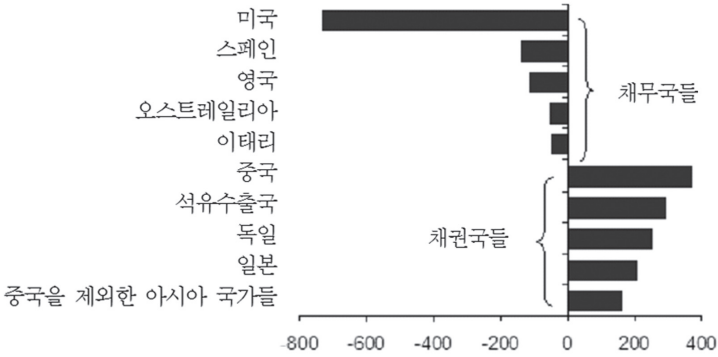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면 크게 문제가 생기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20여 년간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미국과 무역 거래에서 이득을 본 국가들이 그 이득을 미국의 자산에 투자하는 형태로 세계적 균형을 맞추어 왔기 때문이다. 아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 세계 빛의 대부분은 미국의 것이며, 이 빛은 중국, 석유수출국기들,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 자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빌려준 것이다. 미국은 2008년에 경상수지로만 6,9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 미국의 순국채투자는 2008년 말 -3조 5천억 달러(약 4,000조 원)로 미국 국내총생산 14조 4천억 달러의 24%에 달한다.

위 그림은 90년 이후의 미국의 대외투자와 외국인인 미국 내 투자, 그리고 순국채투자를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몰아닥친 80년대 후반부터 미국의 순국채투자 역시 변화하는데, 앞에서 이야기하였듯이 미국의 고 달러 정책에 의해 많은 경상수지 흑자국(90년대에는 대표적으로는 일본과 중동, 2000년대에는 중국)이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한다. 89년 대외투자, 외국인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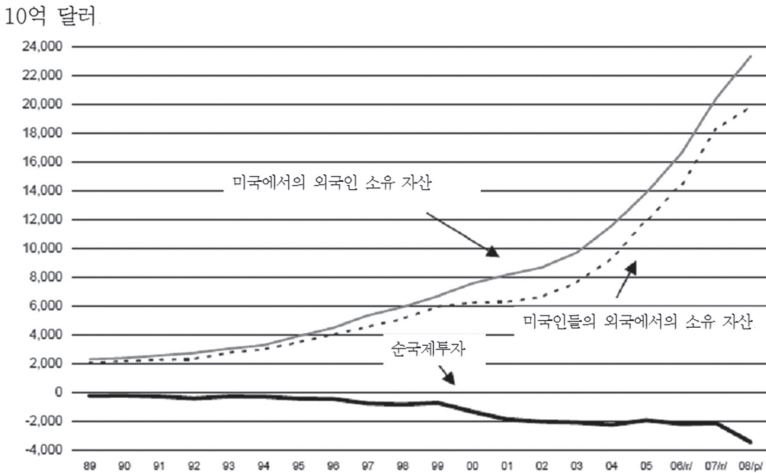
는 각각 2조 달러 규모였었는데, 20년만에 국제투자수준이 11배가 증가하였
다.

〈그림 2-15〉 세계 주요 채권국과 채무국 (2007년 국제수지, 십억 달러)



*출처: Voxeu

〈그림 2-16〉 미국의 순국제투자



*출처: 미국경제통계국

특히 미국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고, 중국의 WTO 가입을 시작으로 대미 투자가 천문학적 규모로 이루어지던 2003년 이후 5년간 14조 달러나 늘어난다. 주로 각종 금융 투자였던 미국의 해외투자 역시 2003년 이후 13조 달러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의 환류를 가능케 한 전세계적 투기 흐름은 2008년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의 대외투자는 2008년 오직 가격 변동에 의해서만 2조 달러 규모의 평가 손실을 기록했고, 외국인 투자 역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손실을 기록하였다. 달러의 환류는 이제 손실의 환류가 되어 전 세계 경제위기를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경제위기
돌보기

제조업과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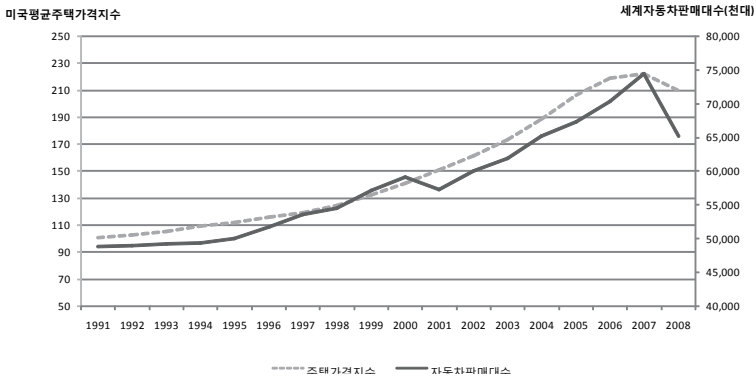
GM을 통해 본 금융화의 시작과 끝

2009년 6월 1일 지엠이 결국 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제출하였다. 지엠은 1908년 설립되어 1931년부터 2008년 초까지 세계 자동차 시장 1위의 자리를 지킨 자동차 산업의 상징이었다. 또한 지엠은 자동차 회사 그 이상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대기업의 생산 경영 방식, 초민족적 기업의 현대적 형태를 만든 것이 바로 지엠이기 때문이다. 1923년부터 1946년까지 지엠 회장을 역임한 알프레드 슬론은 생산에서 유통까지를 회사 내에서 통합하는 법인기업의 수직 통합, 여러 사업을 별도 회계로 관리하는 다사업부제, 생산 노동 관리만이 아니라 마케팅, 회계, 재무 관리 등을 아우르는 통합 경영 등을 만들어내며 현대적인 초민족적 법인 기업의 모태를 만들어 내었고, 미국 기업의 세계 재패를 이끌었다.

이러한 점에서 GM 파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한 기업의 파산 이상이다. 바로 20세기 자본주의의 몰락인 것이다.

1. 금융화와 GM의 흥망성쇠

〈그림 2-17〉 미국의 주택 가격과 세계자동차 판매 추이



*자료: JD-Power, 미국연방주택금융공사

지엠이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에 제출한 회생 계획(Restructuring Plan for Long Term Viability)은 스스로의 문제점 중 첫 번째로 지맥(GMAC)이라는 지엠의 금융 자회사를 지적했다. 지엠의 자동차할부금융을 담당하던 지맥이 부실화되면서 자동차 할부금융 서비스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자동차 판매가 급감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와 달리 사측도, 그리고 관리 당국도 지엠 부실과 관련하여 지적하는 첫 항은 노조가 아니라 금융회사이다.

지엠 자동차 판매의 80% 가까이에 대해 할부금융 대출을 해준던 지맥은 2008년 말 6%까지 그 비율이 하락했다. 할부금융을 동반한 자동차 구매 혹은 리스가 대다수인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할부금융의 중단은 사실상의 자동차 판매 중단과 같은 의미이다. 지엠이 다른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도 매출 감소가

더욱 큰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할부금융과 관련되어 있다.

〈표 2-8〉 지엠, 포드 자동차 판매 및 금융 부분 손익				
	2008		2007	
	GM	Ford	GM	Ford
자동차판매이익	-21.2	-11.8	-4.3	-5
금융서비스이익	-6.2 (GMAC 자본 손실)	-2.6	-1.2 (GMAC 자본 손실)	1.2
	-1.9		-0.7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GM, Ford

그렇다면 유독 다른 자동차 업체들과 달리 지엠의 할부금융서비스가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왜일까? 이는 지맥이 90년대 후반부터 벌였던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1919년에 설립되어 90년 동안 지엠의 할부금융을 담당하던 지맥은 1998년 주택 모기지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하며 모기지 사업에도 뛰어들었는데, 2006년 말부터 주택가격이 하락하며 지맥 전체가 부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지엠은 심지어 2006년 지맥을 이용하여 초민족적 사모펀드인 서버러스와 함께 크라이슬러를 인수하기 위한 금융 작전을 펼치기도 하며 갖가지 금융 투기를 벌였다.

예를 들면 지엠은 다음과 같이 장사를 한 것이다. 지맥을 통해 연봉 2000만 원인 노동자 A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서 1억 짜리 집을 사도록 한다. 그리고 그 노동자에게 앞으로 2년 후에는 그 집이 1억 5천 만원 정도로 상승할 것이니,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할부로 사도록 권유한다. 그래도 2천 만원이 남으니 노동자 A는 주택 모기지 이자, 자동차 할부금융 이자를 모두 공제해도 큰 이익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A는 아무런 비용 없이 자동차를 공짜로 얻고 이득까지 올리는 것이다! 물론 집 값이 상승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2006년 말부터 집 값이 하락하더니 2007년 말에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노동자 A는 자동차 할부

금융도, 주택 모기지 이자도 값을 도리가 없어졌고, 세계 48개 국에서 이러한 장사를 하던 지맥은 당연히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다.

지엠은 다른 자동차 업체들보다도 더욱 크게 금융 부분을 키워왔고, 그것이 2008년 금융 위기 과정에서 지엠 전체를 파산으로 몰고 간 것이다. 2004년 지엠의 총이익 360억 달러 중 80%인 290억 달러가 지맥을 통해 거둔 수익이었는데, 2006년부터 지맥은 지엠 순손실의 주범이 되기 시작했고, 2008년 중반에는 아예 할부금융을 거의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맥은 2008년 12월 파산하여, 정부 구제금융을 통해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지맥은 지금도 미국 내 3-4위를 다투는 부실 은행으로 남아있다.

요컨대 현 지엠 파산의 주범은 노조가 아니라 지엠 자본 스스로가 만들어 낸 금융 투기였으며, 이 부실을 전세계 노동자들이 해고와 임금 삭감을 통해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 전미자동차노조의 실수

이 과정에서 전미자동차노조는 어떠한 역할을 했을까? 한국언론들은 200억 달러에 달하는 전미자동차노조의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의 엄청난 금액을 예로 들며 강성노조가 회사에 큰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정반대이다. 전미자동차노조는 90년대 후반부터 회사의 해외공장 건설과 인원감축에 동의하며 약간의 떡고물을 받아 냈을 뿐이고, 그나마 이 약간의 이익도 2009년 회사 회생안에 합의하면서 대부분 뱉어내야 할 형편에 내몰렸다.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은 2007년 자동차업체들의 퇴직자건강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미자동차노조가 교육지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기존에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던 퇴직자건강보험료를 자동차 업체가 출연하고 전미

자동차노조가 관리하는 기금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지엠의 경우 이러한 단체 협상에 따라 2007년 연 46억 달러에 달하던 퇴직자 건강보험부담금이 2010년 연 2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대로 전미자동차노조의 경우 기금 운영에 대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다. 다시 말해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은 사측의 비용 감소 계획이었지 노동자가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미국에서 이러한 퇴직 이후의 건강보험에 대한 요구는 임금 인상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퇴직자건강보험에 대한 단체협상을 제1과제로 생각할 정도였는데, 전국민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퇴직은 곧바로 건강보험의 해지였고, 병원 이용비가 매우 비싸 보험 없이 산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 건강보험과 관련한 요구가 중요한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전미자동차노조가 이러한 대가로 신규 취업자에 대해 임금 삭감과 대규모 정리해고를 합의해 왔다는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는 2003년 단체협상에서 최소고용수준(BMM)을 대폭 단축하며 약 8,9000 여명에 대한 해고는 물론 생산 공정의 외주화 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합의하였다. 심지어 2007년 단체협상에서는 30만에 달하는 인원감축과 신규 취업자(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삭감, 2010년 이후부터는 신규 취업자에 대해 업계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들의 경우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의 수혜 대상도 아님은 물론이다.

전미자동차노조는 미국 전체 노동자는 고사하고, 동종 업계에서도 비조합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만 고용, 임금, 복지에 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2002년 기준으로 지엠의 평균 조합원 연령은 50세에 육박했고, 85년 3,200명에 달하던 신규 조합원은 92년 191명, 2002년 375명 수준으로 하락했다. 80년 150만에 달하던 조합원은 2008년 40만 수준으로 폭락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합원만의 실리를 챙겨온 전미자동차노조는 과연 실제로 이득을 보았을까? 현재 전미자동차노조는 2008년 경제 위기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자건강보험과 거래된 100만 가까운 퇴직자의 건강보험기금 200억 달러는, 현재 110억 달러는 지엠 지분(보통주)으로, 65억 달러는 우선주로, 25억 달러는 채권으로 회사에 묶여 버렸다.

25억 달러의 채권을 제외하면 190억 달러는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지엠과 함께 휴지 조각으로 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금 유지를 위해 이자 수입 혹은 배당(우선주 배당률 9%)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사측의 추가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다. 정리해고를 받아들이면 건강보험 수혜자가 늘어 기금이 문제가 생기고, 정리해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자와 배당도 챙길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전미자동차노조의 실리주의는 이렇게 2009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사슬이 되었다.

2. 다시 시작된 투기

: 자동차 기업들의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

크라이슬러가 피아트에 매각되고, 지엠(구 지엠의 이름은 General Motors Corporation)이 뉴 지엠(정식 이름은 General Motors Company)으로 출범하며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기업들의 위기가 진정된 듯 보인다. 특히 7월 이후 약간의 생산 반등도 이루어지며, 이제 위기가 끝나고 회복기로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동차 기업의 노동자들은 고용 안정과 안정적인 임금 인상을 이룰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자동차 기업의 노동자들은 비교적 큰 수준의 정리 해고를 더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드러난 자본주의의 구조적 한계는 자본이 노동과 타협할 여지를 더욱 좁혀 놓았다. 노동조합이 이 정리해고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리해고 반대 투쟁과 더불어 국제적인 자본 이동을 제약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할 것이다.

● 앞으로의 세계경제

: 미국의 은행 위기, 달러 위기 가능성과 더블딥

대표적인 내구 소비재인 자동차 산업은 그 어떤 생산물보다 경기에 민감하다. 80년대 이후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경제성장률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경제성장 수준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한다. 따라서 자동차 산업의 앞날을 따져보는 것은 세계 경제의 앞날을 따져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물론 기후변화 등에 따른 환경 문제, 정부의 자동차 소비 보조금 등 산업 내부적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장 큰 변수는 세계 경제의 성장 여부다.

최근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 출구전략이라 부르는 신용 축소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제경제연구소의 여러 연구원

들이나 루비니 같은 주류 경제학자들은 오히려 더블딥(약간의 경기 반등 후 더 큰 경기 하락)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은 1929년 시작된 대공황 시절에도 1932년의 반등 이후 1933년 대폭락을 겪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킨다. 국제경제연구소의 존슨 등은 정부가 막대한 구제금융을 금융 기관에 쏟아 부었지만, 현 금융 위기가 초래된 금융 시스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결국 은행으로 변신한 골드만삭스나 모건스탠리 같은 금융 기관들이 이전의 금융 투기를 계속할 경우 이번에는 은행 전반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루비니 등은 이번 금융 위기로 미국의 부채인 국공채의 발행액이 국민소득의 80% 수준까지 상승하는 반면, 미국의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2006년 7월 대비 4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며, 달러 가치의 폭락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달러 가치의 폭락은 지금까지 미국이 달러 발행을 통해 누려왔던 특권적 지위가 손실된다는 것이며,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 자동차 시장

: 여전히 추락 중인 자동차 판매와 중국 시장에 의존하는 구조적 불안정성
 일부에서는 자동차 시장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현재의 반등은 회복이라기보다는 추락에 가까웠던 2008년 자동차 판매 감소에 대한 기저 효과에 가까워 보인다. 여전히 세계 자동차 판매는 2009년 1~7월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32% 감소하였고, 2007년 동기 대비로는 38% 감소한 상태이다. 한국 자동차 기업들 역시 2009년 1~7월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수준이며, 2007년에 비해서는 23% 감소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정도의 유지도 세계 각국에서 진행할 수 십조 원의 소비 지원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자동차 기업들의 위기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생산 감소 수준마저도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에만 의존하

고 있다는 점은 더욱 큰 문제다. 2009년 1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미국을 앞지른 중국은 2009년 6월 현재 월 판매대수가 87.3만 대로 미국과 일본을 합한 것보다도 많으며, 2009년 판매가 전년 상반기보다 18% 늘어났을 정도로 고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세계적으로 21% 판매가 감소한 것에 비추어보면 매우 큰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성장은 중국 경제의 기초 조건이 크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 경기 부양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중국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2010년까지 4조 위안(2,928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였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량 구매세 인하, 농어촌 소형차 구매 및 폐차 보조금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국정부의 보조금 정책이 중단되는 순간, 세계 자동차 시장 자체가 크게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기업들의 구조조정

: 다시 시작된 금융 투기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인 세계 자동차 시장 상황 속에서 세계 자동차 기업 위기의 상징이었던 지엠은 미국정부, 캐나다 정부의 구제금융과 전미자동차노조(UAW) 퇴직자건강보험기금(VEBA)의 출자전환으로 뉴 지엠으로 재출범하였다. 뉴 지엠은 지엠의 건전 자산(지엠씨, 시보레, 캐딜락 등)만을 인수하여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실 자산은 자동차청산회사(Motors Liquidation Company, 구 지엠)에 남겨두어 매각 혹은 청산해 나가고 있다.

뉴 지엠은 시보레 볼트로 명명된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을 출시하며 2010년부터 재도약을 할 계획이지만, 실재 뉴 지엠이 신차 개발 판매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재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무엇보다 지엠이 포드나 폭스바겐 등에 비해 심각하게 부실화된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엠이 다른 자동차 기업에 비해 더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원인 중

첫 번째는 지엠의 금융 부분인 지맥(GMAC)의 붕괴였는데, 지맥은 여전히 미국의 5대 부실 금융 기관 중 하나로 남아있다(지맥은 2009년 초에 은행으로 전환되었다). 지엠의 할부금융을 담당하던 지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할부금융을 통한 자동차 구매가 일반적인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엠은 최근 사모펀드 등을 동원하여 자신의 재건을 도모해 보려는 위험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오펠 매각을 둘러싸고, 지엠이 유럽에서 활동하는 알에이치제이 인터내셔널(RHJ International)이라는 미국계 사모펀드를 끌어들인 것이다. 원래 지엠은 파산 이후 지엠 유럽 법인의 핵심 기업인 오펠을 매그나-러시아연방예금은행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것으로 독일 정부, 노동조합 등과 논의를 마쳐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갑자기 매그나 쪽과 매각 협상을 일시 중지하며, 미국계 사모펀드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이유는 매그나 컨소시엄에 오펠을 매각할 경우 자동차 핵심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에 대해 독일 정부와 이게 메탈(IG Metall)노조는 크게 반대하고 있다. 독일정부는 매각을 전제로 이미 21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원하였고, 앞으로도 4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인데 이미 투기적 행태로 전세계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의 오펠 인수를 반가워 할리 없다. 더군다나 직간접적으로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달린 오펠 처리에 있어 9월 말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도 없다. 이게(IG) 메탈은 매그나 측과 고용 보장에 관한 협의까지 진행했고, 고용 불안 및 재매각 가능성이 큰 미국계 금융자본의 인수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로 지엠은 이미 2006~7년에 초국적 사모펀드를 끌어들여 20세기 가장 큰 사기극을 벌이려 한 전력이 있다. 지엠은 초국적 사모펀드인 서버러스를 통해 크라이슬러를 합병시키려는 시도를 한 바 있었다. 지엠이 서버러스에 지맥을

넘기고, 서버리스가 크라이슬러 주식을 매입하여 인수한 후 다운사이징하여 지맥 자산과 합한 후 다시 지엠에 되판다는 계획이었다. 금융 위기로 이 계획은 결국 실패했다. 지엠은 자신의 파산이 목전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금융투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엠 내부에서는 아예 오펔의 파산까지 염두해 둔 계획까지 생각해 두고 있었다고 한다. 오펔은 독일 이외에도 영국(복스홀이라는 이름으로 판매 중)에서 4천 7백여 명, 스페인에서 7천 여 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조립 공장을 운영 중인데, 독일 정부가 지엠에 비협조적일 경우 파산협박을 통해 이들 국가들에게서도 구제금융을 받아내겠다는 속셈이었던 것이다. 독일 정부와 지엠이 11월까지 매각 관련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현재 오펔은 부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스포츠자동차 업체 포르쉐가 지난해 3월 폭스바겐을 인수하겠다고 선언하며 주가 조작에 나선 것은 좀 더 극단적인 투기 사례다. 2005년부터 폭스바겐 주식을 사들인 포르쉐는 2008년 경제 위기 국면에서 폭스바겐을 합병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는데, 사실 포르쉐가 노린 것은 포르쉐와 폭스바겐의 주가 상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르쉐는 2008년 폭스바겐 주식 거래로만 68억 유로(약 10조 8천억 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주식 시장 거품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온 공매도(주식을 빌려서 팔고, 만기 전에 주식을 되갚으며 주가 변동에 따른 차익을 실현)가 적극 사용되었다. 포르쉐의 경영진은 2008년 초에 헤지펀드들에 주식을 빌려주며, 2008년 3월 경에 자신들이 폭스바겐을 인수할 것이라는 정보를 흘렸다. 헤지펀드들은 주가가 크게 오른 3월부터 10월까지 폭스바겐 전체 주식의 12% 가까운 물량을 공매도 하았는데, 이 때 포르쉐가 자신들의 스톱옵션 전환 시 폭스바겐의 지분이 75%라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 경우 헤지펀드들이 되갚아야 할 12%의 주식이 시장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주정부가 소유한 20%의 지분은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 헤지펀드들

은 사황을 걸고 주식매입에 나서고, 주기는 폭스바겐의 실적 저하 속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이 과정에서 세계 94위 갑부인 메클레의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시장안정을 명분으로 포르쉐의 경영진은 주식을 매도하였고, 그 차익으로 밝혀진 것만 10조 8천억 원이다. 포르쉐는 주식 매매 차익을 실현한 이후 2009년 5월 폭스바겐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고, 7월에 폭스바겐이 역으로 포르쉐 인수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현재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 자동차 시장은 여전히 금융 투기적 행태가 만연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전기 자동차 등의 녹색 자동차 생산이 시장을 재조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금융 투기들과 정부에 대한 지원 협박이 시장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다.

● 전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의 해고

: 비정규직 우선, 해외공장 우선

이러한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노동자 해고 역시 계속되고 있다. 지엠의 경우 생산직을 연내 40,500명 수준까지 감축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2009년 2월에 제출된 46,300명보다 더욱 줄어든 것이다. 2008년 말 62,403명에 달하던 생산직 노동자들은 파산 이후 현재 2009년 8월 초까지 1만 4천여 명이 희망퇴직(buyout)하여 현재 4만 8천여 명이 근무 중인데, 사측은 앞으로 7,500명에 대한 추가 해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GM의 생산이 최대를 달리던 2004년, 11만 8천여 명에서 2009년 현재까지 약 7만여 명이 해고된 것으로, 2004년 기준으로 60%가 넘게 해고된 것이다.

크라이슬러 역시 사무직 5,000명, 생산직 4,80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포드는 사무직 3,000여 명만 해고할 계획이다. 자국의 정규직에 대한 종신고용으로 유명한 도요타의 경우 일본 내의 정규직을 제외하고는 큰 폭의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일본 공장서 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을 계약해지한

것은 물론, 미국 샌 안토니오 공장에서 2,000명을 해고했고, 심지어 프리몬트 공장은 아예 폐쇄 조치하며 4,500여 노동자를 해고했다. 혼다나 닛산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공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인력 조정을 시행하고 있다.

〈표2-9〉 세계 자동차기업들 정리하고 현황

업체명	현황	쟁점
GM (북미)	생산직 21,500명 해고. 사무직 3,000여명 해고	VEBA 100%출자전환 2004년부터 약7만여 명 감원
Ford (북미)	사무직3,000여명해고.	VEBA 50%출자전환, 6년간 임금 동결, 15년간 무쟁의, 퇴직금삭감 2005년부터 약 6만명 감원
Chrysler	사무직 5,000명 해고, 2010년까지 4,800여 생산 직 해고	VEBA 100% 출자전환
Toyota	(일본)비정규직5,000여명계약해지 (미국)샌안토니오2,000여명인원감축, 프리몬트 공 장 폐쇄 4,500명 해고	휴업 일수 확대로 정규직은 고용 보장
Honda	(일본)비정규직3,100여명계약해지 (영국)4000명, 2개월전액유급휴직, 나머지기간60% 유급순환휴직 (미국)임시계약직700명해고	
Nissan	(일본)계약직500여명해고 (스페인)581명해고	연말까지 20,000명 감원 계획
Volkswagen	(독일)임시계약직16,500해고 멕시코공장에서1,050명해고계획	정규직은 해고 없음. 주 35시간 일하고, 생산량에 따라 28시간까지 줄여나갈 수 있음
BMW	(독일)26,000명유급순환휴직 (영국)소형차생산공장에서850명해고	
Volvo (Ford)	(스웨덴)1,543명해고 2009년말까지전체기업에서16,255명감원계획	
Fiat	48,000 노동자 유급순환휴직	이탈리아 내 2~3개 공장 폐쇄를 노조와 협의 중
Renaut	연말까지 9,000명 인원감축	절반 프랑스, 나머지는 해외공장

*자료: 각국 언론 종합, 2009.9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로 유명한 폭스바겐의 경우 정규직의 경우 주 노동시간을 28시간까지 단축하며 고용을 보장하고 있으나, 비정규직과 해외공장의 경우 큰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 계약직 16,500

명을 계약해지하였고, 멕시코 공장에서는 1,05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프랑스 르노는 프랑스에서 2,000여명, 해외에서 2,000여명을 해고할 계획이며, 독일 베엠베(BMW)는 영국 공장에서 850명을 해고하였다.

자동차 기업들의 정리해고 특징은 첫 번째, 비정규직을 우선 해고한다는 것이다. 임시계약직, 파견근로직 노동자들부터 해고하는 것에는 세계 모든 국가가 똑같다. 영미보다 고용문제에 좀 더 엄격하다는 유럽의 기업들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두 번째 특징은 유럽과 일본의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해외공장에서 적극적으 인력 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도요타, 폭스바겐 등 자국 내 정규직 보호에 세계적 명성을 날린 기업들의 경우 해외 공장 인력 감축에 더욱 적극적이다. 도요타의 경우 정부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공장 폐쇄도 불사하고 있으며, 폭스바겐은 100% 초저임금 비정규직만 존재한다는 멕시코 공장에서도 대량 계약해지를 단행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인력 조정에 더욱 적극적인 이유는 정부의 제조업 기업들의 고용유지 혹은 판매 증가를 위한 각종 보조금 정책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기업들의 경우 현재의 해고가 2000년대 중반부터 진행된 인력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엠은 이미 2004년부터 7만여 명의 인력을, 포드는 2005년부터 6만여 명의 인력을 감축해왔다. 미국 내 고용 인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의 인력 조정을 이미 진행해왔던 것이다. 미국 기업들의 이러한 인력 구조조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해외 공장 건설 붐과 관련이 있다. 지엠은 지엠대우를 비롯하여 남미, 동아시아에 다수의 공장을 건설 혹은 증설했으며, 포드 역시 중국 내 대규모 공장 증설을 비롯하여 태국, 필리핀 등 동아시아와 브라질 멕시코 등 남미에 많은 공장을 신증설하였다. 이미 지엠과 포드의 경우 미국 내 생산보다 해외생산 비중이 더 높았던 상황이었다.

● 노동조합의 대응

각국의 노동조합은 대규모 해고 사태에 대해 여러 수준에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 크게 보면 미국자동차노조와 같은 백기투항형 양보교섭에서부터, 독일 금속노조 식의 선거 등을 매개로 한 대정부압박 방식, 그리고 한국 쌍용차와 더불어 이탈리아 금속노조와 같은 정규직 및 비정규직 고용 보장을 위한 파업 및 가두 시위 방식 등이 있다.

전미자동차노조는 지엠, 크라이슬러 파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속에서 사실상 노동조합으로서의 투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다. 우선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 투쟁으로 쟁취한 전미자동차노조의 최대 성과물인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은 사실상 그 유지가 불투명하게 되었다.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없는 미국에서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은 퇴직자가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 차원의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사측이 납부하기로 한 자본(기업의 기금에 대한 부채) 대부분이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며, 현재 기금 자체가 운영될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퇴직자건강보험기금은 현재 지엠의 17.5%, 크라이슬러의 55%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포드 역시 포드 분담금의 50%를 매년 주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사실 전미자동차노조의 이러한 지분 참여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1990년대 미제철노동자연합(the United Steelworkers)이 알고마 제철(Algoma Steel)에 자신들의 임금 삭감분을 주식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었는데, 알고마 제철이 이후 법정관리, 무상감자 등을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의 주식은 모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미국항공사(United Air Lines) 노조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항공사 노조는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등으로 약 55%에 가까운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후 법정관리를 거치며 이 지분은 모두 소각되었다. 즉 지엠, 포드, 크라이슬러가 다시 부실화되어 법정관리 혹은 기타 자본재조정 과정을 거칠 경우 퇴직자건강보험기금 역시 파산하게 된다.

이밖에도 전미자동차노조는 포드와의 협상에서 고용안정을 대가로 6년간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물론 15년간 무쟁의를 약속하였다.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미자동차노조의 무력한 모습은 전미자동차노조의 유일한 도요타 사업장인 프리몬트에서 4,500명의 해고자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투쟁을 조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경우 폭스바겐, 벤투 등과 4% 임금인상에 합의한 이후 현재 퇴직자에 대한 지원 및 노동조합 교육 지원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또한 현 기민당 정부에 오펔에 구제금융을 지원할 것을 비롯하여 독일 내 고용 유지에 의지가 있는 매수자와 우선 협상할 것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9월 말 총산을 앞두고 사민당(SPD)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며 현 정부(기민당)와 야당(사민당) 모두에 고용 및 노동조건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경쟁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약 2백4십만 조합원을 거느린 이 게메탈은 독일 내 최대 산별 노조로 역사적으로 사민당을 계속 지지해 왔었다.

2008년 말에 이탈리아노총을 비롯한 제 노조들은 임금보장기금(CIG)의 확대를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킨 바 있는데, 임금보장기금의 확대로 인해 무급휴직 및 단기근로 노동자들의 97%가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피아트는 임금보장기금을 가장 많이 활용했는데, 2008년 12월 중순부터 2009년 1월 중순까지 58,000여 명의 전노동자가 휴직한데 이어 2009년 7월까지 6차례 이상의 휴직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금보장기금 지급액은 2007년 대비 526%까지 상승하였고, 이 외에도 여러 지방정부가 피아트를 지원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피아트는 국내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을 하고 있다. 이에 이탈리아노총(CGIL)의 금속노조(Fiom-Cgil)는 피아트의 공장 폐쇄 계획 및 크라이슬러 인수 이후의 국내 생산 물량 조정 등에 관해 교섭을 진행 중이다. 남부지방의 두 공장 폐쇄 계획에 대해서는 파업과 거리 봉쇄 투쟁을 이미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피아트 사측에서 토요일 연장

근무 방침을 금속노조와 협약 없이 밀어 붙이고 있는 것에 항의하여 8월 29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금속노조는 피아트 측이 이미 수많은 임시직을 해고한 상황에서 신규 물량에 따라 신규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근무 시간을 늘리는 것은 크라이슬러와 합병 이후 더 큰 해고를 준비하기 위해서라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는 피아트가 금속노조와 직접 교섭하지 않고 각 공장 별로 이러한 특근을 몇몇 노조들과 협의하여 마구잡이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노조 파괴 책동이라며 총력을 다해 투쟁할 계획이다.

IV

고용위기의 확산

삶의 불안전성

2008년 4분기 3.1%였던 실업률이 2009년 1분기 3.8%로 급증한다. 1분기 실업률이 통상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도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인데, 2009년 2분기에도 실업률은 3.8%를 유지한다. 전 세계에 불어닥친 경제위기가 고용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경제 정책에 있어 국민 전체의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은 주요한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서는 이리저리한 경제정책이 실제 국민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좀 전에 예를 들었듯이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전체 노동자의 삶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고용과 임금(소득) 지표를 통상 노동통계라고도 하는데, 이 노동통계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자.

11.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은 기술 편향적이어서, 기계설비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노동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경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발전이 노동인구 전체를 지속적으로 늘리기는 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경향보다도 전체 산업에서 노동력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노동인구는 항상 과잉되어 노동자들이 쉽게 실업자로 내몰리는 상황이 반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축적은 확대되는데도 고용은 항상 불안정하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이런 경향은 더욱 가속하는데 자본축적 자체가 정체되는데다 경제위기로 인한 손실을 인원감축, 임금삭감 형태로 보존하려 하기 때문이다.

고용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통계청이 매월 작성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수, 실업자수 등을 계측하면서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정리한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인구란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인 자로 군복무자 및 교도소 수감자는 제외된다) 중 조사대상기간—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중 1시간 이상 일을 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가리킨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나뉘는데, 취업자는 조사대상기간—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중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뜻하며 실업자는 취업은 못했으나 이 기간 중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뜻한다. OECD 나라들은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정의하는데, 이를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 6월부터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했고, 2005년 6월부터는 이를 공식통계로 삼는다.

취업자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

로 구분된다. 자영업주는 자영업자와 고용주 모두를 포함하며, 무급가족종사자는 자기자기가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를 위해 18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하는데 여기에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이 포함된다.

한편 비경제활동인구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에는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등이 포함된다. 구직단념자란 실업자와 다르게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구직 경험이 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상 분류기준에 따라 200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0>과 같다.

〈표 2-10〉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8년)									
(단위: 천명)									
생산가능인구(15세이상 인구)									
39,598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24,347				15,251					
취업자 (23,577)			실업자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육아 및 가사	학생	연로자 및 심신장애자	기타
임금근로자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16,206	5,970	1,401	769	1,352	364	6,963	4,262	1,955	356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참가율은 생산가능인구대비 경제활동인구이며, 고용률 역시 생산가능인구대비 취업자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자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분모가 다른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은 2008년 통계값이다.

$$\text{경제활동참가율(\%)} = \frac{\text{경제활동인구}}{\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quad [2008\text{년 기준, } 61.5\%]$$

$$\text{고용률(\%)} = \frac{\text{취업자}}{\text{생산가능인구}} \times 100 \quad [2008\text{년 기준, } 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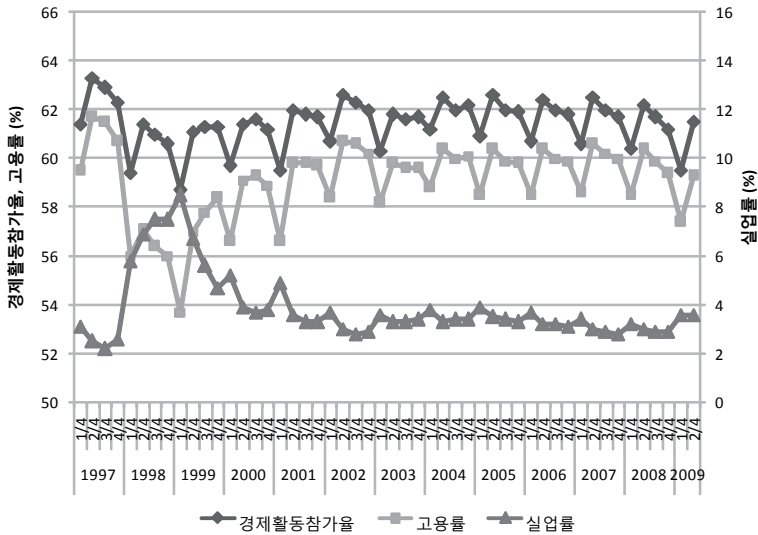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quad [2008\text{년 기준, } 3.2\%]$$

〈고용지표 추세 살펴보기〉

고용 관련 지표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실업률이다. 실업률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을 보여주는데, 보통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실업률이 줄어들고, 반대로 주춤하거나 정체되면 실업률은 조금씩 늘어난다. 경제성장이 감소하면 실업률은 당연히 크게 늘어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실업률과 반대방향으로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늘어나고, 반대로 주춤하거나 정체되면 조금씩 감소한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면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2-18〉은 1997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실업률의 분기별 변동 추이다. 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1997년~1998년 고용지표가 급격히 악화(실업률 상승, 고용률 하락)되었다가, 1999년부터 회복(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2008년부터 고용관련 지표들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그림 2-18〉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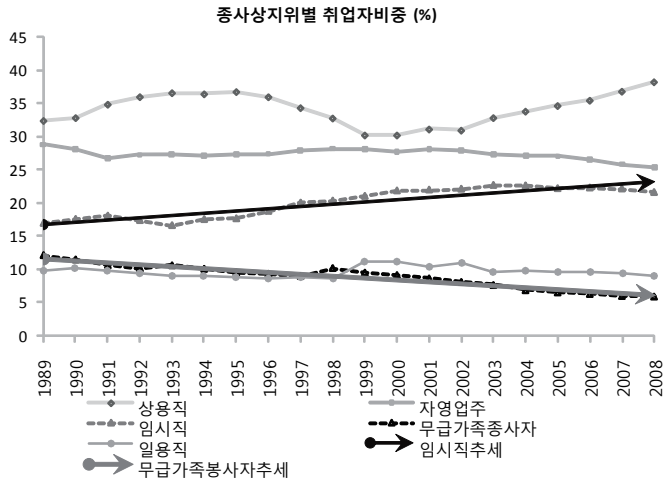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이렇게 시계열을 길게 볼수록 경제상황과 고용의 상관관계, 그리고 고용의 세부적인 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를 잘 분석하면 몇 가지 의미 있는 지표들을 얻을 수 있다.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통계청이 조사하는 종사상지위별로 각각 취업자대비 비중을 구해서 최근 20여년 간의 추세를 살펴보자.

〈그림 2-19〉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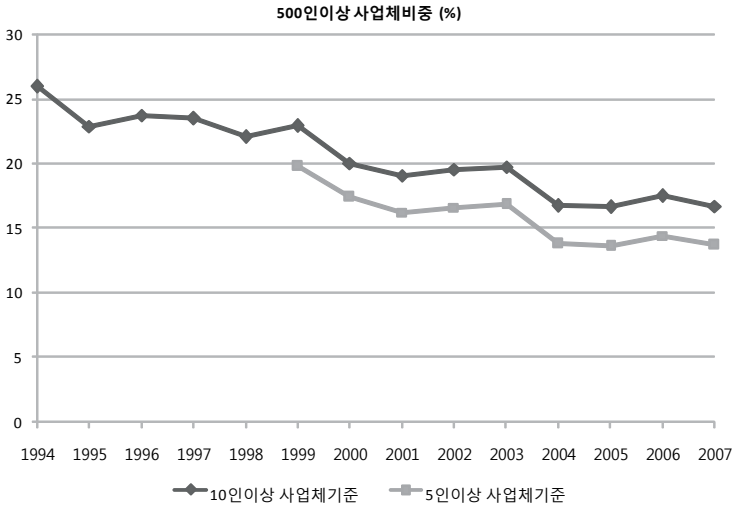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그림 2-19〉를 살펴보면 눈에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추세선이 가리키는 대로 취업자 내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줄어들고 그만큼 임시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이다.

지난 20년 동안 상용직 규모는 커다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34%를 전후로 진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주 역시 조금씩이나마 감소하고 있는데, 임금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부분 상쇄된다. 따라서 1990년대 이래 임시직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는 자영업주 일부, 무급가족종사자 상당수(무급가족종사자 중 8~90%는 여성)가 임시직에 종사한 것에서 기인한다 볼 수 있다. 이렇게 노동관련 통계를 가공하여 시계열을 길게 보면 유의미한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500인 이상 사업체에서의 고용이 전체 고용인구 비중에서 얼마나 차지하는지도 살펴보자.

〈그림 2-20〉 500인 이상 사업체 비중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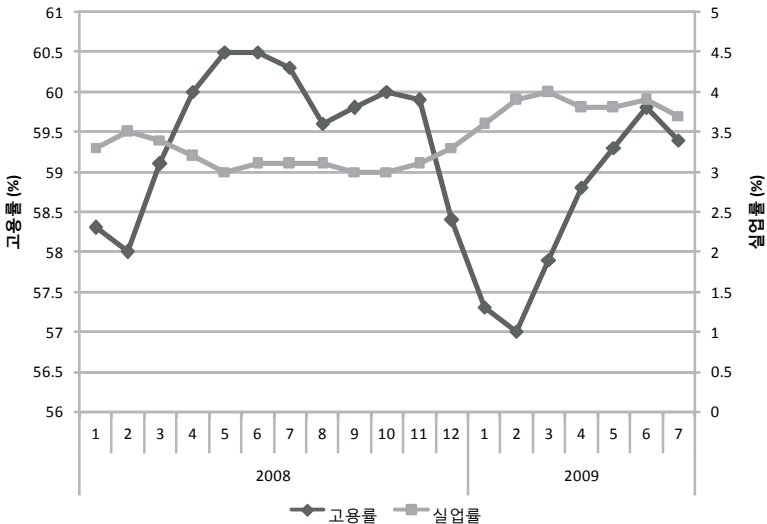
〈그림 2-20〉을 보면 500인 이상 사업체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2000년부터는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접 고용 비중이 전체에서 20%도 안된다. 1980년대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조정, 아웃소싱, (외주화) 하청계열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왔는데, 5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비중이 하락한 것은 그 결과다.

12. 경제위기 시대 고용지표

실업률통계에서 실업자는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 구직활동을 한 사람을 실업자로 분류한다. 구직단념자나 취업준비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따라서 많은 노동자들이 체감하는 실업률(체감실업률)과 통계상의 실업률에는 간극이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대로 고용률은 생산가능인구가 분모이기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가 반영되게 된다. 따라서 실업률의 이런 단점을 일정하게 보완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고용률 통계를 활용한다. 비경제활동인구를 반영하는 통계값(고용률)과 그렇지 못한 통계값(실업률)에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2009년 초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에서의 변화추이를 보면서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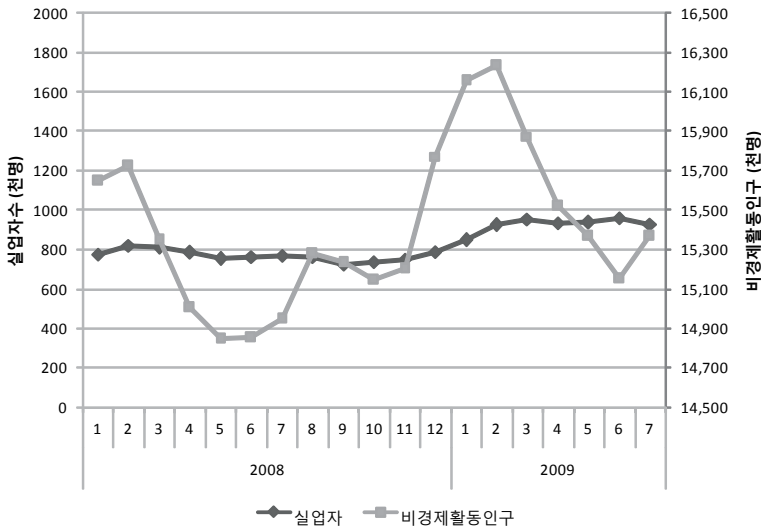
〈그림 2-21〉 월별 고용률과 실업률 (2008년 1월~2009년 7월)



* 자료: 통계청

〈그림 2-18〉에서 분기별 고용지표가 2008년부터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그림 2-21〉처럼 월별로 좀 더 세세하게 살펴보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파급효과가 실물경제에까지 이른 시점인 2008년 7월부터 고용률이 하락하다가 12월에는 급전직하한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1/4분기 고용률이 악화되었음을 감안해도 이 폭은 대단히 크다. 실제로 2008년 1월, 2월보다도 더 낫다. 하지만 실업률 지표를 보면 그만큼의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의 추세(기울기)마저 정반대방향으로 일치하지도 않는다. 왜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를 보아야 한다.

〈그림 2-22〉 월별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2008.1~2009.7)



* 자료: 통계청

〈그림 2-22〉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8년 12월, 2009년 1월, 그리고 2월 실업자는 완만히 늘어나고 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급격히 늘어났다.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지, 실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더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그래서 체감실업률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용률 변화통계를 같이 보아야 한다.

한편 2009년 3월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줄고, 실업자인구가 늘면서 실업률도 높아진다. 그러다 2009년 2분기부터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호전되는데, 이는 인턴사원제 확대 및 공공부문에서의 임시일용직 채용으로 고용이 불완전하게나마 늘어났기 때문이다.

13. 비정규직과 고용의 불안정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까지 임금노동자를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만 분류해왔다. 이 때 상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임시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직은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를 가리킨다. 고용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만일 해당노동자가 퇴직금·상여금을 지급받는 등 회사의 인사규정에 적용되면 그 노동자는 상용직으로 분류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으로 분류된다.

20세기 초반 노동자운동이 성장하고, 미국주도의 자본주의 황금기가 도래하면서 고용형태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었다. 고용시장에서 풀타임-상용-직접고용 세 요소를 모두 갖추는 정규직화가 일정하게 진행된 것이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자본주의 위기가 심화하면서, 그리고 1980년대부터 노동자운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반격이 진행되면서 양상은 급격히 역전된다. 이때부터 임금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실질노동시간 연장을 위해 고용형태가 다변화되고, 임시직화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고용이 불안정화되고 있는 고용상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사상 지위에 따라서만이 아니라 고용형태를 세분화해서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2001년부터 1년에 한 번(2007년부터는 1년에 두 번)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이하 부가조사)를 진행해서 관련 통계를 추가한다. 부가조사에서는 고용형태에 따라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 추가하여 비정규직규모를 추산한다. 여기서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시간제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36시간 미만)를 의미한다. 또 비전형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근로형태종사자, 가정내근로자(재택, 가내), 일일(호출)근로자를 말한다.

정부는 이 통계를 근거로 비정규직 노동자층을 추계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정규직과 다른 고용형태만을 따지면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층에 동의한 사람만을 비정규직으로 추려낸다. <표2-11>에서 보면 A+B만을 비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참고로 이제까지 노동부는 임시일용직 B+C를 취약계층으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고용의 불안정화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을 추계하고자 한다면 풀타임-상용-직접고용 세 요소 중 하나라도 못 갖춘 노동자,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봐야 할 것이다. 즉 부가조사 설문조사에서 자신을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로 표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설문조사상에서 임시·일용직 군에 속했다고 응답했다면, 이 노동자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다. <표 2-11>에서 보면 A+B+C가 비정규직의 규모를 나타내는 값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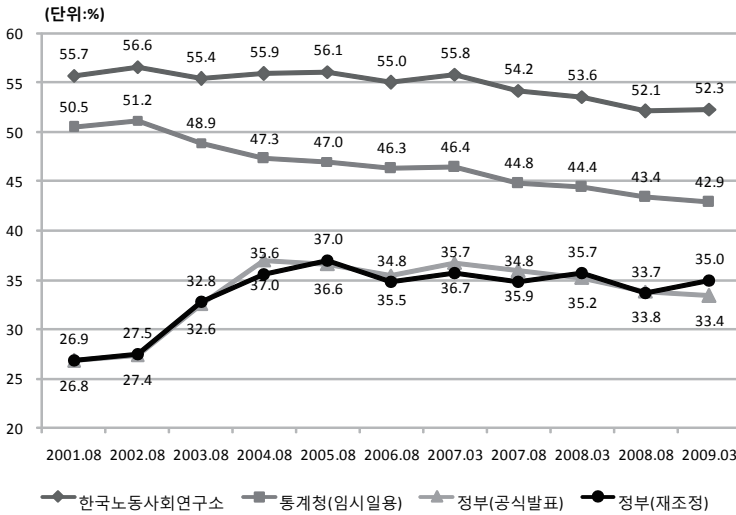
〈표 2-11〉 경제활동부가조사에서 고용형태 분류 (2008년)

(단위:천명)

구분	비정규직			정규직	소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상용직	1,509, 9.4%(A)			7,665, 47.7% (D)	9,174(57.1%)
임시직	4,116, 25.6%(B)			2,786, 17.3%(C)	6,902(42.9%)
일용직					
소계	5,625(35.0%)			10,451(65.0%)	

- * 노동부 기준 비정규직 (A+B) — 5,625천명 (35.0%)
- * 노동계 기준 비정규직 (A+B+C) — 8,411천명 (52.3%)
- * 임시·일용직 (B+C) — 6,902천명 (42.9%)
- * 출처 : 노동부, 『비정규직법안의 이해』

〈그림 2-23〉 비정규노동자 증가추이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9.6)

〈그림 2-23〉을 보자. 정부추정방식에 따르면 2002년 8월(27.4%)부터 2004년 8월(37.0%)까지 비정규직은 가파르게 증가하다(바로 이 때문에 정부추정 통계에 의혹이 제기된다) 2007년 3월까지 36 ~ 37% 수준을 유지하며, 2007년 8월부터 조금씩 감소한다. 노동계 통계로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비정규연구센터의 추계를 가장 많이 활용하며, 양자 사이에는 형태별 숫자와 명칭, 그리고 전체 통계상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부가조사」를 다시 추계한 값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는 2001년 8월부터 2007년 3월까지 55~56%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8월부터 조금씩 감소한다. 2008년 8월에는 52.1%로 3~4% 포인트 줄어들지만 여전히 비정규직은 임금근로자 중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14. 실업의 다양한 형태와 불완전 취업

앞서 이야기 한 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축적이 확대되어도 고용은 항상 불안정하다. 이런 위협을 배경으로 취업자와 실업자의 경쟁은 상시적인 상황이 되고, 그에 따라 결국 장시간 노동, 저임금이 만성화된다. 이렇게 대중의 궁핍한 상황을 가장 궁극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실업이다.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였지만 실업으로의 위협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실업은 결국 자본주의 체제가 야기한 상대적 과잉인구라 할 수 있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4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유동적 형태, 정책적 형태, 잠재적 형태, 최저의 칩전지. 각각의 사례로 해고노동자(정리해고자), 비정규직과 가내노동자, 자영업자와 농민, 빈민과 부랑자를 꼽을 수 있다.

이상의 의미를 충분히 담아내는 고용통계는 없을뿐더러 사실 노동부가 추계하는 실업통계는 체감실업률마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그에 따라 실업지표를 개선하고 현실화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등장하는데, 정부정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 마저도 이를 제안하고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4월)

논자들이 가장 먼저 제기하는 것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은폐된 형태로서 '잠재 실업자'를 추려내는 것이다. 취업준비자나 실망실업자, 백수 등은 현재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사실 실업자라는 것이다. 또 취업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실업자로 보아야 할 대상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좀 더 많은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고 싶으나 노동시간 여건상 어쩔 수 없이 18시간미만 일하는 노동자는 사실상 '부분 실업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실업지표를 조정하면 그 실업률은 정부 통계상으로 추계되는 실업자규모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추계한 실업지표가 체감실업률, 실제 실업규모와 가깝다.

〈표 2-12〉 확장된 실업지표

(단위:천명)			
	2,006	2,007	2,008
공식 실업자	827	783	769
(비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실업자	821	816	875
(취업자 중) 부분실업자	643	660	739
합계	2,291	2,259	2,383

*출처: 한국노동연구원(2009), 『월간 노동리뷰 4월호』

실업과는 다르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다. 통상 확장된 실업자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불완전 취업자가 바로 그것이다. 불완전 취업자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단시간 일하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즉 취업에 대한 의식, 소득, 취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충분한 취업상태에 있는 것을 불완전취업이라 말하며 이들은 다시 ① 의식면에서 전직이나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자, ② 소득면에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피보호자와 같은 정도의 수입밖에 벌고 있지 못한 저소득 취업자, ③ 취업시간면에서 취업시간이 매우 짧거나, 또는 장시간 취업하고 있으면서도 그 수입이 매우 낮은 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미국에서 실업의 보조 지표로 널리 사용하는 U6에서는 불완전취업자를 경제적인 이유—노동시장적 사유로 36시간미만 일하는 자 중 현재 일의 시간을 늘리거나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사람으로 추가 취업 및 전직가능시기가 1개월 이내인 사람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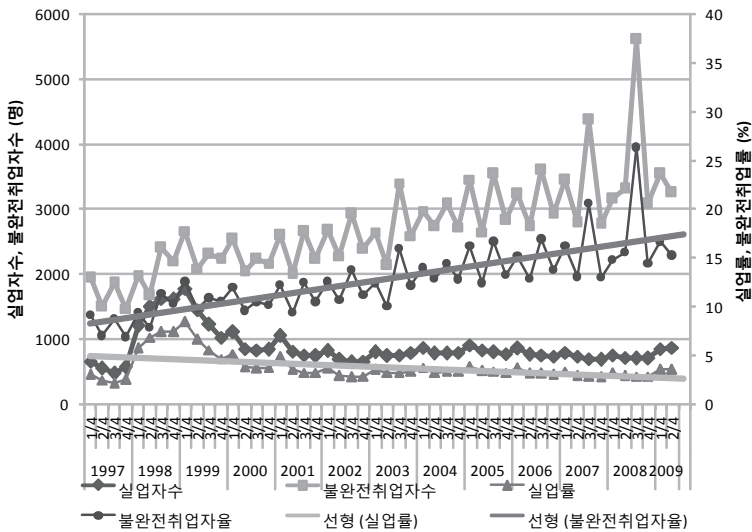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통계지표로 36시간미만 추가취업희망자가 있긴 하지만 이 통계값은 사실 ①번 밖에 반영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제 시간당 임금이 낮다는 점을 감안할 때, ②, ③을 모두 포괄하려면 36시간미만 노동자와 일시 휴직자를 불완전취업자로 간주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불완전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가정하고, 불완전취업률을 구해서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자.

$$\text{불완전취업자} = 36\text{시간미만취업자} + \text{일시휴직자}$$

$$\text{불완전취업률} = \frac{\text{불완전취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그림 2-24〉 실업자와 불완전 취업자



* 자료: 통계청

통계의 일관성을 위해 1997년부터 비교하겠다. 실업률 추세선이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1998년 IMF 위기 당시 실업률이 7~8%대로 높았다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실업률 변동은 미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불완전취업률의 추세선을 보면 IMF 위기극복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그림 2-23>에서 확인했듯 2001년 3/4분기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3~4%포인트 감소한다. 하지만 불완전취업률은 2009년 1/4분기 16.7%로 오히려 4%포인트 가량 증가한다. 실업률은 제자리이지만 불완전취업률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실업의 조직화' 결과다. 1970년대 경제위기가 확산되자 신자유주의자들은 1980년대 들어 완전고용을 포기한다. 완전고용은 포기하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실업자를 불완전한 취업으로 유도하는데, 이렇게 불완전취업을 확대해 고용위기를 감추려는 것을 '실업의 조직화'라 한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의 고용정책 목표다. 이 같은 정책목표가 수정되지 않는 한 불완전 취업은 계속 확대될 것이고 비정규직 확대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화 역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V

바닥을 향한 경쟁

임금격차와 저임금

발 달된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다수 구성원들의 주요 소득원은 임금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든 가계 차원에서든 임금이 주요한 소득원천인 이상, 고용과 더불어 노동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금(소득)통계다.

임금통계는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추계되는데, 따라서 그만큼 많은 통계제 구성과 해석이 존재한다. 같은 통계를 보면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임금통계다. 왜냐하면 임금에 대한 해석은 그 자체로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방법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만큼 임금통계를 보는데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임금격차에 대한 해석이 특히 그렇다.

15. 노동시간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판매하면서 자신의 노동력에 대한 사용권을 자본가에게 양도한다. 따라서 자본가는 노동자와 계약한 노동력 양도 기간동안 노동시간을 최대한 늘려 이윤을 늘리려고 한다.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필요노동시간 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동안 일을 시키며 노동자를 부린다는 뜻이다. 여기서 잠깐, 필요노동시간은 법정노동시간이 아니다. 법정노동시간은 언제나 늘 필요노동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다. 법정노동시간은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잉여노동시간을 포함한다.

〈표 2-13〉 임금과 이윤		
	노동자의 몫	자본가의 몫
부가가치	임금(노동력가치)	이윤(잉여가치)
사회적노동	필요노동	잉여노동
노동일	지불노동	비지불노동

이렇게 늘려놓은 노동시간에 기반을 두어 잉여가치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영유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자본가의 속성이다. 긴 노동시간은 자본가에게는 이윤이 되지만 노동자에게는 그것을 영유할 권리가 없기때문에 어떠한 득도 없다. 노동자는 오히려 그만큼 자신의 노동력을 해치기만 할 뿐이며 노동력 재생산 부담만 늘릴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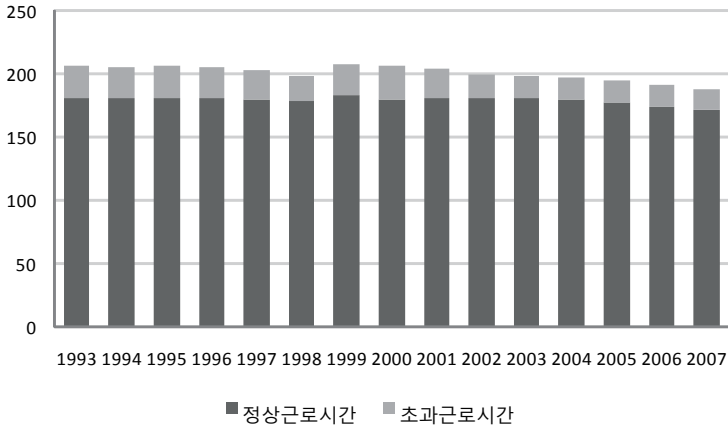
한편,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임금을 시간단위로 주면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일을 시키고, 노동자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시급, 주급, 월급을 안 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주 35시간이 못되는 불완전 취업이 대표적이다. 이 때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충분한 월급을 준다는 미명아래 노동일을 비정상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는 좀 더 충분한 소득을 얻고자 긴 노동

시간을 무작정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또 한편으로 자본가는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노동자의 실제노동량을 늘려놓는 한편 실업자 및 불완전 취업자의 존재를 이용해 긴 노동시간을 강요한다. 노동표준—특히 시간당 지급받는 임금의 액수가 낮으면 취업한 노동자라 할지라도 긴 노동시간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취업한 노동자와 실업자 사이의 경쟁과 갈등이 조장되면서 서로 노동시간을 늘리려는 악무한적인 경쟁이 시작된다. 따라서 노동시간 통계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살피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다.

노동부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2008년부터는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10인 이상 사업체(1999년부터는 5인 이상, 2008년부터는 1인 이상)를 상대로 정상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조사하여 근로시간 통계를 측정한다. 여기서 정상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이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상근로일에서 휴식시간을 제외한 실제근로시간을 말한다. 초과근로시간은 정상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즉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등을 의미한다.

〈그림 2-25〉를 보면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되기 시작하는 2004년부터 노동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표 2-14〉에서 보듯 여전히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단연 최고다. 따라서 지금 노동시간이 조금이라도 줄고 있는 것은 한국이 워낙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보니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지표일 뿐이다. 사실 노동시간 단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형근로제인데, 변형근로제는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노동시간을 줄여 사실상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2-25〉 월평균 노동시간 (10인 이상 상용직)



*자료: 노동부

〈표 2-14〉 OECD 연간노동시간 국제비교(2007년)

(단위: 시간)

국가	연간 노동시간 (시간)	순위
한국	2,261	1위
폴란드	1,953	2위
슬로바키아	1,947	3위
멕시코	1,933	4위
체코	1,914	5위
일본	1,850	6위
이태리	1,824	7위
아이슬란드	1,822	8위
미국	1,798	9위
.	.	.
벨기에	1,461	23위
프랑스	1,457	24위
노르웨이	1,411	25위
네덜란드	1,392	26위
독일	1,353	27위

* 출처: OECD Employment Outlook(2008)

* 호주,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노동자들에 해당됨.

한편 노동시간 통계에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일단 불완전 취업 및 임시·일용직에서의 노동시간이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둘째, 초과근무와 복수직업의 형태가 제한적으로 반영되거나 후자는 아예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이 노동시간 통계가 실질노동시간통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오늘날 노동시간은 '빈틈없는 노동'으로 실질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특징이 있다. 신자유주의시대 생산방식을 특징짓는 적기생산(just-in-time)의 실질적 목표는 제품생산에 들어간 시간과 여기에 투여되는 실질노동시간을 똑같이 하는데 있다. 이렇게 작업시간을 빈틈없이 짜기 위해서는 계약된 노동시간에서 작업준비시간, 상념 등 일체의 여유시간을 없애야 한다. 또 노동통제를 강화하고 노동조합활동이 위축시키면서 결근율도 하락시킨다. 이렇게 하면 실질노동시간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통계에서 추계되는 노동시간은 이런 실질노동시간이 아니라 계약된 노동시간—측정되는 노동시간일 뿐이다.

〈그림 2-25〉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하게 보아야 할 것이 있다.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관계없이 실노동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는데, 바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생산물량이 급속히 감속되어 초과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1997년, 1998년 월 평균 노동시간이 단축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현상은 실제로 지불받는 임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16.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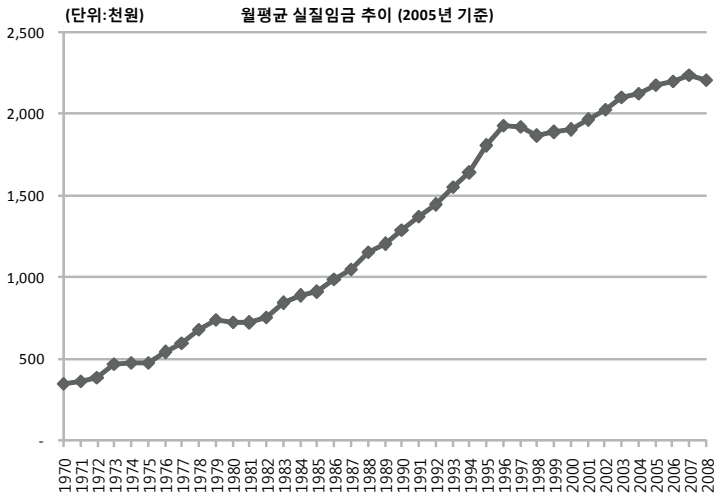
임금은 노동력시장에서 노동력이 상품으로 거래될 때 지불되는 노동력의 가격으로서, 시간으로 측정되는 노동력의 가치에 비례한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임금은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화폐량, 즉 노동의 가격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임금의 크기가 노동시간과 일수로 측정되고, 노동력을 양도한 노동자는 임금을 노동을 제공하고 난 이후에 지급받기 때문이다.

임금은 노동자가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소득 원천이고, 또 동시에 자신의 노동력을 계속 제공하게 하는 유인이 된다. 한편 자본가의 입장에서도 임금통계는 중요한데 임금은 자본가에게 가장 중요한 비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임금통계는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2008년부터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이루어지는데, 이 임금 통계는 ‘10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한다.(1999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하고, 2008년부터는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한다.) 하지만 상용직이 전체고용에 50~60%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통계로는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소득 전체 통계인 피용자보수를 임금노동자수로 나누어 구하면 전체 노동자의 임금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다. 피용자보수는 민간과 정부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에게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지불되는 현금, 현물 등 일체의 보수를 가리킨다. 피용자보수의 규모와 증가율은 임금상승률 뿐만 아니라 취업률에 의해서도 큰 영향도 받는다. 취업률이 늘면 임금이 정체되거나 삭감되어도 피용자보수는 늘 수 있다.

〈그림 2-26〉 월평균 실질임금 (2005년 기준)



* 자료 : 노동부

명목상 임금이 올라도 물가가 그만큼 오르면 실제 구매력은 제자리가 된다. 따라서 좀더 실질적인 임금추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실질임금이다. 실질임금은 임금의 실제 구매력을 뜻한다.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기 위해 명목임금을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다.

명목임금을 2005년 물가기준으로 환산해서 구해본 것이 〈그림 2-26〉에서 나타난 실질임금 추이이다.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투쟁을 지속하는 한 실질임금은 상승한다. 하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반전되는데, 자본가들이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손실을 임금삭감으로 만회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림 2-26〉를 보면 1979년 ~ 1982년 실질임금이 삭제되거나 정체되었고, 1997년 ~ 2000년에는 실질임금이 크게 삭감되기도 하였다. 그러다 2005년부터 실질임금이 다시 정체하다가 2008년에는 급기야 하락하기 시작한다.

월평균 실질임금(률) 추이도 중요하지만 시간당 실질임금(률)의 변화추이를 계산하는 것도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대로 시간급이나 성과급 등 노동표준이 축소되면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을 늘리거나 스스로 노동강도를 높여 월 임금소득을 만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불완전취업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인해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을 뜻한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평균통상임금을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된다.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주 1회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시간으로서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일 때는 월 226시간(주 52시간, 월 $52/7 \times 365/12$ 시간)이고, 주당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때는 209시간(주 48시간, 월 $48/7 \times 365/12$ 시간)이다. 시간당 임금을 계산할 때 월평균통상임금을 월평균근로시간이 아니라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는 것은 통상임금에는 주 1회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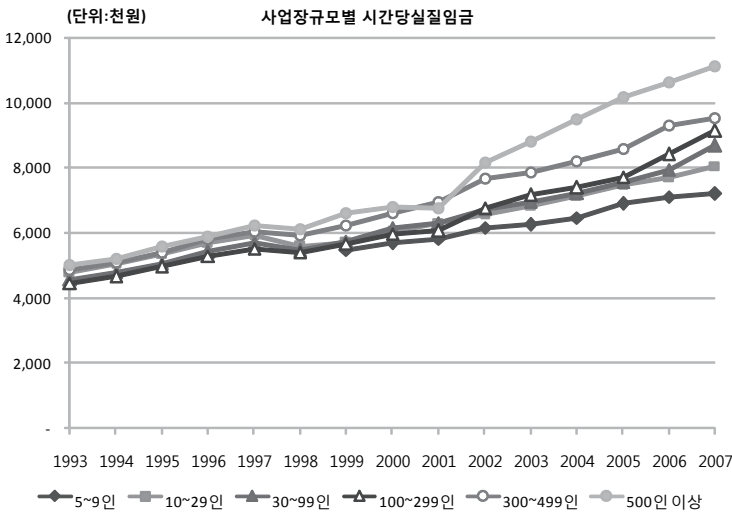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2-27> 그래프를 보면 시간당 실질임금이 500인 이상 사업장을 필두로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법정노동시간 단축 효과 중 하나다.

지금 현재 주 44시간이었던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단축되고 있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004년부터 7월 1일부터(이하 월일 생략), 300인 이상은 2005년부터, 100인 이상은 2006년부터, 50인 이상은 2007년부터, 20인 이상은 2008년부터,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1년까지 단축된다. 그리고 각각 해당 사업장이 노동시간을 단축할 때를 전후해 해당 규모의 사업장에서 시간당 실질임금이 상승한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동안 사업장 규모별로 노동시간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그림 2-27>에서 보는 것처럼 시간당 임금격차가 발생한다. 2009년 현재 노동시간단축 적용대상이 아닌 20인 이하 사업장은 시간당 실

질임금률은 거의 정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1989년~91년까지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될 때에는 임금격차가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기간도 짧았을 뿐더러 단계적 적용방식 역시 사업장 규모별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서 첫째에는 46시간으로 다음해에는 44시간, 이렇게 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2-27〉 사업장 규모별 시간당 실질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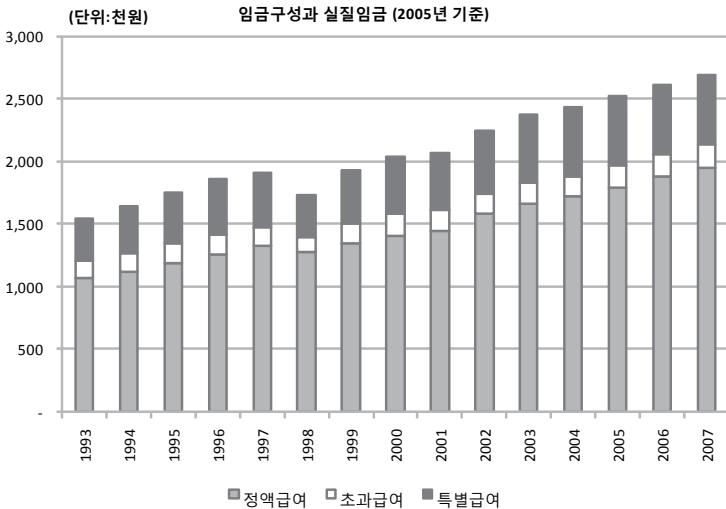
* 자료: 노동부

* 위 통계값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임금통계에서 분류되는 사업장 규모의 구획이 노동시간 단축이 확대되는 사업장 규모의 구획과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위 통계는 이를 일정하게 무시한 값이다.

17. 임금구성과 임금신축성

노동부가 『매월노동통계조사』(2008년부터는『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서 임금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임금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월급여액도 조사한다. 월급여액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액급여는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해져 있는 급여액으로 기본급 이외에 연월차수당 등 기본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보통 통상임금을 가리킨다. 초과급여에는 초과근로로 인하여 추가지급되는 급여를 가리킨다. 특별급여는 급여지급규정과 관계없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특별급여를 말한다. 정기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체력단련비 등이 특별급여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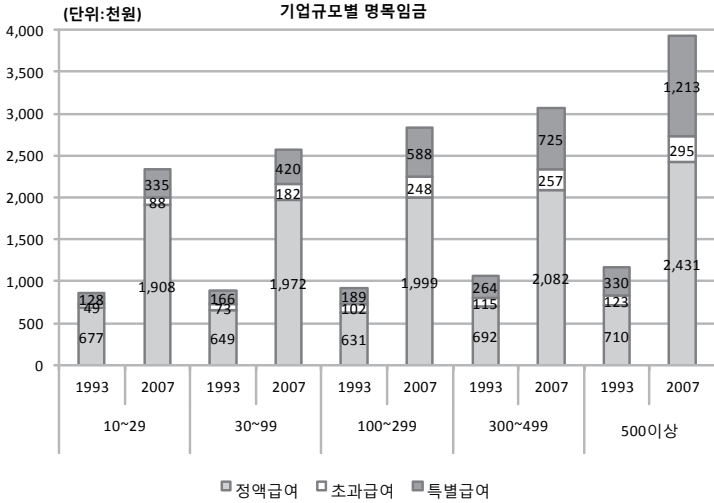
〈그림 2-28〉 임금구성과 실질임금



* 자료: 노동부

임금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소득에서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 특별급여의 의존도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의 진원지 또한 알 수 있다.

〈그림 2-29〉 기업규모별 명목임금 (1993,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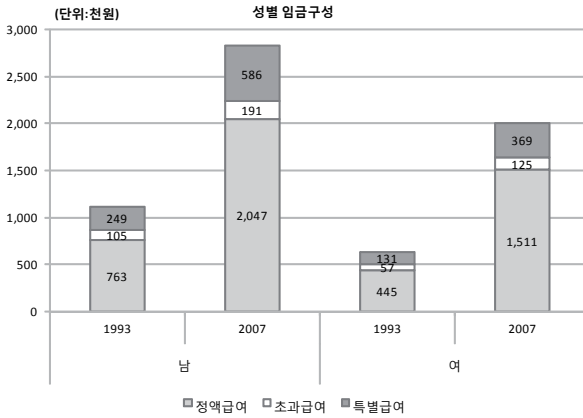


* 자료 : 노동부

〈그림 2-29〉를 보면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에서 눈에 두드러지는 것은 1993년이나 2007년이나 특별급여의 임금격차다. 200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정액급여가 다른 중소기업보다 많기는 하지만 그래서 특별급여에서는 더 차이가 크다.

반면 〈그림 2-30〉 성별 임금격차를 보면 남녀간에는 특별급여 뿐만 아니라 정액급여에서도 차이가 크다. 정책급여에서의 임금격차가 전체 임금격차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남녀간 임금격차는 사업장 규모에서의 임금격차 사례와 달리 통상급여에서부터 비롯한다.

〈그림 2-30〉 성별 임금구성 (1993년, 200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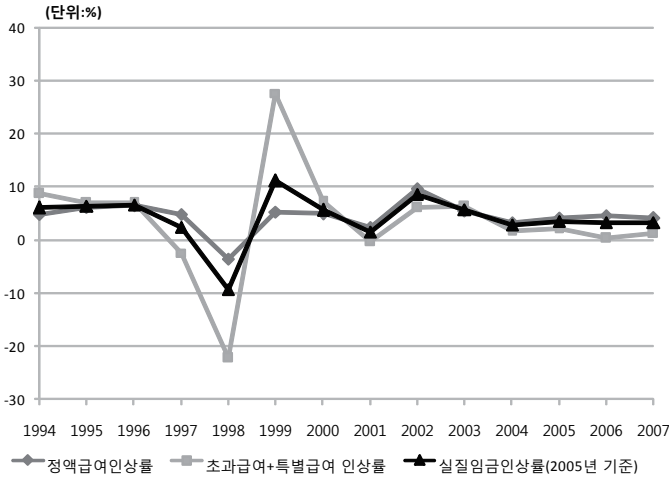
* 자료: 노동부

〈경제위기와 임금신축성〉

다음페이지에 있는 〈그림 2-31〉은 실질임금 인상률과 임금구성 항목별 인상률이다.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실질임금 인상률의 최대값은 1999년 11.2%이고, 최소값은 1998년 -9.3%이다. 여기서 같은 기간 정액급여 최대, 최소 인상률은 각각 2002년 9.7%, 1998년 -3.5%이며, 비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최대, 최소 인상률은 각각 1999년 27.7%, 1998년 -22.3%이다. 비정액급여가 경기변동에 훨씬 민감한데, 이는 경제위기가 시작되면 비정액급여부터 삭감되고, 회복되면 비정액급여로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4년부터 2007년까지 10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에게 있어서 전체 임금 중 정액급여의 비율은 70% 전후다. 〈그림 2-29〉에서 보듯 대규모 사업장에 정액급여 비율은 더 낮아진다.

〈그림 2-31〉 임금구성 항목별 임금인상률(%)



*자료: 노동부

이런 현상은 최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른쪽 <표 2-15>를 보자. 2008년 4/4분기 5인 이상 상용직 실질임금이 전년동기대비 -5.9% 감소하였다. 정액급여는 0.6%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 및 특별급여가 각각 -13.3%, -25.6% 감소한 것이다. 총 근로시간도 4.5시간 감소하였는데 이 역시 초과근로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다(-3.1시간). 2009년 1/4분기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정액급여의 비중이 작고, 초과 및 특별급여의 비중이 높을수록 노동자의 임금소득은 불안정해진다. 경기에 따른 변동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에서 정액급여의 비중은 더욱 낮는데, 이는 그만큼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일수록 물량수급에 임금소득을 의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자가 안정적인 임금소득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정액급여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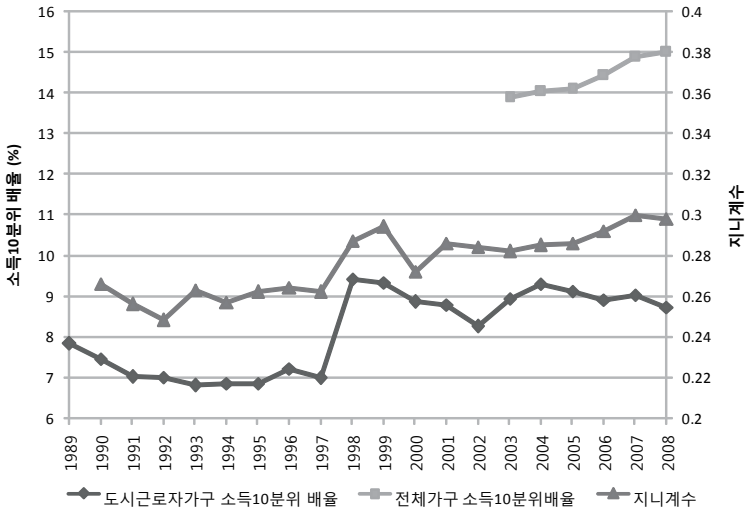
〈표 2-15〉 5인 이상 상용직 실질임금 및 근로시간

	2007년 4/4분기	2008년 1/4분기	2008년 4/4분기	2009년 1/4분기
실질임금총액	2,724,967 원	2,617,380 원	2,562,958 원 (-5.9%)	2,467,205 원 (-5.7%)
정액급여	1,968,202 원	1,958,323 원	1,979,747 원 (+0.6%)	1,919,535 원 (-2.0%)
초과급여	162,189 원	156,712 원	140,620 원 (-13.3%)	124,582 원 (-20.5%)
특별급여	594,575 원	502,345 원	442,590 원 (-25.6%)	423,088 원 (-15.8%)
총근로시간	185 시간	175.6 시간	180.5 시간 (-4.5)	171.1시간(-4.5)
소정근로시간	164.6 시간	157.7 시간	163.1 시간 (-1.5)	155.8시간(-1.9)
초과근로시간	20.5 시간	17.9 시간	17.4 시간 (-3.1)	15.4시간(-2.9)

*자료: 노동부

18. 바닥을 향한 경쟁과 임금격차

〈그림 2-32〉 도시근로자가구 소득10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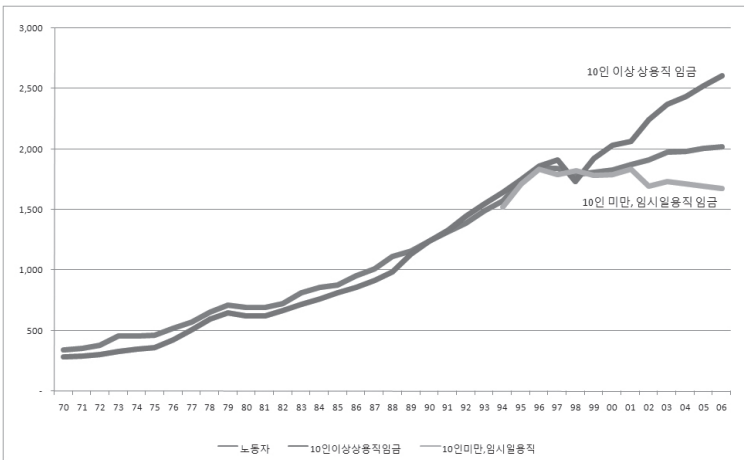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그림 2-32〉는 도시가구 소득분배 지표 즉, 소득10분위배율과 지니계수의 변화추이이다. 소득10분위배율은 상위 10%계층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10%계층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으로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이 값은 커진다. 지니계수 역시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0에서 1까지 값을 가지며 이 값 또한 소득격차가 커질수록 이 값 또한 1에 가까워진다.

〈그림 2-32〉를 보면 도시근로자 소득10분위배율은 1997~8년 급증하였고, 이후 8.3~9.3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니계수 역시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 반격과 함께 노동조합운동이 수세에 빠져들면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근로자 가구의 경우 소득격차는 특히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 상위 10분위 계층의 소득에서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의 비율은 1990년부터 20% 전후를 상회하다가 1999년에는 28.8%에 이르기도 한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따라서 소득격차를 주도하는 것은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33〉 월평균 실질임금 추이(전산업, 2005년 기준, 단위:천원)



* 출처: 김유선, 『한국의 노동 2007』

〈그림 2-33〉은 전체노동자의 실질임금과 10인 이상 사업장의 실질임금, 10인 미만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실질임금을 각각 별도로 그린 그래프다. 그래프 추이를 보면 1995~7년부터 각각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주의깊게 보아야 하는데, 같은 시기 임금인상추세가

점점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6>에서 보는 것처럼 1997년부터 임금인상률이 전체 노동자는 물론이거니와 1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도 둔화되고 있다. 특히 2004년부터 보면 각각 1%대, 3%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은 500인 이상 사업장 즉,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 1997년부터 임금인상률이 정체되다가 2004년부터는 5% 전후에 머물고 있다. 노동생산성이 매년 8% 전후로 상승한 것에 비하면 지극히 대조적인 현상이다.

〈표 2-16〉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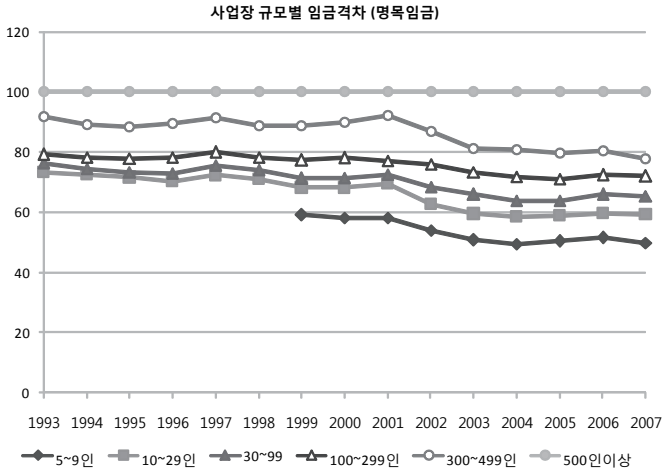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노동생산성상승률 (부가가치, 시간당)	8.8	8.9	10.5	12.9	3.5	·	8.8	-0.1	10.8	6.7	10	6	11.8	7.2
실질임금상승률 (10인 이상 사업장)	6.1	6.4	6.6	2.5	-9.3	11.2	5.6	1.5	8.6	5.7	2.8	3.6	3.3	3.2
실질임금상승률 (500인 이상 사업장)	8.2	8	6.8	0.4	-7.4	13.4	6.3	1.3	14.4	8.1	5.5	3.6	1.2	4.9
실질임금상승률 (전체노동자)	5.5	10.2	6.8	-0.4	-2.9	1.2	0.9	3.2	3.1	3.7	1.1	2.5	1.2	1.5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부

오른쪽 <그림 2-34>는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를 보여준다. 500인 이상 사업장을 100으로 했을 때, 각각 규모별 사업장의 임금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 예상하다시피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500인 이상 사업장과의 임금격차가 크다. 1997년 전후로 임금격차는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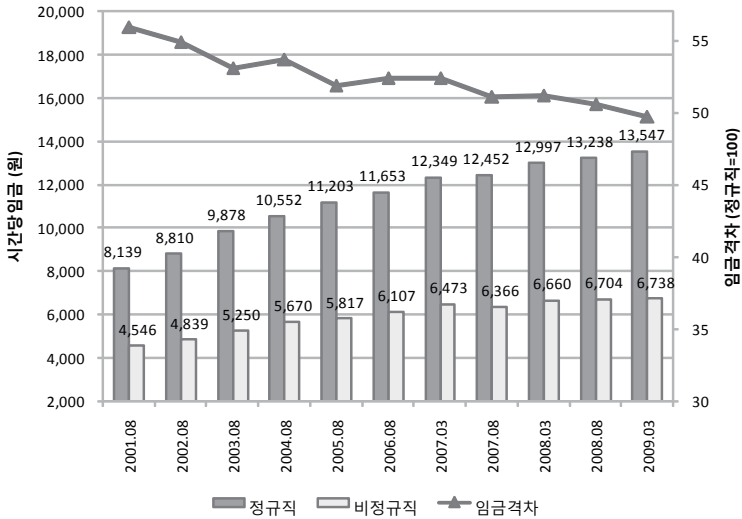
<그림 2-35>는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다. 이 그래프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규모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100으로 보았을 때 비정규직의 임금비율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8월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이 55.9%였는데 2009년에는 49.7%로 하락하였다. 고용형태별로도 임금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그림 2-34〉 사업장 규모별 임금격차



* 자료: 노동부

〈그림 2-35〉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 출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09.6)

이상은 다음을 의미한다. 임금상승을 억제하거나 삭감시키려는 정부와 자본가의 시도에 맞서 500인 이상 대공장 사업장 만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겨우 따라잡았을 뿐이다. 반대로 1990년대 중후반 500인 이하 사업장, 특히 10인 이하 임시일용직 사업장노동자에서는 임금인상이 지체되고 있다. 따라서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 것인가.

〈그림 2-34〉에서 언급했듯이 소득격차의 주범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경상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다. 1990년대 이래 이자, 배당, 주식투자, 부동산투자의 형식으로 금융소득이 확대되고, 사내유보이윤마저 기업설비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노동자 내부 임금 격차란 결국 부의 분배가 노동자계층에서 금융소득자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임금격차만 보면 현상적으로 마치 여성노동자의 임금을 남성노동자가,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 노동자가 빼앗아간 것처럼 보인다. 여기다 정부와 언론은 노동자들 내부의 임금격차 확대를 정규직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또 외주 하청체계가 발달하면서 대공장사업장만이 임금인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 사업장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하청체계에서 하청업체는 자신의 수익을 원청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득격차, 임금격차의 차이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자신만의 임금방어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임금격차는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확대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또한 저임금 노동력이 존재하는 것, 혹은 임금격차 그 자체가 노동자의 전체의 임금인상을 억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노동자의 단결을 불가능하게 한다. 노동자가 단결하지 못하면 이는 자본가들의 임금삭감 시도의 기반이 될 뿐이고, 결국에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마저도 곤란하게 한다.

1980년대 말 대기업 노조의 임금인상은 전체 산업의 임금인상이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하청체계의 발달로 전체 산업의 임금인상이라는 부수 효과는 사라지고 도리어 임금격차가 확대되었다. 임단협에서 민주노조 운동이 이루어왔던 역사적인 성과가 유실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고립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단적인 시도, 대기업만의 임금방어가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임금방어, 정률인상이 아니라 정액인상으로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시도, 정규직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단결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려는 시도가 필요하다.

19. 노동생산성과 실질임금

노동생산성이란 노동투입량 1단위당 산출량을 말한다. 이 때 산출량이 산업 생산이면 이 값을 물적 노동생산성이라 하며 산출량이 부가가치면 이 값을 부가가치 노동생산성이라 한다. 결국 GDP를 노동투입량으로 나눈 값을 노동생산성이라 할 수 있는데, 노동투입량은 노동자수일 수도 있고, 노동시간(Man Hour)일 수도 있다.

노동생산성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노동자의 평균적 숙련도, 과학과 기술 응용의 발전정도, 생산과정의 사회적 조직, 생산수단의 규모와 능률, 때로는 자연적 조건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은 거의 대부분 기술수준에 의존한다. 미국이 한국보다 노동생산성이 높은 것은 미국노동자가 한국노동자보다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보다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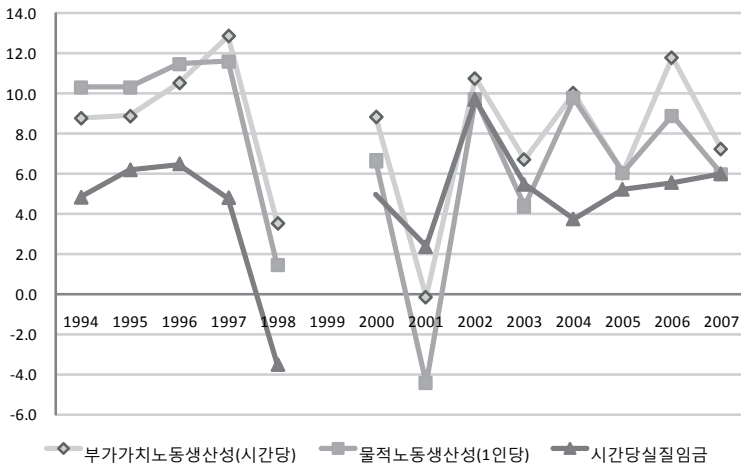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단위당 산출량의 증가율을 의미하므로 이는 당연히 임금인상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종종 부르주아 언론은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것을 논거로 임금억제를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본래 취지대로라면 다만 생산기술의 발달을 촉구하는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노동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자의 정당한 분배요구로 이어진다. 적절한 성과에 따른 분배가 자본주의에서 임금지급의 근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지표상으로 봤을 때 결국 임금인상이란 노동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자의 정당한 분배요구라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앞서 임금률과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 그리고 그에 따른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이 기본경향이기 때문이다. 이를 저지하거나 조금이나마 역전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노

동자들의 연합적 힘, 노동조합이다. 노동자들은 개별인 상태에서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을 받아들이게 되지만,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표준의 하락을 저지하고, 조금이나마 임금인상을 이루어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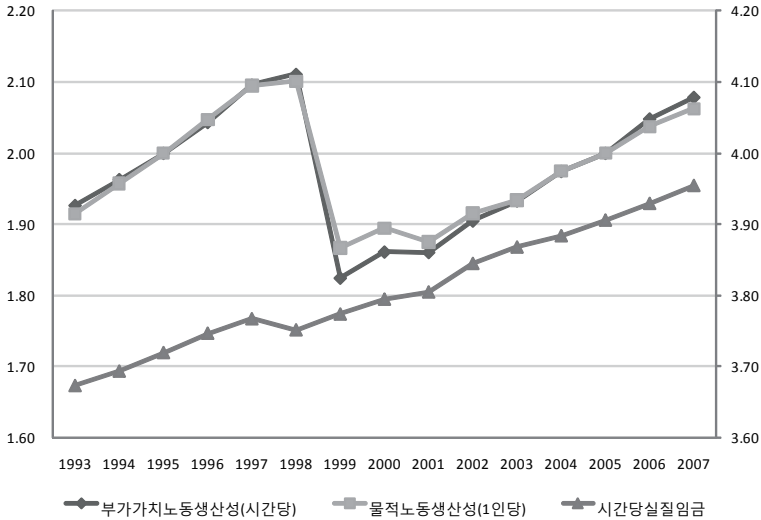
〈그림 2-36〉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 노동생산성 증가율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부

〈그림 2-36〉을 보면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항상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간당 실질임금 증가율이 높았던 해는 지난 15년 동안 그리고 2001년, (2003년) 1~2회 뿐이다.

〈그림 2-37〉 노동생산성, 시간당 실질임금 로그증가율



* 자료: 한국생산성본부, 노동부

〈그림 2-37〉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장기 추세를 살펴보기 위해 노동생산성 지표를 로그값으로 가공한 것이다.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통계값의 시계열 상에 한계가 있어 1993년 값부터 볼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실질임금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증가율에 계속 못미치고 있다는 의미다.

이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물론 자본가가 허용하는 임금인상이 언제나 늘 노동생산성 증가에 못미치고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면에서 주체적 요건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는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함께 (임금격차에서 기인하는) 노동자 내부의 갈등이 확대되면서 민주노조운동이 단결된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임금인상을 하는데 있어 임금격차를 축소하고, 노동자내부의 경쟁을 완화하면서, 노동자의 연합적 힘-노동조합을 통한 계급적 단결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